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4·3 시기 아동학살 연구

—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한국학협동과정

허영선

2006년 12월

碩士學位論文

제주4·3 시기 아동학살 연구

－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김 동 전



濟州大學校 大學院

한국학협동과정

허 영 선

2006년 12월

제주4·3 시기 아동학살 연구

－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김 동 전

허 영 선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허영선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The Study on the Child Massacre during Jeju 4·3 Period

- Focusing on the oral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Young-Seon Huh

(Supervised by Professor Dong-Je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STUDIES

2006. 12.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6

II. 제주4·3 시기 아동학살의 실태

1. 체노사이드와 아동학살 12
2. 아동학살의 실태 18
3. 마을별 피해 실태와 그 사례 22

III. 제주4·3 시기 아동학살의 유형과 특징

1. 아동학살의 유형 32
2. 아동학살의 특징 48

IV. 제주4·3 시기 아동생존자들의 기억과 삶

1. 생존 경험과 후유장애 53
2. 삶의 고통과 기억과의 싸움 67

V. 아동학살의 현재적 의미

1. 고통의 내면적 승화 74
2. 평화와 인권의 함의 79

VI. 결 론 81

참고 문헌 84

표 목차

<표 1> 1947년 당시 제주북국민학교 졸업생 연령 분포도	7
<표 2> 면접대상자 4·3 당시 직업별 분류	11
<표 2-1> 면접대상 아동 생존자들의 나이 분포	11
<표 3> 아동 희생자 월별 분석	20
<표 4> 마을별 아동 희생자 수	22
<표 5> 지역별 전체 희생자 수와 아동 희생자 수	24
<표 6> 북촌리 아동 희생자의 나이별 분포	26
<표 7> 가시리 아동 희생자의 나이별 분포	29

그림 목차

<그림 1> 15세 이하 성별 아동 희생자 수	19
<그림 2> 나이에 따른 아동 희생자 수	19
<그림 3> 아동 희생자 월별 분석	21
<그림 4> 지역별 아동 희생자 수	24
<그림 5> 북촌리 아동 희생자 수	26
<그림 6> 가시리 아동 희생자 수	29

Abstract

The Study on the Child Massacre during Jeju 4·3 Period

- Focusing on the oral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Jeju 4·3 Uprising is the horrible tragedy of the Korea modern history. It resulted in 25,000~30,000 victims. Especially, during the scorched-earth operations period from mid October 1948 to March 1949, there were collective killings and mass killings.

Jeju 4·3 is the incident that the minorities' human rights were annihilated by the state power. Especially, child massacre expressed the magnitude of the indiscriminate mass killings. Unlike adults, children are so weak to overcome the dangers go through. They lack the recognition capabilities or self-defence capabilities to cope with the dangers.

But, the child massacre in the process of Jeju 4·3 period has not take researcher's attention, and there is no study in this fiel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ze of the child massacre during Jeju 4·3 period. It also aims to review the patterns of the child massacre and the characters of it, using the oral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who have experienced the massacre. And I try to find the meanings of the present life of the survivors and their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s a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hildren less than 16 years old during Jeju 4·3 period, children's victims are 9.4%(1,310) among 14,028 victims who were reported to the authorities.

Especially, the infant mortality are reached to 25.9%(339). This means the size of horrible massacres to children who were incapable of the resistance.

The child massacres were intensified between mid November 1948 and March 1949 when the mass killings were performed across Jeju island. This means that massacres had resulted from the hard-line suppression

by the security forces during the scorched-earth operations under the martial law which were issued on 17th November 1948.

Bukchonri village, Jochen Myeon and Gasiri village, Pyoseon Myeon have the most horrible children's victims. The child massacres led to the annihilation of the families.

One of the characters of the child massacres is the patterns of the dehumanization. The other thing is the indiscriminate massacres as the elimination method of reprisals and sources of the troubles.

The notable characters of the survival method of survivors are the children patriarch to overcome their life by themselves. They had engaged in labor including field working and even boys farmhands. Even they had to live without family resister.

In some cases, when the survivors became adults, they joined to the anti-communist groups or entered into the army to escape out of the red complex.

The children survivors who had narrow escape from the massacre Places entirely lost their children days. Some survivors are suffered from the extreme trauma like nightmare and severe physically handicapped. And they are still caught in the extreme agonies. Even the more they are getting old, the more they remember their early day vividly.

It suggests that child massacre during Jeju 4·3 period violates the peace and human rights. The space of the memory of the nameless children victims is needed to make the anti-civilized child massacres future lessons.

I. 서론

1. 문제제기

제주4·3사건¹⁾은 현대사의 명백한 참극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제주 4·3사건의 ‘수많은’ 희생자²⁾의 수는 2만 5천~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는 제주 4·3 당시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1명의 희생을 의미한다.

특히 1948년 10월 중순계부터 1949년 3월까지 벌어진 초토화작전 시기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집단학살과 대량학살을 초래하였다. 전쟁과 내전이 대개 그러하지만 제주4·3에서도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존재는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었다. 4·3은 철저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소수자의 인권이 멸절된 사건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아동에 대한 학살은 무차별학살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10세 이하 어린이(5.8%, 814명)와 61세 노인(6.1%, 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 2,985명)도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³⁾고 밝히고 있다.

이들 중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은 성인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위험으로부터 헤쳐 나갈 힘이 미약했으며, 자신이 처한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자기 방어능력, 저항의 힘조차 없는 존재였다.

특히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잔혹하고도 무자비한 학살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절대적인 약자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4·3의 야만성을 극명하게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는 전 생애를 통틀어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 생존자들에게 있어 충격적인 기억은 성인기의 기억보다 훨씬 오래 삶을 지배한다. 인생 초기의 경험이나 사건들은 후기의 발달에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⁴⁾ 아동기에 겪었던 4·3의 참

1) 2003년 10월 15일 채택된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는 이하 ‘제주4·3’ 혹은 ‘4·3’이라고 하겠다.

2)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p. 537.

혹한 기억은 그만큼 오래 사회적 고통으로 자리 잡는다.

아동학살 사례와 학살을 목격한 아동의 기억은 문학적으로도 재현된다. 4·3문학에서는 이에 대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까지 죽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진압 과정의 폭력성을 문제 삼는가 하면, 그들이 어린 나이에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⁵⁾고 강조하는 것이다.

4·3의 기억은 반세기 동안 봉인되어 왔다. 그렇게 기억은 오래 닫혀져 왔다. 유·소년기에 학살을 목격하거나 학살의 현장에서 구사일생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는 그때의 상처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을 겪거나 극심한 자기검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살터에서 상처를 입고 살아남은 어린 생존자들에게 있어 광기의 시대였던 4·3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후유장애의 삶을 걸머지게 만들었다. 그것은 심리적 갈등과 소외감, 대인기피증 등을 남기고 심하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하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 자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⁶⁾ 그 고통을 오로지 개인의 고통, 그들만의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예가 종종 있다. 그러나 4·3으로 후유장애를 겪게 된 아동 생존자들의 시간 속에서 4·3은 여전히 사회적 고통으로 남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개인의 학살 기억은 당사자인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경험’으로 존재한다.⁷⁾ 따라서 4·3은 그들의 아동기가 철저히 지워버린 현재진행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4·3에서의 아동학살은, “아동은 엄연히 어떠한 위험 앞에서든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유엔의 1924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협약’⁸⁾의 약속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4·3 시기의 아동학살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말로는 그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으나, 과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왔으며, 아동기에 학살을 경험한 생존자들에게 있어 그 상흔과 후유증이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매몰된 기억이 얼마나 내면화 과정을 거쳐 현재적 삶에 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구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이렇게 지금까지 학살의 역사 담론에서 배제되어온 아동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능적으로 살고자 했으나 저항의 힘마저 없이 희생을 당해야 했던 아동을 통해 4·3의 비극성과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4·3 속에서 아동은 어떤 존재였을까. 왜 가해자들은 아무런 방어본능이나 저항

4) 장휘숙, 『아동발달』, 박영사, 2001, p. 4.

5)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p. 171.

6) 수전 손탁,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p. 150.

7) 박정석, 「상이군인과 유가족의 전쟁경험」,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2003, p. 171.

8) 제네바 선언은 다음과 같은 5개조항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①아동의 심신발달 보장, ②요보호 아동에 대한 원조 ③위험에 처한 아동의 최우선적 구제, ④생활보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⑤인류 동포에 봉사하는 아동의 육성.

능력조차 없는 아동까지 학살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는가.

둘째, 집단광기 속에서 어떠한 아동들이 어떻게 학살당했는가.

셋째, 아동 생존자들은 당시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떻게 학살터에서 살아남았는가.

넷째,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 앞에 무방비하게 내던져졌던 아동 생존자들에게 있어, 아동기의 경험은 이후 어떠한 후유증을 남겼으며, 그것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연구는, 크게는 아동 희생자의 실태를 통해 4·3 시기 아동학살의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학살을 목격한 직·간접 생존자들의 생생한 구술을 통해 어떤 형태로 아동학살이 이뤄졌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왜 보호받아야 할 아동 인권이 짓밟히고 아동학살이 그렇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아동학살의 문제가 국내외 아동학살의 사례와 어떻게 맥이 통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그리고 학살터에서 살아남은 아동생존자들의 당시 생존에 대한 상황과 경험, 그 긴 후유장애의 삶을 주시하고자 한다. 4·3의 기억이 그들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구술의 재구성을 통해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4·3 시기 세계사적인 아동 인권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리고,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4·3 시기 아동학살 연구는 아동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살의 실태를 재인식하게 하는 일이며, 4·3의 전체 희생자에 대한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4·3을 소수자의 입장에서 경험했던, 당시 유·소년기였던 생존자들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은 흔적없이 묻혀졌던 아동의 이름을 불러내는 일이며, 학살의 실체와 4·3의 광포성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그것을 밝히는 일은 한걸음 더 4·3의 진실에 다가서는 길이며, 이 시대 아동인권의 의미를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제주4·3에 대한 연구는 증언과 1차적인 사료를 통한 연구서가 주를 이룬다. 전자는 주로 증언 채록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증언 등 종합적인 사료를 통한 연구서에 해당할 것이다. 이 논문은 구술중심의 연구이므로 여기서는 증언채록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검토키로 한다. 증언을 통해 아동학살의 문제를 거론한 결과물들로써는 제주4·3연구소의 『이제사 말함수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제주4·3위원회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등을 들 수 있다.

4·3에 대한 조사작업은 1960년 4·19혁명 후 ‘국회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속에서 자극을 받았다. 이 기간에 1,800명이 신고접수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30년 동안 국회 도서관에 묻혀졌다. 이때 증언조사는 피해 조사에 관한 것이었다. 5·16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4·3증언 채록은 다시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1960년대 4·3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이뤄진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자료집』(1963)은 초기 4·3구술사의 전망을 열어준 것이었다. 일본에서 나온 이 책은 연구서라기보다 기록으로서의 증언자료집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막힌 증언과 망각을 강요당한 기억은 바깥 일본에서 제주인들의 증언과 기억을 통하여 소생할 수 있었다. 저자의 직접 체험과 일본 피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책은 편향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의 항쟁론과 양민학살론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⁹⁾

증언은 먼저 소설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유신체제가 과격으로 치닫고 있던 1978년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들 수 있다. 문학은 다른 학술적 접근 보다 상당부분 앞서 있었다. 학계나 언론계를 자극해 그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¹⁰⁾ 집단학살의 상징 마을 북촌리가 배경이 된 이 소설은 4·3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소설에서 30년 전 제주도에서의 집단학살 사실이 폭로되고, 실상이 생생하게 재현됨으로써 오래된 금기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4·3에 대한 외부인들의 진지한 시선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¹¹⁾

이후 4·3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이때 제주4·3연구소의 『이제사 말함수다(1,2권)』(한울, 1988, 1989)와 개인적으로 채록한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4·3제주대학살의 증언』(소나무, 1989)은 4·3 증언의 촉매제가 되었다.

제주어를 그대로 살린 『이제사 말함수다』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가운데 행해진 작업이었던 탓에 대부분 익명을 써야했으며, 일정 부분 증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구술사 사례로는 전국에서도 거의 드물게 이룬 선구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4·3증언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언운동은 제민일보 4·3취재반의 연재물 ‘4·3은 말한다’에서 집대성 됐다.¹²⁾ 취재반은 제주도내 모든 마을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4·3 체험자들을 직접 인터뷰, 6000여 명에 이르는 증언자를 확보했다. 특히 이 연재는 김익렬 경비대 9연대장의 실록 유고집, 오라리 조작사건의 전모 등을 밝혀냄으로써 미군정 개입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 왜곡되어왔던 4·3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연재물은 단행본 『4·3은 말

9) 박찬식, 「4·3연구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제2호, 1999, p. 29 참조.

10) 김동윤,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pp. 210~211.

11) 김영범,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p. 36.

12) 이 연재물은 1988년 3월부터 제주신문 4·3특별취재반이 구성되어 1년간의 취재끝에 1989년 4월 3일부터 ‘4·3의 증언’으로 연재되다가 일시 중단, 다시 1990년 6월부터 새로 창간된 제민일보에서 『4·3은 말한다』로 이어졌다.

한다』(전예원, 1994~1998)로 5권까지 출간되었는데 구술사료와 문헌사료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4·3 재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마을별 현지조사가 시작되면서 증언운동은 활기를 띤다. 증언을 토대로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펴낸 『4·3유적지 기행-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학민사, 1998), 제주4·3연구소 현장 채록팀이 기술한 『한림면 현장 조사서』 등이 그런 문헌들이다.

기존 4·3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별 현지조사는 진상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증언을 서로 비교하여 진실성을 묻고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다. 제주4·3연구소의 『4·3연구회보』(1989)에서 시작된 『4·3장정』(1990~1993)과 『4·3과 역사』(2001~2005) 등에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증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 증언집은 아니지만 『제주4·3연구』(역사비평사, 1999)는 이러한 증언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시각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황상익의 논문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은 제주4·3은 죽은 자만의 비극이 아니라 유가족, 요행히 살아남은 자, 대량학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에게 의학적 후유증을 남긴 비극적 사건임을 주지하고 있다.¹³⁾

2000년대 들어 구술자료와 연구는 더욱 세분화된 형태로 나오기 시작한다. 제주4·3연구소의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역사비평사, 2002)도 4·3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간인들의 인권문제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4·3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이후의 증언사료들이 정리된 팔목할 만한 성과로는 2003년 사건발생 55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4·3특별법의 취지대로 과거 인권유린의 실태를 낱알이 드러내었고 진실 규명의 결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관점의 4·3 논의들을 불 지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4·3위원회는 모두 7권의 증언자료집(총 2,958쪽)을 남겼다.

한편 이러한 증언자료와 사료가 토대가 되어 제주4·3이 학위논문의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였다. 양한권의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를 시작으로 박명립, 양정심 등 10여 편에 이르고 있다.¹⁴⁾

13) 김동진, 「제주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편, 2000. p. 222.

14) 박명립,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8;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5;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 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1; 강성현,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동만, 「역사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재해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제주도 메이데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3;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3;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장운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은희, 「제주4·3 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고성만,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정부의 공식 사과 후 최근의 연구경향은 4·3의 역사적 의미,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더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4·3을 향한 진실의 목소리는 아직도 다 나왔다고 할 수 없다.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4·3 당시 가장 폭력에 취약했던 아동들의 피해 실태와 관련한 본격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아동학살에 관한 증언은 각 연구물들의 개인 증언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본격 연구서도 전무한 실정이다. 비교 연구가 가능한 한국전쟁 과정에서 행해진 아동학살에 대한 연구도 나오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이제 소수자의 하나인 아동의 입장에서 학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이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정의하고 있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내의 아동학살의 목격자들과 아동 생존자들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4·3 시기의 아동이다.¹⁵⁾

현대사회에서 전반적으로는 성년이 안 된 미성년을 모두 아동이라고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의미한다.¹⁶⁾ 이 연구에서는 소년기 아동의 범위를 희생자 신고 나이 15세 이하로 잡기로 하였다. 여기서 아동의 나이는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했다.

“해방직후는 혼란기여서 대부분 만 9살, 우리 나이 10살에 입학한 아이들이 보통이었다. 소학생은 청년 취급을 하지 않았다. 12살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16살, 17살 정도가 되면 민에청에 가입할 수 있었다.”¹⁷⁾

작용],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15) 아동에 대한 정의는 전통사회와 근대로 오면서 자주 변화했으며,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나라마다 다르고 평균수명이 아주 짧았던 중세와 근세와 달리 현대에 와서 아동의 개념은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아동의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령의 혼재는 서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17~18세기까지 10~14세의 아이들, 15~18세의 소년들, 19~25세의 청년들이 같은 학급에서 공부했던 것이다.(필립 아리에스 지음,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p. 391.) 실제로 사람들은 12~13세 이상을 넘어서는 아동기 중기와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를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또한 아동발달 심리학자들은 인간발달의 단계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나누고 있다. 그 분류는 학자들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은 태내기(수태~출생), 영아기(0~24개월) 유아기(2~6세), 아동기(6~12세), 청년기 12(13)~23(24세)로 나누기도 한다. 조복희 등, 『인간발달』, 교문사, 1988, pp. 21~22.

16)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1961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제2조 1항)를 가리킴으로써 일반적인 아동 이해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어린이와 소년의 연령층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17) 김시중(1931년 생, 오사카 거주), 2006. 11. 12. 채록.

16~17세에 민애청에 가입했다는 것은, 16세 이후로는 청년활동가로 인정되었지만 15세까지는 아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4·3 시기 학생 신분이지만 16세 이상의 소년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디에든 소속되어야 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좌익학생들은 민애청에, 우익학생들은 대동학생단(나중에 전국학생연맹에 흡수)에 들어가기도 했다.”¹⁸⁾

위 증언 사례를 보더라도 4·3 시기 학령기 나이는 요즘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란 초등학교 학령기까지의 어린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학령기 아동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4·3 시기 제주북국민학교의 경우, 대부분 13~16세까지의 학생들이 상당수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1948년 4·3 발발 직전인 1947년의 제주북국민학교의 6학급 졸업생의 연령 집단을 선택해 나이 분포를 살펴 본 것이다.

<표 1> 1947년 당시 제주북국민학교 졸업생 연령 분포도¹⁹⁾

출생 연도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기타	계
나이(세)	16	15	14	13	12	11	x	x
인원(명)	16	89	126	77	11	1	31	351
비율(%)	5	27.8	39	24	3.4	0.3	9.7	100.0

주) 기타: 출생 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결과, <표 1>처럼 모두 5개 집단의 연령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전체 학생 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은 13세에서 15세까지였으며, 16세도 5%가 된다. 따라서 당시 시대상을 감안한다면, 연구 대상을 12세까지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으로 제한해 아동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협소한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4·3 시기 생존자들의 구술과 시대상황에 준거해서 아동의 연령을 15세 이하로 잡기로 했다. 이는 당시 정치적인 지형으로 볼 때 아동에 해당되는 나이이며, 구술생애사적 연구방법론으로 접근할 경우에도 4·3 시기 구술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의 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연구방법: 구술생애사적 접근

역사는 기억과 기록과의 싸움이다. 기록을 통해 재생된 역사는 후세의 해석을 통해

18) 현용준, 『한라산 오르듯이』, 각, 2003, p. 179. 참조.

19) 제주북초등학교 소장 자료.

재현된다. 기록에 이르지 못한 기억은 한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²⁰⁾

기록에 이르지 못한 대개의 기억은 공식역사에서 멀어진다. 구술생애사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직접 개인을 면접하고 생애사를 채록하고 그것을 공식역사의 장으로 불러낸다는 것이다. 기억은 역사를 대신해서 등장했다. 기억은 과거를 한편으로는 지나가버린 것으로 확정지으면서도 동시에 현재화함으로써 과거의 시간적 지위를 변화시킨다.²¹⁾

기억은 구술을 통해 재구성된다. 구술사는 ‘공식적 역사에 흔적이 없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목소리 없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특히 소수자, 노동자, 농민, 여성 등 피지배자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구술자의 삶을 재구성하는 구술생애사는 구전이나 구술 증언과 달리 한 개인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이며, 한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간접 경험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술 증언도 포함될 수 있다.²²⁾ 증언에 기초한 역사쓰기는 권력에 의해 배제되었던 민중의 소리를 담아낸다는 의미를 갖는다.²³⁾ 최근에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문헌사료 외에 다양한 방법론(새로운 문화사, 미시사, 일상사, 생활문화사, 심성사, 구술사)으로 여러 자료들을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²⁴⁾

기억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희미해지고 변형되기도 한다. 사람은 자신의 충격적인 기억에 따라 그 저장의 깊이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억압의 상황에서 기억은 오래 보존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외부 사회에 말할 수 없을 때 그 기억은 꿈에서라도 지속되기 때문이다.²⁵⁾

물론 ‘무장대’와 ‘토벌대’, 일반주민 모두가 4·3을 공포의 세월로 기억한다. 또한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과거의 신분에 따라 어떤 기억은 강조되고, 어떤 기억은 억압되고 있다.²⁶⁾ 기억은 나이에 따라 파편적으로 걸러진다. 그러나 개인의 기억은 한 사람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게 만든다.

한편 기억에는 비극과 희망의 근거, 공포와 희망이 다 같이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른 기억을 하기도 한다. 주관적 경험이 개입된 증언이나 생애사의 서술은 진실의 여부를 놓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시간성에 따른 기억의 소멸과 흔재된 수치나 날짜 등 불분명해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억은 어느 순간 단절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연속성을 가지면서 회복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어느 대목만 떠올리기도 한다.

20) 안경환, 「기억과 용서」, 『당대비평』 28권, 2004, p. 7.

21) 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pp. 43~44.

22)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p. 102.

23) 나간채, 「5·18항쟁의 기억과 증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p. 14.

24) 김동진, 「제주지역 사료수집·정리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제주지역 사료 수집·정리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3. 4. 29.), 국사편찬위원회, p. 19.

25)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06, p. 122.

26) 위의 책, p. 67.

유철인은 “구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증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종종 거짓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은 의미 있는 것”이며, “구술자가 믿고 있는 바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만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한다.²⁷⁾

윤택림은 인류학과 역사학에서 생애사를 이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인식론적 문제점이 있음을 들고 있다. 하나는 개인 삶의 대표성이고, 하나는 생애사의 주관성이라는 것이다. 생애사의 주관성이란 문제해결에는 “순수한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반시나(J.Vansina)는 모든 역사적 자료에는 처음부터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데, 기억과 구술사 연구는 바로 그것을 알려 준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²⁸⁾ 즉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자각행위에서부터 그 주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존자나 기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대한 이해는 4·3 과정에서 대량학살이나 다른 역사적 사건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또다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²⁹⁾

기억이란 것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함께 죽는다. 이제 학살의 기억은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아예 자신들의 생의 지평에서 그런 전쟁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다. 4·3체험자들도 후세대에게 그러한 내용을 반드시 전수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구술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우리가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변동과 사회적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개개인들이기에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이나 다른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의 중요한 부분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20세기는 대규모의 정치 폭력에 의하여 과거의 기억이 대규모로 소환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³¹⁾ 요네야마 리사(Yoneyama Risa)는 “그와 같은 기억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마치 자발적으로 시간이 전개되어 가는 것처럼 전제하는 ‘보편적 역사’ 서술에서는 결코 발견된 적이 없는 과거”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억은 어떻게 발 전해야 될 것인가.

“과거의 억압적 경험들은 그냥 묻혀지고 말 것이 아니다. 억압의 과거는 잊혀지거나 묻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자각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아픔을 씻어냄으로써 모두가 새로운 구성원으로 되어가는 과정(remembering)이 되어야 한다.”³²⁾ 묻혀진 역사의 복원을 위해 과거의 경험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27) 유철인, 「이 증언집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제주4·3연구소, 역사비평사, 2002, p. 8.

28)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p. 53.

29) 권귀숙, 앞의 책, p. 68.

30) 제임스 홉스, 유병용 옮김, 『증언사 입문』, 한울아카데미, 1995, p. 46.

31) 서경식·다카하시, 김경운 옮김,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삼인, 2002, p. 44.

32) 한인섭, 「한국에서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 -형사재심과 민사시효를 둘러싼 재심을 중심으로」, 『4·3심포지엄-한

4·3의 와중에 무고하게 학살된, 무차별 폭력의 희생자들의 역사는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동안 소수자가 겪은 개인의 경험은 공식역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3특별법과 정부의 공식사과 이후 4·3의 진실은 생존자들의 적극적인 구술을 통해서 복원되고 있다. 4·3 이후 개인들이 치르고 있는 사회적인 고통과 그것의 후유증은 개인의 기억과 경험 풀어내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구술을 재구성하는 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 구술사생애사적 접근을 활용한다.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상호 작용, 연구과정의 맥락이 연구방법에 모두 포함된다. 질적연구에는 현지조사(fieldwork), 문화기술지(ethnography), 민속학,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구술사, 생애사, 현상학, 텍스트분석(text analysis),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interview) 등이 있다.³³⁾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해 4·3 체험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술자가 살아온 삶의 과정, 4·3의 경험, 4·3에 대한 당시의 생각, 그리고 현재의 생각 등에 귀를 기울였다. 더욱 확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면접을 실시하였다.³⁴⁾ 이를 토대로 면담자의 주관적 관점과 내용을 재해석 하였다. 그러나 아동학살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생애사를 채록한다 해도 이 논문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내용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면접 대상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 진행했다. 그 하나는 나이에 구분 없이 4·3 시기 아동학살을 목격한 증언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학살터에서 살아남았거나 이후 후유장애의 삶을 살고 있는 아동 생존자들이었다. 이들은 기존 연구자료 및 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하기도 하였고, 현지에서 직접 물색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였으며, 일부 구술자의 경우 1998년의 채록도 포함됐다. 면담자들은 때에 따라서 부부가 함께 구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구술자들은 당시 북촌리, 가시리, 의귀리, 원동마을, 남읍리, 감산리 등 집단학살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모든 증언은 녹음을 원칙으로 했다.

아동학살을 목격하거나 체험한 면담자들은 모두 37명이었으며, 아동 생존자들의 경우 면담자는 4·3 당시 0세부터 14세까지의 체험자들로, 모두 24명이다.

일공동연구 자료집』(2006. 10. 13.), 제주4·3연구소 외, p. 9.

33)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p. 18.

34) 2차 면접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증언의 사실(fact) 규명 차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해 교차검토(Cross Check) 검증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표 2> 면접대상자 4·3 당시 직업별 분류

직업	농업	학생	무직(유아)	공무원	계
면담자수	19	8	9	1	37
비율 (%)	51.4	21.6	24.3	2.7	100

<표 2-1> 면접대상 아동 생존자들의 나이 분포

출생연도	1933	1934	1935	1936	1938	1939	1940	1941	1945	1946	1947	1949	합계
면담자수	1	4	1	2	1	2	5	1	1	1	4	1	24

이들을 나이별로 보면 1933년 생 1명, 1934년 생 4명, 1935년 생 1명, 1936년 생 2명, 1938년 생 1명, 1939년 생 2명, 1940년 생 5명, 1941~1946년 생 각 1명, 1947년 생 4명, 1949년 생 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17명, 여성 7명이다. 전체적으로 면접대상자들은 <표 2>처럼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부모따라 농삿일을 거들고 있었으며(51.4%), 학생(21.6%) 혹은 유아(24.3%)들이었다.



Ⅱ. 제주4·3 시기 아동학살의 실태

1. 제노사이드와 아동학살

20세기 들어서 인류는 제노사이드를 소름끼치는 범죄 행동으로 간주하였지만 그것을 중시하지 않았다. 20세기 제노사이드의 규모는 경이적이라 말할 수 있다.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6,000만 명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살해되었다.³⁵⁾

인간집단에 대한 대규모의 파괴는 수천 년 동안 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형태의 파괴를 표현하는 제노사이드 개념이 형성된 것은 6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개념은 유대계 출신의 폴란드인 변호사 라파엘 램킨(Raphael Lemkin)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인종(race)이나 종족(tribe)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to kill)을 의미하는 라틴어 ‘cide’로부터 이 개념을 도출하였다.³⁶⁾

홀로코스트의 공포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제외한 모든 친인척들의 학살을 목격한 램킨은 제노사이드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인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제노사이드를 정치사회적 제도, 문화, 언어, 자연적 감정, 종교, 경제적 생존 등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³⁷⁾ 제노사이드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을 의미하였고, 그것은 살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안전, 자유, 건강, 존엄의 파괴를 포함하였다.³⁸⁾

램킨의 노력으로 1948년 12월 유엔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이 채택됐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을 총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의도 속에서” 행해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제노사이드 범죄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① 집단 구성원의 살해, ② 집단구성원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유발, ③ 총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집단구성원의 신체적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삶의 조건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 ④ 집단의 출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요된 조치, ⑤ 집단의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에 강제 넘기는 행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제노사이드 범죄자의 범주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반인도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데는 성공하였지

35) Roger W. Smith, “Human destructiveness and politics: The twentieth century as an age of genocide,” Isidor Wallimann and Michael N.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0), p. 29.

36) Eric MarKusen, “Genocide and total war: A preliminary comparison,”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0), p. 100.

37) <http://news.bbc.co.uk/2/hi/europe/1701562.stm> (검색일: 2006년 8월 2일).

38) Kurt Jonassohn and Frank Chalk, “A typology of genocided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human rights agenda,” Isidor Wallimann & Michael N.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0), pp. 7~8.

만, 그 의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개념적 완결성과 제도적 장치를 충분하게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³⁹⁾

유엔의 제노사이드 정의는 의도성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 집단에 대한 학살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제노사이드 협약 이후 제노사이드의 정의를 확대해 정치적, 경제적 집단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⁴⁰⁾

제노사이드 협약 채택 이후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제노사이드 협약은 정치적, 사회적 집단을 배제했다, ② 정의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들 또는 그들의 문화적 독특성을 떠받치는 환경에 대한 행위는 배제한다, ③ 의도성 규명이 지극히 어렵다, ④ 유엔 회원국들은 르완다의 경우처럼 가입하기를 꺼린다, ⑤ 협약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국제법 기구가 없다, ⑥ ‘부분적으로’(in part)를 정의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제노사이드로 받아들여지는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다.⁴¹⁾

라파엘 램킨은 제노사이드를 “집단 자체를 절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민족 집단들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의 통합적 계획”으로 정의했다.⁴²⁾

쿠퍼(Leo Kuper)는 유엔의 제노사이드 협약이 정치단체들을 제외시킨 점에 주목하고 제노사이드를 “대량학살의 형태를 취하면서 공공연한 의도로 자행되는 집단에 대한 범죄”이며 “주로 정부의 범죄”라고 주장한다.⁴³⁾ 호로위츠(Irving L. Horowitz)는 “특정한 형태의 학살로서, 한 집단에 대해 국가가 인가한 절멸”⁴⁴⁾이라고 정의했으며, 대드리안(Vahakn Dadrian)은 “지배집단에 의한 근원적 소멸을 목적으로, 소수 집단의 숫자를 강제적 방법이나 치명적 폭력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⁴⁵⁾

한편,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지닌 여러가지 난점들을 피하기 위해 벤자민 발렌티노는 ‘대량학살’(mass kil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⁴⁶⁾ 그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정의로

39) 최호근, 「제노사이드 국제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본 4·3의 성격」, 제주4·3연구소·제노사이드연구회, 『제주 4·3 제58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06. 4. 1.) p. 76.

40) Isidor Wallimann·Dobko Wiski 편, 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각, 2004. p. 53.

41) <http://news.bbc.co.uk/2/hi/europe/1701562.stm> (검색일: 2006년 8월 20일).

42) 벤자민 발렌티노 지음, 장원석·허호준 역,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대출판부, 2006. p. 25.

43) Leo Kuper,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p. 96.

44) Irving Louis Horowitz, *Taking Lives: Genocide and State power*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1980), p. 1.

45) Eric Markusen, “Genocide and total war: A preliminary comparison,” Isidor Wallimann and Michael N.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0), p. 101.

46)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량학살’ 또는 ‘집단학살’을 의미하는 용어는 genocide이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연구의 국제조류를 보면, 용어사용을 매우 세분화하고 있다. genocide, mass murder, mass killing, mass slaughter, massacre, collective killing, holocaust, final solutions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용어 가운데 genocide는 이미 유엔의 제노사이드협약으로 널리 알려져, 대규모의 숫자가 학살됐을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중 holocaust는 유대인 대학살에 주로 사용되며, final solutions도 유대인 학살의 암호명으로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mass slaughter는 학살의 대상을 비인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4·3 시기 주한미군 정보보고서(G-2)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대량학살’을 표현하는 용어는 ‘mass killing’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는 20세기에 발생했던 소련과 중국, 캄보디아에서의 학살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희생자들의 집단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비전투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살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⁴⁷⁾ 발렌티노는 ‘대량학살’의 용어상의 희생자들은 비전투원이며,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집단(인종, 정치, 종교 등)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⁴⁸⁾

제노사이드의 틀 속에서 제주4·3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김영범은 “제노사이드의 배후에 거의 예외 없이 국가나 국가를 대행하는 권위체가 직접적인 실행자나 후원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점을 환기시키면서, 제주4·3은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국가 기구와 서북청년회 등의 우익단체가 학살의 실행자였기 때문에 단순한 양민학살이 아니라 정치적 학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⁹⁾

최호근은 1948년과 1949년 당시 국가 권력의 소재와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었던 고위 인사들의 동향, 군경과 일반 관료기구의 움직임 등을 종합하면, 학살이 중앙 국가 기구에 의해 결정·계획·통제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4·3은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긴 억압적 성격의 제노사이드(repressive genocide)였다고 평가한다.⁵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유엔의 제노사이드 협약과 관련해 “1948년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1948년 제주섬에서는 이런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⁵¹⁾

4·3 당시 학살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군 정보보고서조차 “9연대가 모든 저항세력을 없애기 위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게릴라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⁵²⁾

47) Benjamin A. Valentino,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9~10.

48) 벤자민 발렌티노는 ‘대량학살’의 정의를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① 의도성 ② 대규모라는 희생자 숫자 ③ 비전투원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기서 ‘대량학살’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5년을 전후한 시기에 걸쳐 적어도 5만여 명 이상의 의도적인 죽음으로 ‘단순하게’ 규정한다. 5만 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또한 2만~3만여 명의 학살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Benjamin A. Valentino,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10~15.

49) 김영범, 「집단학살과 집합지역-그 역사화를 위하여」, 『제주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집,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의 역사』, 1999, pp. 24~27.

50) 최호근, 앞의 자료집, 2006. 4. 1. p. 86.

51)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2003, p. 539.

5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 가운데는 어떤 이유로도 살인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없는 10세 이하, 61세 이상의 노인이 10% 이상이나 포함되어 있다.”⁵³⁾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일방적 학살이 이뤄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10-10의 참극’(전체 주민 가운데 희생자가 차지하는 비율 10%, 그 가운데 노약자가 차지하는 비율 10%)이 갖고 있는 비극적 의미는 학살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대다수의 제노사이드들과 다르다. 그것은 동족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는 점과 함께 학살자가 급증한 시점이 무장대의 저항이 증가했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양측간의 교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시기 이후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희생은 저항의 증가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강도와 비례했다. 이 점은 4:3이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승만 정권이 도모한 국내평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 ‘의도된 희생’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⁵⁴⁾

여기서 제노사이드가 갖는 의미는 아동학살에 무게를 더 실어줄 수 있다. 아동학살은 제노사이드 협약이 규정한 집단의 출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요된 조치, 집단의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에게 강제로 넘기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령 토벌대는 출산을 저지하기 위해 임신부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으며, 어린이들을 강제로 끌어내 학살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⁵⁵⁾고 말하였다. 이승만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고 지시한 발언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가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의도적인 학살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4:3 시기 집단학살은 무고한 주민들의 죽음과 함께 아동에 대한 술한 학살을 가져왔다. 따라서 아동학살 역시 제노사이드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무고한 집단학살의 한가운데서 이뤄진 것이다.

아동학살의 무차별성은 제주4:3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국군 제11사단이 무고한 민간인을 순식간에 집단학살한 뒤 공비토벌 전과로 보고한 산청, 함양, 거창 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의 곳곳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사건들의 와중에 아동에 대한 학살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발생한 거창사건의 경우를 보면, 공비로 몰려 학살당한 주민 719명(남 331, 여 388) 중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359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

53)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373.

54)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 제주4:3과 한국 현대사」, 역사문제연구소 외(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p. 447~448.

55) 국무회의록. 1949. 1. 21.

다.⁵⁶⁾ 이를 상세히 분석하면, 3세 이하가 100명, 4~10세가 191명, 11~14세가 68명이었다. 다른 한 통계는 총 752명 중 3세 이하가 무려 119명이었고, 14세까지의 어린이는 259명, 60세에서 92세까지의 노인은 70명이라고 주장한다.⁵⁷⁾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3세 이하'의 어린이 100명을 포함, 10세 이하의 어린이 291명이 공산주의자들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집단학살 당한 것이다.⁵⁸⁾

1949년 12월 24일 국군 제2사단 25연대 3대대 7중대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의 경우 총 86명의 피학살자 중 유족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자가 41명, 초등학생을 포함한 15세 미만이 26명(3세미만 11명), 65세 이상 노인이 13명이었다.⁵⁹⁾ 산청과 함양 지역의 경우 14세 이하의 사망자가 마을에 따라 15%에서 51%에 이른다.⁶⁰⁾

전쟁에서의 잔혹함은 권력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권력 장악의 과정에서 불평분자를 모두 죽여 버리면, 소수의 패배자들은 처참한 빈곤에 빠져 감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의 목격자나 주민들도 공포감 때문에 감히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간이나 학살 후 불에 태워 죽이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들을 완전히 없애서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가 다시는 대항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감히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것은 단지 군인들이 전쟁의 현장에서 갖게 되는 감정적인 보복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학살의 정치학'이다.⁶¹⁾

지난 20세기 제노사이드적 사건들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한반도 곳곳에서도 일어났으며, 비슷한 유형의 학살사건들은 터키의 아르메니아인이 사는 마을, 일본 점령하의 중국,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르완다 등 세계 도처에서 벌어졌다.⁶²⁾

20세기 대량학살의 시기를 지나온 21세기에 세계의 다른 곳, 지구촌 곳곳에서는 분쟁으로 인한 처참한 학살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수백만 아동에게 전쟁은 일상적인 현실이다. 무력충돌은 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우연히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을 보복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전쟁의) 목격자일 뿐 아니라 바로 표적물이 되곤 한다. 어떤 아이들은 민간인을 향한 폭격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의도적인 집단 살해의 희생자가 된다. 또다른 아이들은 성폭력, 또는 기아, 질병 등 무력충돌로 인한 복합적인 박탈로 인해 고통당한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전투원으로 착취당하기도

56) 노민영·강희정 편, 『거창양민학살-그 잊혀진 피울음』, 온누리, 1988, p. 151.

57) 향도일보, 1989. 1. 25.,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p. 339. 재인용.

58) 박명립, 앞의 책, p. 339.

59)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pp. 29~37 참조.

60) 산청, 함양사건 양민회생자 유족회, 「산청 함양사건 관련자료」, 1999, p. 6.

61)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p. 259.

62) 허호준, 「제주4·3항쟁과 제노사이드」, 『4·3과 역사』, 각, 2004, p. 210.

한다. 현재 세계 30여 개국의 분쟁 지역에는 18세 미만의 아동 30만 명 이상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⁶³⁾

최근 수십 년 동안 무력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했다.⁶⁴⁾ 이러한 전쟁, 내란, 기아 등 충돌의 와중에서 세계의 아동들은 최대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

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충돌과 인권 침해로 강제 이주 당해 인근 국가에서 피난민으로 살아가거나, 국가 내 다른 지역에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희생됐고, 최소한 6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장애인이 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8,000~1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뢰 폭발로 죽거나 불구가 된다.⁶⁵⁾ 2006년 7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레바논 민간인 400명 가운데 200여 명도 어린아이들이었다.⁶⁶⁾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시에라리온의 경우 반란군의 80%가 18세 미만의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다.⁶⁷⁾ 수많은 아동들이 전쟁의 위험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1994년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르완다에서는 30만 명의 어린이가 희생됐으며, 9만 5천여 명은 고아가 되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도록 무력충돌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4만 2천여 명이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삶을 영위하고 있다.⁶⁸⁾

아동은 엄연히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국제인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있다.

1959년 11월 20일 유엔 제14차 총회에서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 여덟째 조항으로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와 그들의 특유한 권리 보장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생겨난 것이다.⁶⁹⁾ 이후 이 협약은 1990년 국제법으로 공포되었고, 2005년 192개 나라가 협약을 비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였다. 이 협약은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제39조는 “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 학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의 권리는 많은 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

63) Graca Machel. 유니세프.

64) 보스니아 내전(1991~1995) 인구 440만 명중 사망 25만 명, 난민 230만 명 발생. 르완다 내전(1994~1996) 인구 770만 명 중 95만 명 사망, 난민 200만 명. 수단 다르푸르(2003) 인구 630만 명중 사망 20만 명, 난민 200만 명 발생. 한겨레, 2006년 9월 6일자.

65) http://www.unicef.org/protection/index_armedconflict.html(검색일 2006년 9월 1일).

66) 한겨레신문 2006. 7. 28.

67) <http://www.sc.or.kr>(검색일 2006년 9월 20일).

68)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rwanda_genocide.html(검색일 2006년 5월 20일).

69) <http://www.ohchr.org/english/law/pdf/crc.pdf>(검색일 2006년 3월 20일).

다. 현 시대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세계의 학살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2. 아동학살의 실태

여기서는 먼저 4·3 시기 아동학살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살의 문제를 분석한다. 아동학살의 유형 분석도 그러한 이론적 틀을 이용해서 이뤄졌다. 우선 4·3 시기에 행해진 아동학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신고된 전체 희생자에 대한 통계표를 활용, 다시 새로운 통계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술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아동학살의 유형을 분류 제시하였다.

희생자 실태를 위한 분석으로는 제주4·3실무위원회 및 제주4·3위원회의 2001년 5월 30일 현재 희생자신고 접수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희생자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참조하기 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가 된 1995년 제주도의회의 신고 자료도 선택해 분석했다. 희생자 수는 접수기관별 차이도 보인다.

이러한 양적 자료는 본 논문에서 생존자들의 구술자료를 채록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희생자 유형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희생자 통계가 가진 한계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희생된 영아들, 행방불명 혹은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경우, 아직까지 당사자나 유족 가운데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웃의 신고 등 간접 체험자들의 신고도 따르면서 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신고자가 달라 이중신고한 경우도 일부 있으며, 이명(異名)을 쓰기도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1995년의 제주도의회 1차 증언자들 가운데는 작고한 이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 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따라서 희생자의 사망 연월일, 나이, 희생 유형 등에도 어느 정도 오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통해 드러난 산출만으로도 전반적인 아동학살의 양상을 살피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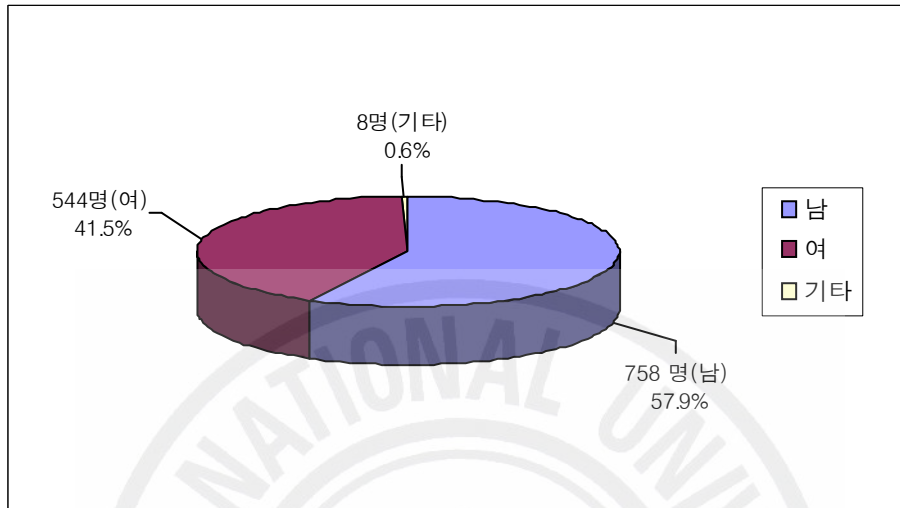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3세 이하 젖먹이들까지 잔혹하게 학살했으며, 어떠한 통계보다 학살의 잔혹함과 학살의 규모를 시사한다.

신고자료의 분석 결과, 4·3 시기 15세 이하 아동 희생자는 모두 1,310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고된 전체 희생자 14,028명의 9.4%에 달하는 규모이다.⁷⁰⁾ 아동 희생자를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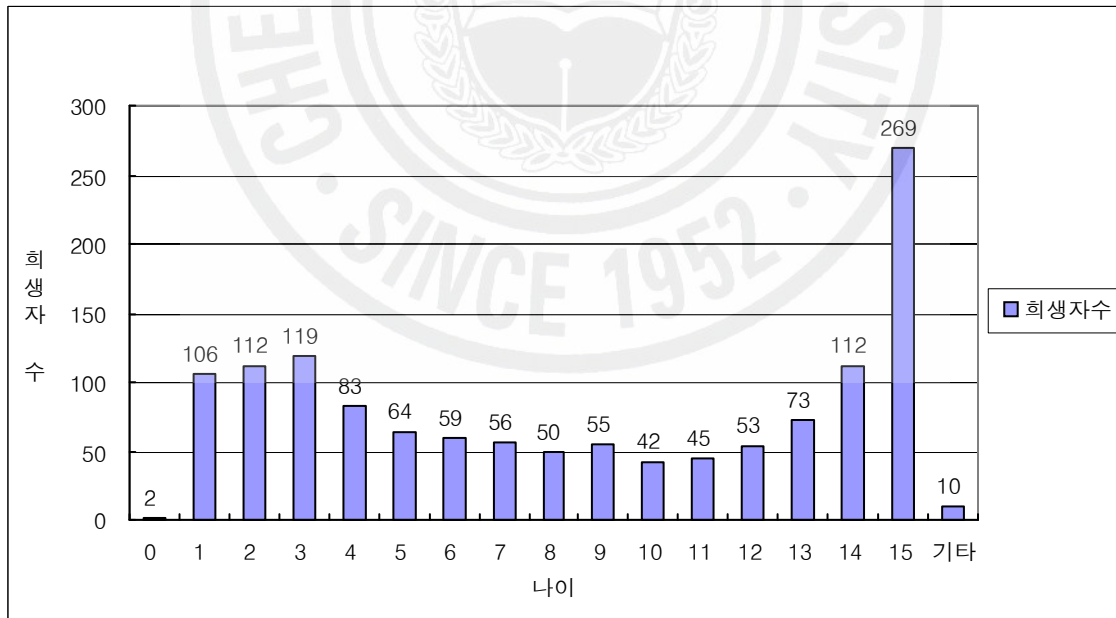
70) 2006년 11월 현재 제주4·3실무위원회 및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모두 14,373명(남 11,280명, 여 3,093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 10,663명(74.2%), 행방불명 3,534명(24.6%), 후유장애자 176명(1.3%)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는 813명(5.8%)이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아직 미공개자료이며 통계 차이가 오차 범위내임을 감안, 『진상조사보고서』의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로 보면, 남자가 758명(57.9%), 여자가 544명(41.5%)으로 남자 아동이 214명(16.4%)이나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

<그림 1> 15세 이하 성별 아동 희생자 수 (14,028명 기준)



<그림 2> 나이에 따른 아동 희생자 수



이를 세분하면, 3세까지의 영아가 339명(25.9%), 4~6세가 206명(15.7%), 7~9세가 161명(12.3%), 10~12세 140명(10.7%), 13~15세 454명(34.7%)으로, 13세 이상 소년기 아동이 가장 많은 희생을 보이고 있으며, 3세 이하 영아의 희생이 다음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드러나듯 나이별로는 3세의 경우 119명(9.1%), 2세가 112명(8.5%), 1세가 106명(8.1%)으로, 영아 가운데서도 세 살배기 아이들의 희생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세가 269명(20.5%), 14세 112명(8.5%)으로 나타나 소년기 아동의 피해가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혹은 부모와 함께 피신해 있다가 희생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적인 학살도 있으나 기아로 혹은 방치되어서 희생된 유아도 많으리라는 점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년기 아동의 경우는 성인으로 취급되어 무장대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⁷¹⁾

다음은 아동학살이 가장 많이 자행되었던 시기를 분석해 보았다.

<표 3> 아동 희생자 월별 분석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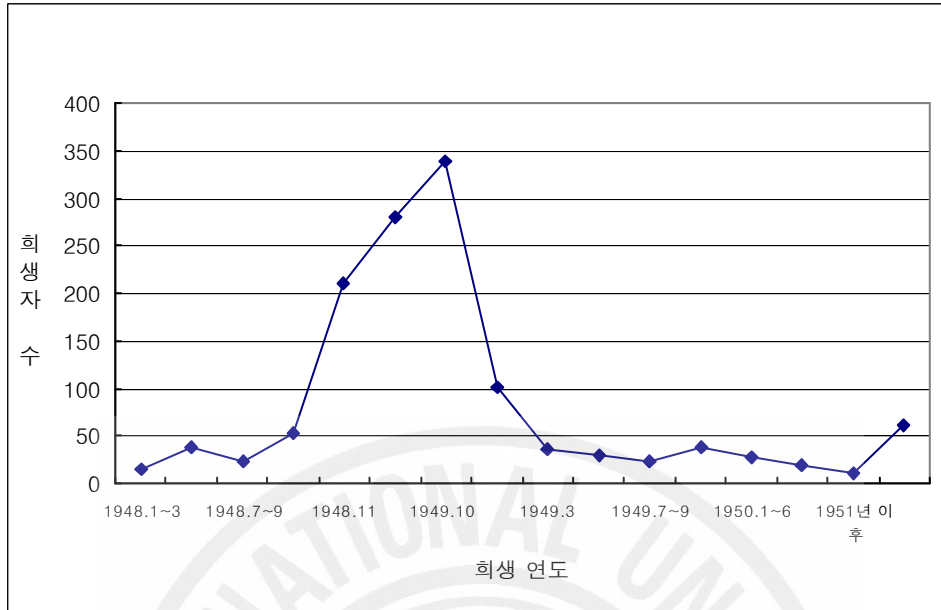
시기(연월)	희생자 수(명)
1948.4.~6.	38
1948.7.~9.	23
1948.10.	52
1948.11.	211
1948.12.	280
1949.1.	338
1949.2.	101
1949.3.	35
1949.4.~6.	29
1949.7.~9.	23
1949.10.~12.	37
1950.1.~6.	27
1950.7.~12.	18
1951 이후	11
기타	58
합계	1,310

주) 기타: 희생 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71) 1995년 제주도의회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생자 수는 제주4·3위원회의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1차로 신고된 10,581명 가운데 만 15세 이하 아동 희생자를 분석한 결과 1,408명 (13.2%)이었다. 이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 927명(65.8%), 여자 460명(32.7%)이었다. 남자가 467명이나 더 많았다. 신고 기관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아동 희생자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72) 1947년은 3·1사건 외엔 사망 사건이 없었으며, 1948년 4월 3일 이전엔 1948년 3월 발생한 고문치사사건 외엔 사망 사건이 없었다. 따라서 194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통계는 희생자 신고때 1947년과 1948년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한 채 신고했기 때문이다. 신고자들의 신고 시기 혼란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통계에는 포함돼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3> 아동 희생자 월별 분석



<표 3>과 <그림 3>의 전체 시기별, 월별 희생자 수를 보면 가장 많은 희생을 가져 온 시기는 1949년 1월 338명(25.8%), 1948년 12월 280명(21.4%), 1948년 11월 211명(16.1%), 1949년 2월 101명(7.7%), 1948년 10월 52명(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시기는 1949년 1월과 1948년 12월이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48년도의 경우 618명(47.2%), 1949년도 563명(43%)이 희생됐다.

이러한 집단 학살은 특히 계엄령이 선포된 1948년 11월 17일부터 계엄령이 해제된 1948년 12월 31일까지 무차별 학살이 두드러지지만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대대적인 집단학살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별 희생자 실태를 분석하면, 집중적인 학살이 이뤄진 시기는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이지만 1948년 10월에도 52명의 희생자가 나타나 이때부터 학살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희생자 실태는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신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는 1948년 53.1%, 1949년 34.2%로 나타난다.

1948년 4월부터 1949년 6월까지의 희생 신고자는 10,761명인데, 이 가운데 83%인 8,894명이 1948년 10월부터 1949년 2월까지 5개월에 집중됐다.⁷³⁾ 따라서 아동학살의 규모와 그 맥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73) 위의 보고서, p. 373.

3. 마을별 피해 실태와 그 사례

1) 마을별 아동 희생자 실태

4·3 시기 아동 희생이 가장 많았던 곳을 당시의 읍면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제주읍이 36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조천면 221명, 구좌면 113명, 표선면 112명, 남원면 103명, 안덕면 102명, 애월면 95명, 중문면 64명, 한림면 52명, 성산면 33명, 서귀면 26명, 대정면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아동의 희생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사망이 1,119명(85.4%)이며, 행방불명이 147명(11%), 후유장애가 36명(3%), 기타 8명(1%)으로, 대부분 사망과 행방불명(1,266명, 97%)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00명 이상이 희생된 마을 45곳을 대상으로 아동 희생자를 추출해본 결과이다. 이들 전체 희생자 수는 8,526명인데, 이 가운데 아동 희생자 수는 922명으로 1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마을별 아동 희생자 수(100명 이상 희생 마을)

마을	희생자 수(명)	전체 희생자 수(명)	비율(%)
합 계	922	8,526	10.8
북촌리	85	462	18.4
가시리	82	419	19.6
노형리	73	512	14.3
이호리	50	368	13.6
의귀리	44	255	17.3
동광리	41	205	20.0
봉개리	33	250	13.2
하도리	31	165	18.8
삼양리	30	236	12.7
도련리	30	180	16.7
신촌리	27	220	12.3
동북리	22	138	15.9
도두리	22	264	8.3
대흘리	20	125	16.0
조천리	19	219	8.7
함덕리	19	268	7.1
수망리	17	104	16.3
토산리	16	172	9.3
강정리	16	197	8.1
하귀리	14	259	5.4

행원리	13	115	11.3
오라리	13	247	5.3
회천리	12	117	10.3
영평리	12	112	10.7
와흘리	12	101	11.9
중문리	12	108	11.1
아라리	11	197	5.6
용강리	11	145	7.6
난산리	11	102	10.8
도평리	11	151	7.3
수산리	10	125	8.0
금덕리	10	114	8.8
서흥리	10	140	7.1
광령리	10	168	6.0
청수리	9	100	9.0
한남리	9	109	8.3
저지리	8	116	6.9
연동리	8	107	7.5
선흘리	8	208	3.8
화북리	7	297	2.4
신흥리	6	102	5.9
어도리	6	132	4.5
명월리	5	141	3.5
금악리	4	147	2.7
종달리	3	107	2.8

주) 비율은 마을 전체 희생자에 대한 아동 희생자의 비율임.

<표 4>에서 보듯 가장 많은 아동 희생자를 낸 마을은 조천면 북촌리로 85명이었다. 이는 이 마을 전체 희생자 수의 18.4%에 해당된다. 다음이 표선면 가시리 82명(마을 희생자의 19.3%), 제주읍 노형리 73명(마을 희생자의 14.4%)이었다. 또한 제주읍 이호리 50명, 남원면 의귀리 44명, 안덕면 동광리 41명 순으로 아동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논문에서 구술채록 대상지로 정한 제주읍, 조천면 북촌리, 표선면 가시리, 안덕면 동광리, 구좌읍 하도리, 남원면 의귀리 등의 아동 희생자 비율은 13.3~20%에 달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산간 지역인 조천면 교래리의 경우다. 교래리의 아동 희생자 수는 15명이었으나 이는 전체 마을 희생자(53명)의 가장 높은 비율인 30.1%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 비율이 높은 마을은 안덕면 동광리로 20%에 달했다. 또 마을 전체 희생자 수와 비례해서 10% 이상 희생된 마을을 보면 제주읍 봉개리, 구좌면 하도리, 제주읍 삼양리, 조천면 신촌리, 제주읍 도련리 순으

로 나타나 주로 제주읍과 북제주 동부지역의 희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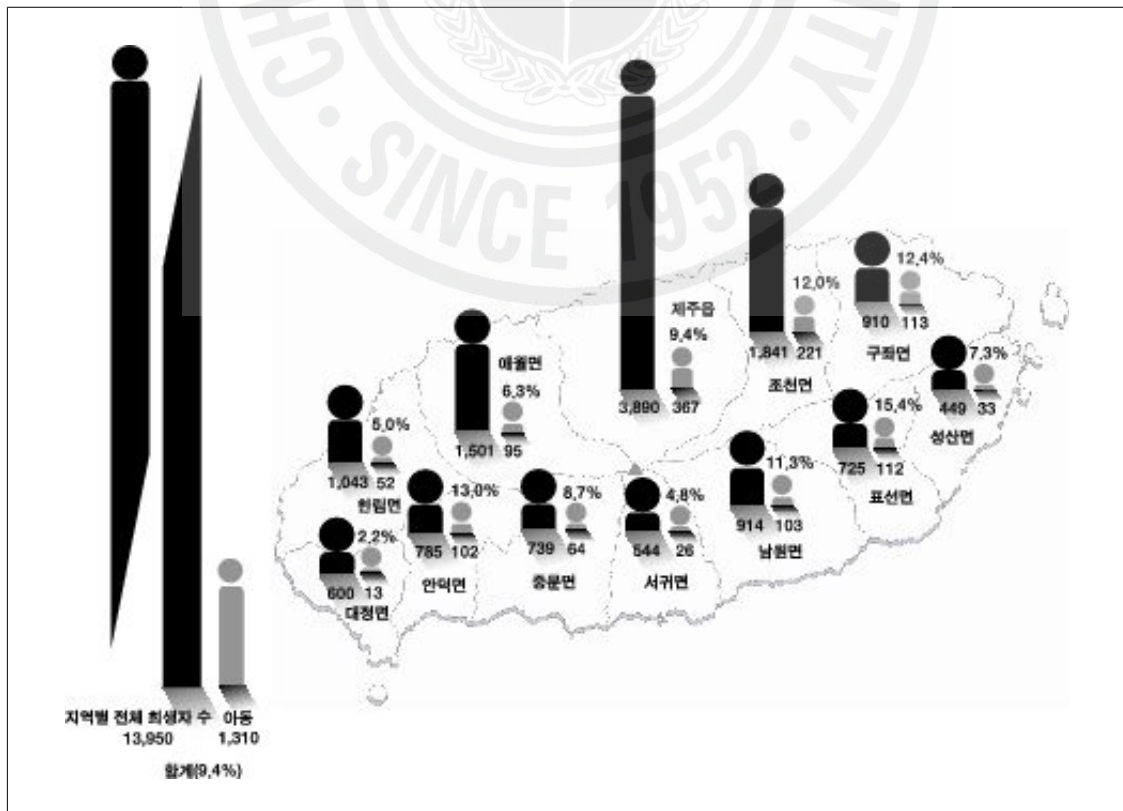
북촌리와 가시리에서 이처럼 아동들이 많이 학살된 원인은 초토화작전에서 찾을 수 있다.

<표 5> 지역별 전체 희생자 수와 아동 희생자 수

지역	아동 희생자 수	전체 희생자 수	비율(%)
구좌면	113	910	12.4
남원면	103	914	11.3
대정면	13	600	2.2
서귀면	26	544	4.8
성산면	33	449	7.3
안덕면	102	785	13.0
애월면	95	1,501	6.3
제주읍	367	3,890	9.4
조천면	221	1,841	12.0
중문면	64	739	8.7
표선면	112	725	15.4
한림면	52	1,043	5.0

※ 기타(미상)는 9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지역별 아동 희생자 수



통계를 보면 초토화작전 시기 중산간 마을에 집중되어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11월 중순계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했다. 토벌대는 중산간 마을 방화에 앞서 주민들에게 소개령(疎開令)을 내려 해변마을로 내려오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는 소개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혹은 채 전달되기 전에 토벌대가 들이닥쳐 방화와 함께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남녀노소 구별없이 집단희생을 당했다.⁷⁴⁾

일례로 1948년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제주도내 중산간 마을은 군경 토벌대에 의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소위 집단학살-방화-소개로 이어지는 군경 토벌작전으로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되었던 것이다.

1948년 11월 13일 토벌대가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 가운데 하나인 조천면 교래리를 포위하면서 시작된 초토화작전은 엄청난 인명과 피해를 낳았다. 이 곳에서는 14세의 소녀가 대검에 찔려 숨지기도 했고, “살려주세요.”하면서 어머니에게 달려드는 아홉 살 난 아들을 총살하고 세 살 난 딸까지 총상을 입히는 등⁷⁵⁾ 무차별 학살이 자행됐다.

베트남의 ‘밀라이(my lai)학살’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초토화 작전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이 중산간 곳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제주의 참사는 동일한 민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집단을 파괴하는 방법 면에서 원거리 강제 이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인 학살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럴 때 이 희생자 비율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마을 집단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조천면 북촌리와 표선면 가시리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2) 북촌리, 가시리의 사례

해안마을인 조천면 북촌리는 토벌대의 무차별 집단학살로 400명 이상이 희생됐으며, 이것은 한 마을 전체를 물리적으로 파괴시킨 대표적인 경우로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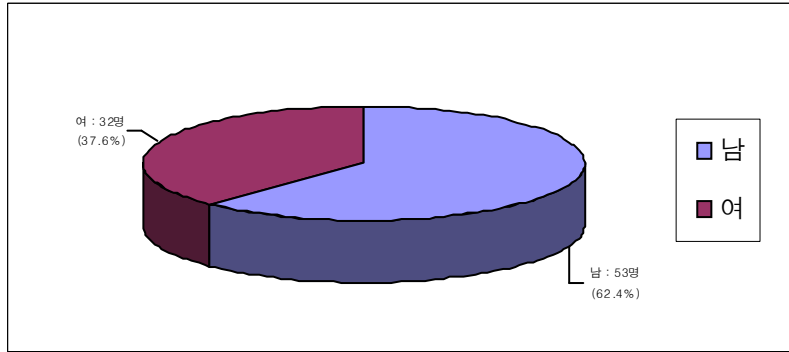
북촌리 아동 희생자를 보면 <그림 5>가 보여주듯 총 462명의 전체 희생자 가운데 15세 이하 아동 85명(18.4%)이 희생됐음을 알 수 있다. 남자가 53명(62.4%)로, 여자 32명(37.6%)보다 21명(24.8%)이 더 많았다. 이는 4·3 시기 전체 아동 희생자 실태조사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214명(16.3%)이나 많은 희생을 가져온 비율과 거의 같은 결과였다.

그런데 4·3 당시(1948년) 북촌리의 전체 가구 수는 321가구이며, 주민 수는 모두 1,661명이었다. 또한 북촌리 학살은 전적으로 토벌대에 의해 이뤄졌다.

74)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378.

75) 위의 보고서, p. 379.

<그림 5> 북촌리 아동 희생자 수(85명)



<표 6> 북촌리 아동 희생자의 나이별 분포

나이(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계
희생자 수(명)	4	9	8	5	13	4	10	5	5	6	5	6	2	1	2	85
비율(%)	4.7	10.6	9.4	5.9	15.3	4.7	11.8	5.9	5.9	7.1	5.9	7.1	2.4	1.2	2.4	100

<표 6>에서 보듯 10세 이하 아동 희생자가 69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⁶⁾ 이 가운데 3세까지의 영아 희생은 21명이며, 4~6세는 22명, 7~9세는 20명, 11~13세 13명, 13~15세 5명이었다.

북촌리는 2005년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이다.⁷⁷⁾ 제주도의회 신고 자료와 제주4·3위원회 신고 자료, 이중신고를 제외한 2005년 미신고 4·3사건 희생자실태 표본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희생자 중복 신고 등을 대조 분석한 결과, 15세 이하의 어린이 희생자는 103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수조사로 나타난 북촌리 전체 희생자(422명)의 24.4%를 차지한다. 제주4·3위원회 신고 자료로 파악한 85명에 비해 6%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신고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아동학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전체 희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촌리의 아동학살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북촌리 주민들의 아동학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량학살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토벌대의 대대적인 학살은 초도화작전 시기 집중되었다. 북촌리의 경우는 계엄이 해제된 시기인 1949년 1월 17일에 일어났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의도적인 학살, 보복

76) 참고로, 북촌리 15세 이하 아동 희생자의 경우, 접수기관별로 희생자 수에 대한 통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과 1998년 제주도의회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101명, 북촌리 마을 원로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로는 71명이었다.

77) 제주도·제주4·3연구소, 『미신고 4·3사건 희생자 실태 표본조사보고서(북촌·도두)』, 2005.

학살의 전형적인 성격을 띠는 것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왜 정부의 계엄령이 해제된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대학살이 이뤄졌는가.

그것은 초토화작전을 수행한 제9연대와 2연대의 교체가 이뤄진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 무장대는 12월 19일 신엄리 습격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같은 토벌대와 무장대의 치열한 교전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잇따랐다. 제2연대도 9연대의 초토화작전을 인계받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503명을 사살하고, 176명을 체포하였다. 정부는 1948년 12월 31일 무장대 주력이 대부분 섬멸된 것으로 보고 계엄령을 해제했다. 그런데 무장대가 그 직후인 1949년 1월 1일 제주읍 오등리 주둔 3대대를 급습했다. 제2연대는 제주도의 계엄령을 지속시켜줄 것을 사령부에 건의하였다.

내무장관 신성모는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무장폭도는 150~400명이고, 비무장 폭도는 500명 가량으로 군의 1개 연대 또는 경찰 1천여 명이 증원되면 2개월 이내에 소탕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북촌리 대학살은 바로 이날 일어났다. 토벌대는 무장대로부터 기습을 당한 후 곧바로 주민들을 무장대와 내통했다고 몰아붙여 무고한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것이다.⁷⁸⁾

사건의 발단은 사건 당일 북촌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구좌면 세화리 주둔 제2연대 3대대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당황한 마을 원로들은 숙의 끝에 군인 시신을 들것에 담아 대대본부로 찾아갔다. 흥분한 군인들은 본부에 찾아간 10명의 노인 가운데 경찰가족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총살했다.

곧이어 2개 소대 쫓겨오는 병력이 북촌리를 덮쳤다. 군인들은 모든 가옥에 불을 붙이면서 주민들을 북촌국민학교에 집결시켰다. 400여 채의 가옥들이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인 1,000명 가량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군인들은 군경가족을 나오도록 해서 운동장 서쪽 편으로 따로 분리시켜 나갔다.

어린 학생들까지 일으켜 세워 ‘빨갱이 가족’을 찾아내라고 들볶던 군인들은 이 일이 여의치 않자 학교 인근 밭에서 사살하기 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은 이날 희생된 주민들은 남녀노소 약 300명에 이른다고 증언한다.

군인들은 “내일 아침까지 대대본부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남기고 돌아갔다. 살아남은

78) 당시 경찰로서 토벌군 대대장 차량 운전수로 차출됐던 김병석의 증언에는 “그때 ‘돌담 위에서 박격포를 쏘아 몰살시켜 버리자’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장교가 ‘군에 들어온 후에도 적을 살상해 보지 못한 군인들이 있으니까 1개 부대에서 몇 명씩 끌고나가 총살을 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해 결국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그런데 저기 끌려나가는 노인, 부녀자, 어린아이들은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나도 살려주고 싶지만 그러면 저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집들을 불태워버린 상태에서 그들을 수용할 대책이 없어 죽였으며, 군인 개개인에게 총살의 경험을 주기 위해 박격포 대신 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제주 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p. 414~415.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미 학살극을 치렀으니 더 이상의 희생은 없을 거라는 사람들과 군인들의 행태로 보아 또다시 총살할 게 분명하다는 사람들로 의견이 나뉘었다. 그런데 산으로 피한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군인들의 명령에 따라 대대본부로 갔던 주민들 가운데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빨갱이 가족 색출작전’에 휘말려 총살됐다.⁷⁹⁾

“우리 두 살난 아기가 북촌 학살 일주일 전에 아관 죽었주. 난리통에 어떻힐 수가 어선. 북교학교 운동장에서 어느 어멍 피가 팔락팔락 쏟아지는데 세 살배기 아이가 젖인 줄 알고 빨아먹는 것도 봤주. 지금도 그 시절 생각하면 아뜩허여. 떠올리기도 싫어. 징그러완.”⁸⁰⁾

당시 북촌대학살을 경험한 북촌 출신 주민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치참한 장면을 연상하는 것조차 끔찍해 한다. 북촌 대학살을 실제 취재를 바탕으로 쓴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에는 아래와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극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 소설은 공산폭동론이라는 공식기억에 맞서는 제주민중의 대항기억을 한껏 부각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⁸¹⁾

“교문 밖에 맞바로 잇닿은 일주도로에 내몰린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군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할머니들, 총부리에 등을 찔려 앞으로 곤두박질치는 아낙네들, 군인들은 총구로 찌르고 개머리판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그때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 허는 말을 들으란, 군인들이 일주도로로 뚫어놓은 밭에다가 사름들을 밀어붙이는데, 사름마다 밭이 안 들어가젠 밭담 우에 엮디어전 이마뺨을 쪼사 피를 찰찰 흘리며 살려달렌 하던 모양입니다.”⁸²⁾

사건 당일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끌려나온 아동들의 경우는 주로 어머니 혹은 할머니와 함께였다. 아이들은 이들과 함께 학살되었다. 이날 학살은 수많은 가문의 멸족을 가져왔다.

“갑장들 그때 돌아가신 분 많지요. 완전히 대가 끊어진 집안은 친족들이 제사를 하지요. 정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남의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6학년까지 해봐야 50~60명밖에, 5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오전 오후로 아이들이 나갔으니까. 한 300명 이상이 안됐을까 싶어요. 많은 아이들이 여기저기로 떠나버렸으니까요.”⁸³⁾

7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pp. 405~408 참조.

80) 홍 순 (1918년 생, 제주시), 2006. 7. 14. 채록.

81) 김동운, 「4·3의 기억과 소설적 재현의 방식」,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p. 89.

82)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사, 1979, pp. 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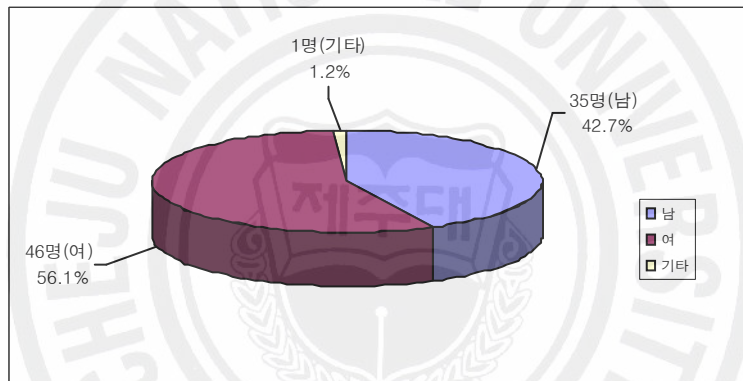
83) 고운진 (1940년 생, 북촌리) 2006. 8. 31. 채록.

이로 인해 북촌국민학교⁸⁴⁾는 1949년 2월 10일 폐교됐다. 당시 재학생 200여 명 가운데 졸업 2개월을 앞둔 6학년 재학생 60여 명은 졸업을 할 수 없었다. 70여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해 졸업했으며, 150여 명은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또 신고 자료로 보면 재학생 10명 정도가 희생당했다. 북촌리 대학살은 4·3비극의 상징이며, 보복학살의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도피자가족 등 특정한 대상에게 보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습받은 지역의 주민 전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⁸⁵⁾ 북촌리의 사례를 통해 4·3 시기 집단학살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얼마나 집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북촌리에 이어 많은 아동의 희생을 가져온 표선면 가시리의 사례이다. 가시리의 아동 희생자 수는 북촌리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가시리 아동 희생자 수(82명)



<그림 6>에서 드러나듯 표선면 가시리의 경우, 모두 82명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을 주민 희생자(419명) 수와 비율로 따지면 19.6%에 달하는 규모이다. 아동 희생자는 여아 46명(56.1%), 남아 35명(42.7%)으로 여아의 희생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7> 가시리 아동 희생자의 나이별 분포

나이(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계
희생자 수 (명)	6	5	14	6	3	3	6	3	1	4	1	8	5	6	11	82
비율(%)	7.3	6.1	17.1	7.3	3.7	3.7	7.3	3.7	1.2	4.9	1.2	9.8	6.1	7.3	13.4	100

84) 이 학교는 마을주민들이 조천공립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1944년 4월 1일 개교한 이래, 1945년 9월 1일 북촌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고 1949년 2월 10일 폐교되었다가 1953년 4월 9일에야 북촌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1996년 3월 1일 북촌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북촌교총동창회, 『북촌교 60년사』, 2003, pp. 16~17.

85)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413.

이를 나이별로 보면 3세까지의 영아가 25명(31%)으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했으며, 4~6세까지 12명(14.6%), 7~9세 10명(12.1%), 10~12세 13명(15.9%), 13~15세 21명(25.6%)으로 드러난다.

가시리는 1946년에 350여 호에 1,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9년 4·3 폐허로 복구 당시 80세대, 인구 360여 명에 불과했다. 가시국민학교는 설립 20개월 만에 잿더미로 변한 채 폐교됐다.⁸⁶⁾

가시리는 1948년 11월 15일 새벽, 무장대의 근거지라고 판단한 토벌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갑자기 군인들이 ‘안좌동’부터 덮쳤다. 이날 희생된 30명의 성별과 나이는 당시의 처참함을 대변해 준다. 급히 피신하지 못해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된 것이다.

60대 노부부인 안만규·김인하는 손녀(3살)와 손자(1살)를 데리고 급히 냇가로 피신했다. 굴을 찾아 몸을 숨겼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새나가고 말았다. 진압군은 굴 속으로 수류탄을 던졌고 이들 가족은 운명을 같이했다. 또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인 11월 22일 경 “해변마을 표선리로 소개하라.”는 말이 전해졌으나 하산 기회를 놓친 주민들은 들녁을 헤매다 수색전에 걸려 총살당했다. 12월 22일에는 표선리로 소개한 주민들이 수용돼 있던 표선국민학교에서 소개민들을 집결시킨 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가 가족이라고 몰아붙여 숙청 ‘버들못’ 위쪽 밭으로 76명을 끌고가 한꺼번에 집단총살했다.⁸⁷⁾

당시 안인순의 열두 살 여동생은 작은 아버지 집에 아기를 돌봐주러 갔다가 처음 희생됐다. 그 여동생은 한 살짜리 아기를 업은 채 살해당했다. 그것은 안인순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는 또다른 도망치는 아이를 총으로 쏘아 학살하는 장면도 목격하였다.

“우리 동생은 가시리 초등학교 맹기단 학풍 설리분 생이라. 한 살짜리 업은 채 죽어 쉽다. 양말도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어지고...토벌대가 가민 숨고 갈팡질팡. 대왓에 강 숨고. 조용해 지민 밥도 해먹고. 아버지 삼남매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이생이오름 오 단 보난 지천 열다섯 살 아이가 도망가난 총으로 쏘아부런. 시체 같은 것도 드러쌍 놔부런.”⁸⁸⁾

가시리는 ‘산’과 거리가 가까운 마을이다. 여느 중산간 마을처럼 일부 청년들은 입산해 무장대가 되기도 했다.⁸⁹⁾ 중산간 마을은 토벌대의 가장 가까운 표적이었다. 가시리 아이들 중에는 소개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도망 다니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희생당한

86) 가시리마을회, 『가스름』, 1988, p. 100.

87)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p. 398~399.

88) 안인순, 위와 같음.

8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전예원, 1998, p. 95.

사례도 많다.

가시리의 경우, 가장 많은 아동학살이 이뤄진 시기는 1948년 12월(34명), 1948년 11월(22명), 1949년 1월(12명), 1949년 2월(13명) 순이었다. 희생 유형별로 보면 토벌대에 의한 사망이 75명, 무장대에 의한 사망이 2명, 행방불명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제주4·3 시기 아동학살의 유형과 특징

1. 아동학살의 유형

이 장에서는 개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4·3 시기 아동학살의 기억과 그 이후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기억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미를 찾아보았다. 아동학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무차별 학살의 규모를 알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희생유형의 사례를 찾아내 분류해 재구성,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무차별 학살 가운데 ① 피신 중에 학살을 당한 경우는 ‘피신학살’, ② 집단학살터에서의 학살의 경우 ‘집단학살’, ③ 가옥 소개시 불에 타 숨진 경우 ‘소개학살’, ④ 피신 중에 굶주려 죽은 경우 ‘기아학살’, ⑤ 행방불명 ⑥ 수감 중에 사망한 경우 ‘수감사망’, ⑦ 임신부의 태아 학살인 경우 ‘태아학살’, ⑧ 도피자가족으로 지목돼 학살된 경우 ‘도피자가족학살’로 표기하기로 한다. 표기는 구술의 생생함을 위하여 가능한 구술자의 제주어를 살리되 구술자가 표준어를 사용하면 그대로 따랐다. 다음은 무차별 아동학살의 유형을 파악해본 것이다.

1) 피신학살

초토화작전 기간 동안 중산간 마을에서 피신 중이던 수많은 아동이 학살됐다. 특히 영·유아들의 희생이 컸다. 어떤 집안은 하루 동안에 열두 명의 아이들과 친척을 잃었고, 굴 속으로 피신했다가 발각되어 아이가 처참하게 살해되기도 했다.⁹⁰⁾

학살을 목격한 아동 생존자들의 눈에도 그것은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사람들은 죽음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피난지에서 갓난아이들의 죽음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생명체에 대한 존엄은 되풀이되는 광포성 앞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이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등에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학살됐다. 다음은 그러한 예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아기 업영 피신 다니던 곱양 잇단(숨어있다가) 토벌대에 자식들이 다 죽엇넌 험디다. 우진이 열네 살, 일곱 살 여동생, 두 살난 아기가 죽엇수다. 일곱 살과 두 살은 성도 모르니까 희생자 명단에 올리지도 았앗수다. 돌오름 근처에서 토벌대가 다올리난(내쫓으니) 어머니 애기구덕 지언 뛰어가단 았어지난 다 죽엇수다.”⁹¹⁾

90) 안인순(1934년 생, 가시리), 임병모(1930년 생, 서울시 성동구) 구술 사례 참조.

91) 이화자(1934년 생, 서귀포시 회수동), 2005. 7. 16. 채록.

피신하고 있다가 토벌대에 쫓겨 아이를 업고 갈팡질팡 달리다가 돌아보면 아이가 없
어지더라는 식으로 말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왔다갔다하는 상황
에서 그 죽음은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였다. 학살의 공간에서 죽음은 어느새 무감각해졌
던 것이다.

“남편은 대구로 끌려간 시체도 못 찾고. 선흘리 집칸에 이신디 집 불캐와부러가난 겁
결에 아기 들쳐업고 뛰쳐나가고 총은 팡팡 쏘아가고. 업언 도망다니단 보난 등에 부튼
두 살 난 아들이 죽어 이섯주.”⁹²⁾

피신의 공간은 어디든 안전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온 가족이 함께 피신을 다니는 것
은 위험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피신을 다녔다. 그것은 가문의 멸족을 막아보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대개의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멸족을 면하기도 했지만 멸족을 당하
는 경우도 속출했다.

1949년 1월말 경 남원면 의귀리 지경에서 토벌대를 피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땅굴
에서 생활하던 김홍석 가족의 학살 사례는 그러한 예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
야 한다는 절박감이 장남을 홀로 도망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김홍석은 동생들의 학살
장면을 이렇게 목격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장남인 나보고 아버님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일어서보니
군인 2명이 내가 있는 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고 난 무조건 뛰었어요. 뛰다보면 눈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정도도 있었죠. 나는 무리 안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
니 어머니는 네 살난 여동생을 등에 업고, 여섯 살된 남동생은 앞에서, 여덟 살 여동생
은 뒤에서 걸어가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남동생이 폭 쓰러졌고, 여덟 살 여동생이 슬그
머니 주저앉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죠. 나도 총을
4번 맞았는데 왼쪽 엄지손가락에 총을 맞아서 피가 그치지 않았어요. 오른쪽 어깨로 나
가고 한 발은 손등을 스치면서 엄지손가락이 맞았어요. 얼마 없어 토끼몰이작전을 한다
더군요. 어머니는 표선 가서 하룻밤 잤다가 남원에 와서 총살당했어요. 아버지가 다음날
그 지점에 가 찢자국을 헤치니까 두 동생이 보였어요. 손으로 파서 그 자리에 땅을 다
파서 묻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어디 묻혔는지 어떻게 해서든 알아들
건데 찾지도 못하고.”⁹³⁾

김홍석은 어머니와 세 동생을 한꺼번에 잃고 홀로 살아남았지만 동생들이 어디에 묻
혔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신의 공간이었던
산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홀로 떨어져 죽거나 총상으로 희생당했다. 다음은 산중에서 얼어서 죽을 지

92) 김유순(1923년 생,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06. 9. 27. 채록.

93) 김홍석(1939년 생,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2006. 9. 28. 채록.

경에 처했던 어린이들을 목격한 한 증언자의 이야기이다.

“산으로 피신 다니던 보난 사람 죽은 거 천지라. 고모가 아기 업고 다니던 스러져 이 선. 스물 난 처년디 고몬 죽고 애긴 살아서. 세 살 난 애긴디. 도련은 그런 디 많아. 다 죽어 부러실거라. 눈비 맞고 먹진 안 허곡 허난 고모 일어나랜 죽은 고모신디 강 영 일어나랜. 죽은 고모 얼굴에 가서 애기가 얼굴을 대고 그림디다. 49년 봄이라도 산은 좁고 비 오곡 아기덜도 엄마가 업고 달리고 막 도망치다가도 애기 내불고도 들앗수다.”⁹⁴⁾

중산간 무차별 학살이 이뤄지던 시기, 마을 주민들이 은둔지로 여겨 찾아 들어간 곳은 마을의 자연 동굴이었다. 1948년 10월 이후 1949년 3월 사이, 중산간지역의 주민들은 숨어 다니다가 토벌대의 눈에 띄기만 하면 무차별 총살을 당했다. 애월면 어음리 빌레못굴, 조천면 선흘리 목시물굴, 구좌면 세화리 다랑쉬굴 등 피난지 굴에서도 아이들의 죽음은 확인된다.

그 가운데 빌레못굴은 1949년 1월 애월면 납읍리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 노약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피난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빌레못굴의 학살 사례는 토벌대의 잔혹한 아동학살의 상징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다.

토벌대가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된 배경에는 어도리 구물동 무장대 습격사건⁹⁵⁾ 추격에서 비롯된다. 5~6명의 애월지서 순경들과 민보단 등으로 구성된 20여 명 안팎의 토벌대가 토벌을 가던 중 우연히 굴 밖으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빌레못굴을 발견한 것이다. 토벌대는 굴 속의 주민들을 굴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모두 학살했다.

거기서 양태병은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학살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학살 바로 후에 굴 밖으로 나와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곳에서 맨 처음 다리를 매쳐 학살된 아이가 서너 살 아이였다고 기억했다.⁹⁶⁾ 그런데 굴 밖에서 이 학살의 장면을 본 목격자는 더 어린 아기였다고 기억했다. 다음은 당시 애월면 직원으로 강제 동원 되어 그 학살의 현장을 목격했던 임병모의 증언이다.

“거의 아기엄마들이야. 부녀자들, 애기를 안아있는 사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 있어. 출밖에 전부 나오라고 해서 앉았지. 그래놓고 신분과약을 하였지. 우리는 빙 둘러서 그것을 봤거든. 엄마는 삼십오세 정도, 갈증이 적삼입고 얼굴은 시꺼멓고. 하여튼 안고 있었어. 애기 안은 사람은 그분 밖에 없었어. 그래 놓고 전부 쏘아 부렸는데. 아직 젖먹인데 물애기, 출왓 박혀있는 생들에 아기 엄마가 안은 애기를, 걸어다니는 애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물애기, 어린애기야. 그 아기를 양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돌에 몇 차례 매쳤을 거야. 순경이 그랬어. 다섯 살 아이는 총살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지. 그래도 쏘았지.”⁹⁷⁾

94) 송옥수(1927년 생, 제주시 삼양동), 2005. 4. 25. 채록.

95) 제주시 애월면 어도리 구물동 습격사건은 제주4·3연구소, 『4·3장정』 3(1990)에 잘 나와 있다.

96)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428회, 1998. 10. 16.

아무런 저항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가한 학살의 방식은 너무나 처참했다. 맨 처음 갓난아이를 돌에 메친 것이다. 순경들은 그 가운데 열다섯 살 가량의 아이 한 명만 포승을 채워가지고 애월 지서에 데려갔다고 한다. 그 아이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순경들이 로스케! 로스케! 하면서 갔단 말이야. 빨리 가란 말이야. 빨갱이 새끼야! 하는 말인 것 같애. 그 열다섯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49년 1월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시기야.”⁹⁸⁾

‘로스케’란 사전적 의미로는 ‘러시아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그것의 상징은 ‘빨갱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빨갱이’를 죽이고 유린한 것으로 자위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빨갱이’는 죽어도 될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죽여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⁹⁹⁾

이러한 빌레못굴의 비인간적인 학살은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특히 이때 학살당한 한 살짜리 아기의 죽음은 온 가족의 몰살을 의미했다. 다음은 그때 빌레못굴 현장에서 그 시신을 수습했던 친족의 증언이다.

“나는 열네 살이었는데 중학생이었죠. 2~3개월 후 가서 보니깐 아기는 엄마곁에 안겨서 묻혔어요. 흙만 지쳐(살짝 덮여) 있었는데 외숙모 두상이 완전히 절단났었습니다. 아기를 죽여부난 항의하자 그 엄마를 개머리판으로 때려쳤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부숴져 있었습니다. 그 송장을 직접 파서 내가 잘 수습 했습니다. 아기는 음력 2월에 낳은 애기, 한 살된 아기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변용옥(27)이고, 아기는 이름도 없으니 현아기로 올렸습니다.”¹⁰⁰⁾

산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면 가족과 아기까지 모두 ‘빨갱이 취급’을 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행위는 다른 굴에서도 발생했다.

1948년 11월 25일부터 연 사흘째 주민들이 은신했던 굴이 잇따라 발각됨으로써 선흘리 주민들은 초토화작전 초기에 대부분 희생을 치렀다. 11월 25일 반못굴이 처음으로 발각됐다. 군인들은 15명 가량을 즉결 총살했다. 몇몇 사람들은 살린 채 주둔지인 함덕국민학교로 끌고 갔다. 11월 26일 군인들은 전날 반못굴에서 잡은 사람을 다그쳐 가장

97) 임병모(1930년 생, 서울시 성동구), 2006. 8. 21. 채록.

98) 임병모와 관련한 증언은 양태병((1927년 생, 애월읍 어음1리, 2006. 7. 14. 채록)의 증언에서도 거의 일치한다. (『진상조사보고서』 p. 410.)에도 잘 나와 있다.) 양태병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빌레못굴의 유일한 생존자이다. 그는 당시 메쳐 죽은 아이는 3~4세 난 아이였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임병모는 당시 메친 아이는 양태병의 증언과는 달리 한 아이, 그것도 어린 아기였다고 증언했다. 또 한달 후 현장에 갔던 친족 진운경은 아이의 모친은 27세였고 그때 메쳐 죽은 아이는 한 살짜리 남아라고 했다.

99)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79.

100) 진운경(1934년 생, 애월읍 납읍리), 2006. 10. 3. 채록.

많은 주민들이 은신해 있던 목시물굴을 찾아냈다. 군인들은 아기 업은 여자와 노인 등 노약자는 함덕국민학교로 끌고 가고 나머지 주민들은 총살 후 휘발유를 뿌려 시신을 태웠다.¹⁰¹⁾

1948년 12월 18일에는 무차별학살극을 피해 중산간에 은신해 있던 사람들이 대거 희생됐다. 이들 중 ‘다랑쉬굴’에 숨었던 사람들은 토벌대가 밖에서 연기를 피우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 가운데 열 살의 어린이 손만채도 희생됐다.¹⁰²⁾

여전히 굴속에서 가장 크게 위협에 처한 존재는 어린 아기였다. 피신자들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자신들도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런 와중에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가 아이가 숨진 경우도 발생했다. 일시적 피난처로서 굴속의 삶은 사선을 비껴나가게도 했으나 학살의 처참한 참극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현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번은 숯 굽는 굴 집 위에서 순경들이 애길 주고받는 거야. 이제 애기가 울어버리면 다 죽지 안 험니까? 그래서 이불을 있는 대로 다 덮었더니 걸리지는 안 하고 무사히 살기는 살았는데, 순경들이 가고 (이불을) 걷어보니까는 애기들이 숨막혀 죽었어요.”¹⁰³⁾

다음의 사례는 피신 중 부모가 입을 틀어막았다가 죽은 경우이다. 그것은 토벌대의 학살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굴 속에서 한 살 된 아기가 앙앙 울어가는 남편이 부인한테 애기 울면 다 붙잡힌다고 울게 하지 말라고, 입을 막으라고 해십주. 경허난 엄마가 할 수 없이 입을 틀어막았는데 곧 소리가 안 나요. 굴 밖에서 토벌대가 나오라고 하니까 굴 밖으로 나오는데 애기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있었다고. 애기 시신을 망테기에 담아 나와서 굴 밖 나뭇가지에 걸어놔줬주. 나는 그때 다른 시신들이 학살당한 후 불에 태워서 버려지자 나중에 그 시신들을 전부 묻었는데, 그때 나뭇가지에 매달린 망테기가 보여 그것을 내려 놓고 보니 아이가 있어서 함께 묻었어요.”¹⁰⁴⁾

한 발만 헛디디면 죽는 상황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부모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상처를 객관화할 수 있었다. 당시 동광리에서 토벌대에 의해 가옥이 불에 타 없어지자 어린 세 아이들을 돌볼 길이 없었다는 이○춘의 기억이다.

“그땐 어머님이 어머이라서께. 언제 죽을지 모르난. 죽기 아니면 살기 뿐이난. 몽땅 불 태워부난 우리 아기들은 어디간지 모르고, 집도 절도 어시난 네 살 난 건 걸리곡 세 살

101)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411.

10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p. 53.

103)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2권, 한울, 1989, p. 213.

104) 김형조(1922년 생, 조천읍 선흘리), 고성준(1925년 생, 조천읍 선흘리) 2006. 9. 27. 함께 채록.

두 살 난 거는 짐패로 업헌. 어명이 어디십디가게. 밤에 길에 내부런 들단 보난. 뒷날 가보난 얼언 죽어부런. 안양 땡기단 것도 죽고, 생각허민 기가막힌 노릇입주.”¹⁰⁵⁾

이 말은 역설적이다. “그땐 어명이 어명이라서게”란 말 속에는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대의 체념과 한스러움이 배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집단학살

무차별 학살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던 것은 집단학살 현장에서였다. 초토화작전은 중산간 마을의 95%를 태워버렸다. 그렇게 사라진 마을의 하나인 애월면 소길리는 4·3 당시 오지 중의 오지였다. 이 곳의 집단학살에서도 아이들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1948년 11월 13일 아침이었다. 후례시를 들고 군인들이 집으로 들어서 “일어나라.”고 외쳤다. 군복 입고 칼빈소총 등을 든 군인들은 15가호가 살던 중산간 원동마을을 깨웠다. 군인들이 온 마을을 뒤졌지만 무장대는 없었다. 그럼에도 군인들은 애꿎은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했다. 이날만 원동주민 34명이 희생됐다.¹⁰⁶⁾ 네 살, 일곱 살 짜리 어린 아이까지 희생됐다. 다음은 그 광풍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자의 증언이다.

“아버지, 의붓 엄마, 열 여섯 누이동생, 의붓 엄마가 다섯 살 남동생을 등에 업은 양 총을 쏘아부니까 딱 엎어져부니까 당한 거지요. 실탄이 업은 우리 동생 등으로 해서 엄마 머리 위로 날아가 버렸어요. 엄마는 머리를 쓸려서 머리는 한불 타서,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어불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란 건 부모허고 같이 있다가 총살되면 같이 총살되는 거니까.”¹⁰⁷⁾

토벌대는 저녁 8시 경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부 총살시켰다. 그런데 당시 17세의 생존자는 총을 쏘기 직전에 군인들이 다음과 같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가혹한 학살의 방법을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였다.

“남자는 총으로 광 쏘앙 죽이민 갈라정 죽고 여자는 광 쏘으민 옳더정 죽곡 어린애기는 쏘앙 죽이민 뭐 악악 혼 세 번 이상 울어서 죽고 어른은 아무 껍소리도 못허고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철모른 애기도 죄가 시난 죽인 거라? 완전히 독재주. 민주주의라서야 그럴 수가 잇수과.”¹⁰⁸⁾

105) 이○춘(1925년 생, 대정읍 영락리), 2005. 10. 3. 채록.

106) 제주4·3위원회, 앞의 책, p. 388.

107) 고남보(1932년 생, 제주시 용담1동) 2006. 7. 4. 채록.

108) 고남보, 위와 같음.

집단학살기 군인들에 의해 굴속에 피신했다가 붙잡혔던 김명원은 태어난지 보름밖에 안 된 갓난동생과 어머니와 의귀국민학교로 끌려갔다. 거기서 어머니는 학살당하고 자신과 동생들은 구사일생했다. 그는 그 곳에서 자행된 학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의귀교로 잡혀가니까 50세 미만 다 나오라고. 우리 어머니도 애길 안고 나가려니 애긴 놓고 오라고. 애길 내게 맡기고 어머니 나가서 15분 있으니 콩볶듯이 요란한 총소리가 나는 거라. 나이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 다 죽어부럽젠. 기가 막히드라고. 애기가 우니까 안고 밖에 나가보니까 수망리 현 면장님이 날 보더니 너 병하아들 아니냐. 식구 다 테리고 나오라고. 급수차에 타서 남원리에 갔어. 우린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그때 김일석, 양을령이도 동창인데 한 구덩이에서 다 쏘양 죽어부렀어. 우리보단 어린아이들 5~6살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요번 이장혈 때 보난 어린아이 뼈들은 다 녹아부런 안 보이더라고.”¹⁰⁹⁾

그날 의귀교에서 죽은 아이들은 후일 ‘현의합장묘’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김명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죽어서도 흔적이 남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집단학살로 아이들이 슬하게 희생된 곳으로는 1948년 11월 15일 표선면 가시리를 빼놓을 수 없다. 토벌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격을 가했다. 이때 어린 아이들이 유독 많았던 안인순 가족의 경우, 어린이 12명을 포함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살배기부터 네 살, 일곱 살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을 물고 왔다. 이때 당시 열 네 살이었던 안인순은 신흥리 외갓집으로 숨어살았던 덕에 살 수 있었다.

“우리 집 5남매, 작은 아버지네 집, 사촌 고모 아들 3남매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네 가족 열일곱 살(남), 일곱 살(여), 네 살(여), 한 살(여)짜리와 우리 친동생 열두 살(여), 열일곱 살, 열아홉 살 언니, 고모님과 열두 살 남자, 일곱 살 여자, 네 살 남자아이 모두 14식구를 잃어 부러수다. 토벌대가 집안에 있는데 고모님 초가집이 으스스한 데라고 숨어 있었는데, 집안에 불을 붙여분집주. 고모님네는 멸족됐습니다.”¹¹⁰⁾

가족 가운데 홀로 생존하게 된 안인순은 이로 인해 가문의 멸족을 가져오게 된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멸족된 집안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중산간 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살상이 이뤄지던 시기, 제주읍 용강리에서도 아이들의 희생은 피할 수 없었다. 1949년 2월 4일은 용강리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날이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은 우왕좌왕 도망쳐야 했다. 이날의 희생자는 발 빠르게 도망치지 못한 노약자나 부녀자여서 그 참혹함을 더했다. 이때 주민 105명이 희생됐다.¹¹¹⁾ 다행히 총살을 당한 시신들에 깔려서 살아났던 한 생존자는 이날만 영·유

109) 김명원(1933년 생, 대정읍 하모리), 2006. 10. 26. 채록.

110) 안인순(1934년 생, 표선면 가시리), 2006. 9. 28. 채록.

111)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406.

아들이 20명 이상은 죽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¹¹²⁾

4·3 시기 전체 아동 희생자 통계를 보면 남자 아이들의 희생이 훨씬 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령 남자 아이와 함께 학살터에 갔어도 여자 아이만 살아남은 경우도 있었다.

“어린아이들 많이 죽어십주. 우리 조카들이영 남동생이영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일곱 살 난 거 4명이 죽어십주. 세 살, 대여섯 살난 아이들 20명 이상 죽어실거우다. 대개 30대 미만 부모들이 도망쳤으니까. 젊은 부모가 업은 아이들이 대부분입주. 도망치다가 총으로, 창으로 찢러 죽어부런. 멸족된 집안이 많이 나와십주. 내 남동생은 일곱 살, 여조카는 열두 살이라신디 함덕까지 군인들이 끌고 간 거기 함덕 입구에서 죽어부러수다. 여자 아인 살리고 남자 아이는 죽여분거라마썸. 진압된 뒤에 시체 찾안. 우리 조카는 연고자가 없다고 나중에 삼양에 남의 수양딸로 주어부런. 5~6개월 있단 조카 찾아왔수다.”¹¹³⁾

살아남은 아이는 남의 집 수양딸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또한 토벌대를 피해 집안의 돼지우리에 피신했다가 학살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우리집 담 너머 살던 열한 살된 남자 아이와 아버지는 뚝통시(돼지우리)에 들어간 숨었던 밭각되언 총살되였수다. 겨울이어서 눈위에 밭자국이 난 걸 보곤 찾아낸 거라마썸. 그렇게 죽어 있는 것도 봤수다.”¹¹⁴⁾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되었던 아이들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이때 군경 토벌대의 지휘통제권을 쥐고 있던 쪽은 미군이었다. 다음은 주한미군 사령부 「G-2 일일보고서」에 나온, 아이들의 죽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1949년 2월 20일 도두리에서 76명의 반도들이 민보단에 의해 죽장에 찢려 죽었다. 사망자들 중에는 5명의 여인과 중학생 정도 나이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과 군기대(한국군 헌병)가 그 작전을 감독했다. 논평=4명의 미군 군사고문단원이 도착했을 때 38명은 이미 처형돼 있었고 38명의 처형은 우연히 목격됐다.¹¹⁵⁾

제주4·3은 세계사의 냉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역의 하나였던 미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이제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다.¹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연히 목격된 일이라는 듯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112) 고병호(1930년 생, 제주시 용강동), 2006. 11. 1. 채록.

113) 고병호, 위와 같음.

114) 고병호, 위와 같음.

11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77, March 3, 1949.

116) 김동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p. 8.

3) 소개 학살

무차별 학살 후에는 집을 소개하는 방법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은 다행히 운이 좋아 살아난 경우도 있었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홀로 남겨져 있다가, 혹은 가족과 함께 몰살당했다.

1948년 12월 5일 구좌면 하도리 오맹은의 경우, 이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와 두 동생을 한꺼번에 잃고 홀로 살아 남았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자신만 단 한 발의 차로 그 학살의 현장에서 비껴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현장에서 갓난 동생을 들쳐 업고 불타는 집을 뛰쳐나왔다. 다음은 당시 아홉 살이었던 오맹은의 증언이다.

“그날은 오전에 날이 좋아서 조코고리를 내놓았다가 비가 오니까 빨감들을 전부 들인 다음이었죠. 마당에서 조를 담으려는 찰라에 토벌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일곱 살, 다섯 살 두 동생까지 전부 총살하고 집 세거리 전부 불 붙이고 우리 두 살짜리 누이동생 마루 구덕에 누워있으니까 건 내버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 마썸. 죽이는 건 직접 안 봤는데 곱아둬서 그것을 다 들었지요. 집으로 들어와보니 우리 어머니 축담 밑에 쓰러져 죽고 할아버지 대문앞 곱돌 옆에서 돌아가셨고 아파서 누워있던 아버지 방에서 돌아가셨고 그 동생 둘은 숨젠 돌단 거기서 죽었습니다. 조맥이 어리니까 광광해가니까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놓고 불을 질러부니까 마당 안에서. 그 후에야 난 대문으로 들어와서 구덕에 우는 애만 업어가지고 뒷담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¹¹⁷⁾

그는 경찰의 보복살해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대로 살려 두지 않았다. 온 가족을 몰살했으며, 불을 질렀다. 오맹은은 그때 마루 구덕에서 우는 두 살배기 여동생을 등에 업고 불타는 집을 빠져나왔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공포감은 안중에 없었다. 자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힘에 부쳐 방에 있던 아버지의 시신을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은 지금도 한스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나 비록 어린아이였음에도 극한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대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신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총살을 당했다. 또한 어려서 움직이지 못했던 아이들은 불에 타 숨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한 군인들의 무차별 학살은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집마당으로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아홉 살 시동생이 엄마와 난간에서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는 걸 군인들이 총을 쏘아부렸습니다. 경현 후에 집을 불태워부니까 타 죽었습니다. 어머니 복장만 조금 살아있고 애긴 다 타죽곡.”¹¹⁸⁾

어디 시신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그렇게 해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경우 흔적마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117) 오맹은(1940년 생, 구좌읍 하도리), 2006. 9. 1. 채록.

118) 고병열(1930년 생, 제주시 광령 2리), 2005. 8. 16. 채록.

4) 기아학살

아동의 슬한 죽음 가운데 하나는 직접 학살은 아니나 기아나 피신 중의 희생을 들 수 있다.¹¹⁹⁾ 부모와 함께 산으로, 벌판으로 피신하던 아이들의 목숨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배고픔이었다. 더구나 영아들의 경우 어머니가 먹지 못하니 아이가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아 죽은 경우도 많았다. 아이들의 죽음은 곧 부모의 운명과 함께 했다.

“당시 난 열일곱 살이라 낫수다. 형수가 임신 중이었는데 우리 형수란 사람이 마당에서 시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한테 욕을 봤수다. 마당에 시부모 세워놓고, 안방에서 욕을 봤지요. 형수는 죽을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어요. 부모는 용서하고 이해를 했는데 형수는 환병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도 채 안 돼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만 하나 남겨 놓았는데 당시 한 살도 채 안 되는 아기도 아라리 재건부락에서 엄마 젖을 못 먹어 죽었습니다.”¹²⁰⁾

어린 눈에 비친 아이들의 희생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허둥지둥 이산 저산을 헤매던 어린 희생자들은 총에 맞아 죽거나 기아로 죽어갔다.

“일곱 살과 두 살은 이름도 모르니까 희생자 명단에 올리지도 않았수다. 돌오름 근처에서 토벌대가 다울리난(내모니) 어머니 애기구덕 지언 뛰어가단 옆어지난 다 죽엇수다. 세 살 여동생도 올리지도 않았수다. 기가막힌 노릇이주. 가시리 애기무덤 잇수다. 다 불 붙영 죽여부난.”¹²¹⁾

이처럼 그 아이들은 이름도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호적에조차 올리지 않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애기’, 혹은 ‘○명미정’ 등의 이름으로 희생자 신고서에 올려졌다. 영아때 병들어 죽는 경우도 많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부모들은 아기들이 학령기에 이르러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될 때까지 쉽게 호적에 올리는 것을 꺼렸던 탓도 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기도 전에 희생된 것이다. 때문에 희생자 명단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다.

“동생은 어린 아이라부난 희생자로 올리지도 않았수다. 호적에도 없고하니까 안 올렛수다.”¹²²⁾

119) 1995년 도의회 신고자료 가운데 만 15세 미만 아동은 1,408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희생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토벌대에 의한 무차별 학살 962명, 무장대에 의한 학살 135명이며, 행방불명 149명, 기아 사망 41명, 주정공장 등 수용소 수감 중 사망 31명, 방치 16명, 기타 74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군·경 토벌대에 의한 학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피신 중 혹은 집단 학살터에서 부모와 함께 무차별 학살되거나 가옥 소개시 학살된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120) 강○문(1932년 생, 제주시), 2006. 7. 3. 채록.

121) 강공립(1936년 생, 가시리), 2006. 9. 27. 채록.

122) 오양자(1943년 생, 감산리), 2005. 9. 29. 채록.

당시 다섯 살의 오양자는 1948년 겨울 볼레오름 부근에서 가족들을 잃었다. 어머니, 아홉 살 언니와 세 살 동생이 피신을 다니던 중 언니는 총상으로, 동생은 기아로 죽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 동생은 호적에도 없어서 희생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이다.

“1948년 12월 볼레오름 부근에서 군인 토벌대들이 총으로 쏘니까 한라산에서 아홉 살 언니는 머리에 총 맞았 죽고, 나 아래 세 살 여동생은 먹을 것도 없고 눈 위에서 춥고 해서…애기니까 어머니가 안아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죽어버려수다. 동생은 호적에도 안 올라가시난 나 이름 만 양순이렌 협센 허엿수다. 난 다섯 살일 때, 어머니 영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단보난 난 살안. 나 혼자 어디레 간 목숨 질건 살단 내려온 거라. 겨울에 내려오니까 귀순 해연 수용소에 갔다가 다 보낼 기간 되니까. 나중에 어머니 낫병 난 돌아가신 거라마씀.”¹²³⁾

다급한 상황에서 피신할 수 있는 자식들은 살았으나 유아일수록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되면 함께 몰살당한다고 아이만 놔두고 피신가는 일도 있었다.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부모는 평온을 찾은 후에 괴로워했다. 4·3때 벌어진 무차별학살의 와중에 삶과 죽음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양상들이다.

영·유아의 경우, 길에 버려져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의 어머니들은 “그때 어떻게 어떻게 아니라.” “길에 내부렀단 다시 강 보난 죽어버런.” 같은 표현에서 참혹했던 상황들을 재현한다. 부모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자책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양심도, 이성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야만의 시대에 자식마저 지켜내지 못했음을 스스로 질책하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열두 살 때 우리 아버질 묶어서 철창으로 찢러버리는 장면을 봤어요. 난 내창에서 피신 중이었어요. 피신할 때 세 살 여동생만 놔두고 도망치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 굶주려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6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애기덜, 남편을 잃고 괴로워했지요.”¹²⁴⁾

어쩌다 학살터에서 살아남은 아기들은 다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곧 죽어갔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갓난 동생을 업고 살아남은 오맹은의 경우도 그의 여동생이 배고파 죽었다고 증언한다.

“갓난애 업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갓난이 누이동생은 젓 못 먹고 콩밥마저 귀했는데 얻어 먹지 못해서 있다가 죽어십주. 어머니 소기 넘으니까 죽었습니다. 세 살도 되기 전에. 그때 어린애 죽는 것은 아무 걸로 생각 안 해십주.”¹²⁵⁾

123) 오양자, 위와 같음.

124) 강공림, 위와 같음.

125) 오맹은(1940년 생, 구좌읍 하도리), 2006. 9. 1. 채록.

온 마을을 소개한다 하자 가족들은 경황없이 피신을 떠났다. 그 와중에 갓난애를 구덕에 놔두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굶주려 사망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의 울음 소리 때문에 온 가족이 발각될 것을 예측해서였다는 것이다.¹²⁶⁾ 4·3의 희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기아는 하나의 공포이며, 그것은 또다른 학살과 다름없었다.

5) 행방불명

아동들은 보호자로부터 떨어지면서 부모를 찾아 헤매다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또한 부모와 함께 도피하던 중 홀로 떨어져 헤매 다니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피신 중인 사람들이 전부 발각될까봐 버리고 떠나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행방불명은 어머니와 수감되던 중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살터에서 행방불명 되기도 했다.

“어머니가 동척회사에서 육지형무소로 가게 되자 짓먹이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가서 모친과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¹²⁷⁾

“당시 작은 아버님이 세 살이었는데 할머니 등에 업혀서 정방폭포에서 총살됐다는데 시신도 못 찾고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동광리에서 토벌대에 붙잡혀 끌려간 거지요. 할머니 제사 때 그 작은 아버님을 위해 물 한 그릇을 올려놓고 있습니다.”¹²⁸⁾

열다섯 살 아동이 느닷없이 소년범으로 몰려 결국 육지형무소로 잡혀간 경우도 속출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강창복의 형이 그 예이다. 1949년 12월 경찰은 “산과 연락하러 다닌다.”며 형을 잡으러 다녔다. 형은 붙잡혀 목포형무소를 거쳐 인천소년형무소로 이송되었는데 그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당시 아홉 살이었던 강창복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형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무법천지였던 세상이었으니까 아무 죄도 없었는데 폭도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1949년 말에 잡혀가서 맨 처음 목포형무소로 갔다가 인천소년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4~5개월 지낼 때 편지도 세 번 보내왔지요. 피부병에 걸렸다고 약을 보내달라고 하고. 몇 개월 있으니까 6·25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큰형, 그 아래 형, 누님 한 분, 여동생 한 명 등 모두 5남매가 있었는데 큰 형님이 행방불명 된겁니다. 함께 잡혀갔던 마을사람 한 분의 말로는 형이 그곳에서 너무나 구타를 당해 어린애처럼 울더라고 합니다.”¹²⁹⁾

이러한 행방불명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문철부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126) 강○○(1936년 생, 표선면 가시리), 2006. 7. 30. 채록

127) 현치홍(1932년 생, 표선면 가시리), 2006. 7. 11. 채록.

128) 부정유(1960년 생, 제주시 오라동), 2006. 7. 21. 채록.

129) 강창복(1939년 생, 대정읍 신평리), 2006. 10. 3. 채록.

“중학생 형이 귀순해서 재판받고 육지 대구형무소로 갔지요. 큰 누님이 대구형무소까지 면회갔다오기도 했는데 6·25 후에 행방불명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어디서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¹³⁰⁾

행방불명된 가족들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기도 했다고 한다.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영아들과 소년기 아동들의 행방불명은 현재의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구술은 이처럼 고통스런 현재형이다.

6) 수감 사망

수용소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주로 영아들일수록 굶주려 계속 말라가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흔했다. 무엇보다 수용소에서 위험한 것은 질병이었다. 아이들은 홍역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영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수감되었다가 그 속에서 병에 걸려 삶과 죽음의 기로를 걷게 된다.

“세 살난 아기하고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 7개월 동안 수감당하면. 음력 선달 초사흘 날 무명바지에 무명적삼만 입고 살았수다. 감옥 속에서 아이가 홍역을 앓아부린, 그때 해안동 여자와 송당리에서 온 여자가 모두 세 살배기 딸들을 데리고 들어왔수다. 그 아기들이 같이 홍역을 허다가 사흘 차이로 두 여자 아기가 죽었수다. 우리 아긴 통밀 밥에 톳을 소금에 씻어 무지하게 짠 밥이었는데도 그걸 삼켄. 우리 애기만 살안.”¹³¹⁾

질병 뿐 아니라 굶주림도 수감중인 영아들의 목숨을 크게 위협했다. 여기엔 어떠한 처방도 없었다. 이러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다. 다음은 그렇게 죽어가던 동생을 목격한 서술이다.

“두살 난 여동생이 주정공장에서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귀순해서 주정공장에 수용되었는데 갖 돌 지난 아기니까 어머니가 늘 안아있었지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어머니 젖이 말라버렸습니다. 계속 시들시들하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가면서... 어느날 아침되니 죽어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납디다.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던 시절이었으니까. 주정공장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소금에 물도 못 먹었으니까.”¹³²⁾

뿐만이 아니었다. 4·3 시기 6남 1녀 중 어린 세 아들을 잃은 고난향은 수용소에서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는 바람에 ‘폭도’ 누명을 쓰고 전주형무소로 수감되었고, 그 속에서

130) 문철부, 앞과 같음.

131) 오갑추(1925년 생, 제주시 아라1동), 2006. 7. 12. 채록.

132) 김주범(1934년 생, 제주시 일도2동), 2006. 10. 2. 채록.

아들을 잃었다. 그때 일만 기억하면 죄책감이 들고 징그럽다고 한다.

“아들을 거기서 죽게 허였주, 징그러웠던 일이라. 다섯 살난 거 데린 간 거기서 흥역으로 죽게해 부린. 생각만 해도 징그러완.”¹³³⁾

‘아들을 거기서 죽게 허였주’란 표현에서 아이의 죽음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성을 읽을 수 있다. 수용소에는 아이를 내버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떠돌던 아이들을 토벌대가 데리고 오면 아기 없는 사람들이 데려가기도 했다.

토벌대들이라고 모두 비인간적인 학살을 자행한 것은 아니었다. 군인이나 경찰 가운데는 아이를 살려준 이도 있었다. 아이가 배고파 칭얼거리고 있을 때 군인에게서 도시락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피난 다니단보난 내불고 간 애기 이선 그 애기 어디 낭(나무) 아래 묻었구나 했는데, 동척회사에 완 살다보난 내불고 간 애기들 토벌대들이 데려완. 그때 애기덜만 봉가온디 이십디다. 한번은 애고 영영 허연 애기덜 있다하니 ‘혹시 우리 애기 이선 데려왔주기’gps 애기 잃어버린 엄마가 그쪽에 가보난 일곱 살난 거 피난길에 해매는 아이 데려완. 눈 위에서 고산(곶아서) 살고 굶영 먹지 못 허곡 허난 아이가 거멍 험디다게. 경헌디 동척회사에 오란 살단 얼마 안 가서 그냥 죽어 부렸수다. 업영 다니단도 죽어 불고. 내 눈으로 본 것만도 여럿이라. 누게사 물어신디. 동척회사에서 들이나 죽어서. 우리 아긴 군인이 도시락을 줘 먹어나서.”¹³⁴⁾

영아들은 잃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근거를 못 찾는 경우도 많았다. 생존자들은 영아 희생자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기도 한다. 마을마다 ‘애기무덤’들이 더 늘어났다.

“그때 많은 애기들이 죽었습니다. 애기무덤을 ‘어축’이라고 해서 이 마을에 있습니다. 기가막힌 노릇입주. 물애기덜은 잃어버리민 그만이라 어디서 시체를 찾겠습니까. 숨어있다 발각되면 폭도라고 하면서 죽였으니까. 대왓디 강(대밭에 가서) 숨곡... 어차피 곱으레만 다녔죠. 무서워서 ‘살려줍서’ 허민 폭도신디 ‘쌀 날랐져’. 낭에 걸영 죽이고 총 쏘양 죽이고, 여자들은 개와동산에서 옷을 문(전부) 벗경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두 살, 세 살짜리는 데껴부난 끝났주. 집에 불붙여부난 죽기도허고. 막막한 세상이어십주. 잇을 수가 없지요.”¹³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학살의 사례를 겪었던 아동 생존자들에게 학살의 기억은 끔찍하였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이다.

다종다양한 학살의 만행 가운데 하나는 “토산리 창고 부근에서 행해진 학살의 상황을

133) 고난향(1907년 생, 2000년 작고, 제주도 오라동), 1993. 5. 25. 채록.

134) 송옥수, 앞과 같음.

135) 강공림, 앞과 같음.

들 수 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총살할 때 박수치라고 하고는 총살 때 애기가 폴폴 기어서 위로 올라오니까 아기에게도 총을 쏘았다.”¹³⁶⁾는 것이다.

또한 가시리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 가운데는 한 여인이 토벌대에게 희롱당하다 아기와 함께 죽은 이야기가 있다. “아무개 경찰은 한 젊고 예쁜 여자를 잡아와 ‘옷을 벗어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시키는대로 한 그 여자를 향해 총을 쏘았고, 아기가 그 위에서 울어대자 한 군인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아기 혼자 여기 내버려놔야 살 수가 없다’며 아기에게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¹³⁷⁾ 갓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은 비인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7) 태아학살

집단학살기 임신부들의 죽음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신부 학살은 두 생명에 대한 학살이라고 볼 수 있다. 애월면 하귀리 ‘비학동산 학살사건’은 임신부를 발가벗겨 팽나무에 매달아 놓고 대검과 철창으로 찢러 학살하는 등 그 잔혹함에 대해 주변에서 널리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이다. 임신부는 고정규의 아내였다.¹³⁸⁾ 다음은 고정규의 조카인 고남보의 증언이다.

“숙부가 피신했다 허연 그날 할아버지와 숙모가 돌아가셨수다. 난 그때 급히 숨었는 데 토벌대가 물러간 후 달려가 보니 숙모는 옷이 훌쩍 벗겨진 채 창에 마구 찢려 이섯 수다. 숙모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대정면 출신 김씨라고 했수다.”¹³⁹⁾

동광리 무등이왓은 4·3 광풍으로 사라진 마을이 되었다. 소개령이 내려진 1948년 11월 15일 10여 명의 노인들이 학살된 것¹⁴⁰⁾을 시작으로 4·3이 끝날 때까지 200여 명이 희생되었다. 이때 토벌대는 만삭의 임신부와 두 자녀까지 무차별 학살했다. 이 사건은 학살의 극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다음은 작은어머니와 그 자식들이 죽는 광경을 가까이 숨어서 목격했다는 당시 열여덟 살이었던 고상봉의 서술이다.

“나도 같이 곱안 살았는데 작은아버지영 작은어머닌 소까이(소개) 가지 안 허난 모멸(베밀)냥으로 집같이 놀을 놀영 거기서 숨언 살았수다. 밭이 나물밭이난 ‘토벌대들 올라왓져’ 허민 와상와상 도망가는 거 보여. 나영 작은 아버지진 숨어 부렸는데 나물 갈아둔 밭이난 토벌대들이 늬뻬(무) 메어 먹으레 들어왔단 애기울음 소리나난 ‘이레 나와’ 허멍다 끌어내언 죽여부렸주. ‘살려줍서’ ‘죽여야한다’ 허는 소리가 나는 거라. 작은어머닌 곧 태어날 애기 배어신디 찢러부린. 세 살, 다섯 살 난 아들 형제도 창으로 죽여 부린. 애

136)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400.

137)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pp. 100~101.

138) 주민들은 이후 끔찍했던 당시를 자꾸 상기시키는 이 팽나무를 베어 내고 그 자리에 동민회관을 세웠다.

139) 고남보, 앞과 같음.

14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1998, p. 251.

기털은 두더닐(생식기) 찢러분 거라. 곱았당 나완 보난 숨만 붙인. 누게가 죽엿덴 말도 해나서. 토벌 온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 조금 아는 청년인디 한 아기라도 살려주민 데려가 살리켄 허여신디 ‘살려두민 불씨만 된다’ 허명 죽여부렀덴. 너무 끔찍 해. 토벌대들이 모멸냥에 불붙영 다 가부난 우리도 나와부린. 아이가 뭘 죄가 이서.”¹⁴¹⁾

동광리 마을 밭에 숨어 있었던 이들 가족은 이렇게 몰살되었다. 이때 토벌대의 총알 반이로 현장에 이끌려 왔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 하나만 살려주면 데려다 길러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토벌대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아이를 남겨 두면 “불씨가 된다.”는 것이었다. 후환을 생각해서 무조건 학살했던 것이다.

8) 도피자가족학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토벌대는 도피자 가족으로 몰아붙였다. 도피자 가족으로 지목되면 갓난아기도 ‘빨갱이’가 되었다. 토벌대는 젓먹이에게까지 ‘빨갱이’를 적용시켰다. 대살(代殺)¹⁴²⁾, 즉 도피자가족이라하여 대신 총살한 것이다.

1948년 11월 하도리에서는 토벌대가 도피자 가족이라며 한꺼번에 20여 명을 초가집에 수용시켰다가 학살하기도 했다. 이 곳에서의 학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젓먹이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세화리에서 소개 간 사람들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문철부도 도피자가족으로 수용되었다. 당시 15세의 중학생이었던 형이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가버리자 도피자 가족이 되어 모두 수용소에 갇힌 것이었다.

열한 살 소년의 눈으로 그때 목격한 아이들에 대한 학살 장면은 자신의 경험처럼 각인되어 있다. 유년의 공포감은 오래 전에 죽은 타인의 존재마저 자기 기억 안으로 흡수되며 생생하게 촉발되는 것이다.

“한 달쯤 7평 정도 되는 집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애들이 ‘폭도새끼들’ 하면서 돌맹이를 던지고 가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그 때 밤낮 술만 마시고 하는 사람, 평안도 출신 순경이 들어오는 거야. 거기 김석중 씨 부인이 아기한테 젓을 먹이고 있었는데 애기 얼굴이 동글동글한게 잘 생겼어. 돌 지났을까 말까한 애기였지. 그 부인한테 가서 ‘너 석중이 각시지’ ‘예’ ‘너 애기 젓 먹었지’ ‘너 아버지가 폭도새끼한테 젓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젓 먹었지’ 허는 거라. 부인이 ‘애기가 막 울어서 먹었습니다’ 허니까 ‘왜 폭도새끼한테 젓을 먹여’ 막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 ‘넌 죽어야해’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날 데려다가 애기하고 엄마하고 죽여버렸어. 연두망 모래동산으로 끌고가서 죽여버렸지. 거기서 사람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¹⁴³⁾

141) 고상봉(1930년 생, 제주시 봉개동), 2006. 10. 23. 채록.

142) 사진적 의미로는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함’이란 뜻이지만, 당시엔 ‘가족 대신 죽는다’는 뜻으로 이 표현이 사용됐다.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391.

143) 문철부(1938년 생, 제주시 이도동), 2006. 11. 2. 채록.

토벌대는 젓먹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 4·3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위협에 처해 있었다. 토벌대는 젓을 먹고 있던 아기까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여 학살했던 것이다.

“상도 오○용 씨 부인하고 딸애기가 있었는데 그 애는 두 살도 안 된 애긴데. 한참 후 음력 정월 7,8일경에 오후 무렵 순경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 오○용 씨 부인한테 ‘너 오○용이 처지? 너 남편 어제 죽었어. 너도 천당에 가서 남편하고 잘 살아’하면서 끌어냈어. 이상하게 그 전날 애기가 밤새도록 울더라고. 우리 어머니랑 나이든 여자 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수근대더라고. 애기 데리고 나오라고. 데리고 가더라고. 이렇게 문구멍으로 보니까 다 보여. 지서에 데려가는데 그 부인도 애기랑 데리고 막 끌고 언두망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어요.”¹⁴⁴⁾

뿐만이 아니었다. 토벌대는 도피자가족이라고 지목되면 장소가 어디건 가리지 않고 찾아내서 학살했다. 더구나 초등학교에서 수업 받던 아동마저 도피자 가족이라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정권수의 동생은 우리보다 1년 선배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우리 팔촌 형이 그 동생하고 동창이니까 친구라 나신디 울면서 애길 하던데요. 학교 수업 중이었는데, ‘너 나오라’고 해서 받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총소리가 나자 선생님은 학생들 모두에게 목숨을 시켰다고 합니다.”¹⁴⁵⁾

빨갱이 논리는 학살의 집행자들을 법적·도덕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¹⁴⁶⁾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누구든 ‘빨갱이’라고 낙인찍어 학살한 것이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아동학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2. 아동학살의 특징

1) 무차별 학살-비인간화

지금까지 아동학살의 양상을 추적해 보면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다. 우선 대부분 초토화작전의 토벌전으로 인한 무차별 학살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변인들의 기억에 비인간화 학살의 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각인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발생한 학살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역시 군대의 공식적인 작전 명령에 기초하여 평소에 적이 활동하는 지역, 적과 내통했거나 적을 도와

144) 문철부, 위와 같음.

145) 문철부, 위와 같음.

146)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 152.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¹⁴⁷⁾

그동안 우리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만행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저지른 가공할 학살사실들을 거론하며 교훈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우리 민족 내부에서 자행되었던 끔찍한 만행은 보도 듣도 못한 사실이 되어야 했다.¹⁴⁸⁾

대량학살 가담 동기에 대해 벤자민 발렌티노는 “첫 번째 과정은 대량학살을 책임지게 될 조직 속에 가학적이며 광신적인 개인들을 인위적으로 충원하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투신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평범한 인간이 당국이나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상황적 압력을 받아 극단적 폭력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대량학살 사건들은 이들 메카니즘 각각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다수의 가해자들을 포함하는 것 같다.”¹⁴⁹⁾고 말한다.

대량학살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가장 중요한 형태들 가운데 희생자들의 비인간화가 있다. 쿠퍼에 따르면, ‘비인간화’란 “희생자들을 동물이나 대상물의 수준 또는 완전히 도구적 역할로 강등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¹⁵⁰⁾ 4:3 시기 아동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그 어떤 학살보다도 인간의 비인간적인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강유웨이(康有爲)는, “전쟁은 실로 개의 무리가 싸움질하는 것과 같고, 맹수가 서로 물어뜯는 것과 같고, 강도가 빼앗는 것과 같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옳은 것으로 되어버리면 혹독한 화(禍)가 인성을 꿰뚫어 뿌리와 씨가 전해져서 잊치락 그침이 없게 된다”¹⁵¹⁾고 말한다. 폭력은 흔히 분노로부터 솟아오른다는 것은 상투어에 지나지 않고, 또 분노는 실제로 비합리적이고 병리적일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인간 정서도 그럴 수 있다.¹⁵²⁾

비인간화 과정을 드러내는 단적인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한 권력 핵심부와 현장에서 학살을 집행한 군경 지휘관들을 사로잡았던 공통의 이데올로기는 “제주도민=빨갱이”라는 논리였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변방의 섬=모반의 섬”이라는 역사적 인식을 소재로 삼아 “제주=빨갱이 섬”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조작된 이미지는 학살의 원인만이 아니라 그토록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까지도 설명해준다.¹⁵³⁾

무차별 학살을 피해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무장대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학살됐다.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해변마을로 소개했을지라도 가족들은 젊은이가 빠

147) 김동춘, 앞의 책, p. 211: 초토화 작전이란 적에 대해 잔혹하게 대처하고, 적 또는 ‘희생양’들을 완전히 제거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 위엄을 과시하며, 이를 목격한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공포감과 무조건적인 복종심을 가지도록 하는 정치적인 행동인 것이다.

148)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돌베개, 1990. p. 231.

149) 벤자민 발렌티노, 장원석·허호준 옮김, 앞의 책, p. 82.

150) Isidor Wallimann · DobkoWiski 편, 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각, 2004. p. 196.

151) 강유웨이 지음, 이성애 옮김, 『대동서』, 민음사, 1991, p. 195.

152)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p. 99.

153) 최호근, 앞의 자료집, p. 82.

져 있는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부모의 희생은 수많은 자녀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부모에게 있어 아동에 대한 보호는 최우선이었으나 부모의 보호조차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중산간 마을 초토화작전 속에서 자행된 아동 학살은 수많은 학살의 유형을 보여준다.

발렌티노가 주장하는 대량학살의 3가지 개념 가운데 하나인 의도적인 학살에는 처형과 독가스 사용, 폭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 이외에도 기아, 노출, 의도적인 강탈과 파괴, 생필품 공급 제한 등에 따른 죽음까지도 포함한다.¹⁵⁴⁾ 행방불명 되거나 기아 사망한 경우도 또 다른 형태의 학살인 것이다.

자신의 피신으로 인해 어머니와 어린 자식 등 가족과 친척 12명을 잃은 부성방은 “억울하고 가슴 아픈 것은 당시 우리 딸 중 제일 철든 것이 열두 살이고, 그 아래로 열 살, 여덟 살, 여섯 살난 아기들인데 이것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였는가?”라며 한탄했다.¹⁵⁵⁾

초토화의 참극 속에서 어린이들은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얼어서 죽어가기도 하였다. 피신 중에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 가족이 절멸될 것을 두려워 아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사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한편, 아동에 대한 무차별 체포나 구금도 있었다. “제1구 경찰서에서는 지난 27일 새벽 돌연히 애월면 하귀리 미수동에서 동리 중학생을 비롯한 국민학교 아동에까지 이르는 일대 검거를 단행하였는데 경찰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무허가 집회, 무허가 배라에 관한 증거서류가 발각된 것이 원인으로써 피검자 10여 명은 남로당 세포조직의 혐의자들이라 한다.”¹⁵⁶⁾는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보복·후환의 불씨 제거로서의 학살

학살에는 뚜렷한 원칙이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토벌대의 명령과 요구에 응해야 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살아남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제주에서 전개된 초토화 작전은 책임의식과 규율이 없는 집단에게 총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었다.¹⁵⁷⁾

아동학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복학살이다. 가해자들은 보복과 후환의 불씨를 제거한다는 취지가 아이들까지 학살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 도피자 가족으로 낙인찍히면 젓먹이도 ‘빨갱이’가 되었고, 무장대 습격사건이 발생하면 그 젓먹이들까지도 보복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이 학살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집단광기의 한가운데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다.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학살은 공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사적 보복의 양상을 지

154) 벤자민 발렌티노, 장원석·허호준 옮김, 앞의 책, 2006, p. 34.

155)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297.

156) 『제주신보』 1947년 8월 30일.

157) 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p. 373.

나는 경우도 결국 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군·경의 실질적인 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⁵⁸⁾ 한국전쟁 시기 함평의 경우도 공비의 습격을 받아 국군 3명이 살해당한 데 대한 보복심이 학살의 배경이 되었다. 즉 전투 상황에서 동료들이 몰살당하는 일을 보고 나서 경남·전남의 11사단 군인들은 거의 이성을 상실하였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을 완전히 광인의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다.¹⁵⁹⁾

대개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안거나 업거나 함으로써 학살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4·3의 집단광기 속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사할 수 없었다. 영·유아들의 죽음이 많은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전쟁 전후의 모든 학살, 특히 국군 측이 자행한 학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린 아이와 여성 등 저항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잔인한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학살한 이후에는 불에 태워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문경에서도 14세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까지 총격을 가하여 모두 살해하였으며, 자취를 없애기 위해 사망자들을 불에 태워 버리기도 했다.¹⁶⁰⁾

토벌대는 젓먹이 아기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은 또한 후환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가해자들은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보복할까봐서” 학살터에서 아무도 살려 두지 않았다. 이는 후환에 대한 싹을 미리 없애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임을 의미한다. 아기들의 이러한 처참한 죽음은 한국전쟁 시기 함평양민학살사건에서도 회자된다.

장교마을에서 군인들이 이미 숨진 김순란 씨(1929년 생)의 젓을 빨고 있는 두 살배기 아이 박양님을 사살하기도 하고, 미처 숨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재차 확인 사살을 했다고 마을사람들은 증언한다.¹⁶¹⁾

가해자들이 임신부와 젓먹이까지 잔혹하게 학살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본때 보이기였는가. 광분해서였는가, 인간이 다른 동물 종들과 구별되는 것은 오직 ‘이성’때문이다. 그러나 4·3에서의 아동학살이 보여지듯 인간의 속성은 아예 멸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의 전체 구성원 가운데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아무런 군사적 저항 능력이 없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이것은 다른 유사한 세계사의 사건들과도 맥을 같이한다.

베트남전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설마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대로 집에 남아 있다가 몰살당했다. 때문에 ‘인간이 야수로 돌변한 사실들’을 정면으로 들추어내고 검토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반문명적인 사태를 또다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을 갖지 못할 것이다.¹⁶²⁾

158) 김동춘, 앞의 책, p. 283.

159) 위의 책, p. 231.

160) 산청, 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산청·함양사건 관련자료」, 1999, p. 6. 김동춘, 앞의 책 재인용, p. 236.

161) 함평양민학살사건은 1950년 12월 5일부터 6·25가 일어난 이듬해 정월 보름경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이 끝나갈 무렵까지 월야면 350명, 해보면 128명, 나산면 46명으로 총 524명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표인주, 「전쟁 경험과 공동체 문화」,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2003, pp. 147~148.

162) 김현아, 앞의 책, p. 203.

아동학살에 대한 구술자들의 경험을 헤아려보면 대부분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증언이었음이 확인된다. 수많은 아이들이 피신 중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또는 행방불명으로 사라졌다. 또한 아동학살은 가계를 계승해야 할 가문의 대를 멸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IV. 제주4·3 시기 아동생존자들의 기억과 삶

1. 생존 경험과 후유장애

아동은 삶과 죽음이 간발의 차이였던 4·3 대학살 속에서 묻혀진 존재가 되었거나,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남은 경우엔 어린 가장이 되어야 했다. 4·3의 한복판에서 방치됐던 아이들이다.

다음은 당시 유소년기를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이 어떻게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학살의 유형과도 맥이 통하면서 학살의 비극성이 어떠했는지도 보여준다.

인간의 기억은 선별적이고 시간에 따라 쇠퇴한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기억은 시간과 독립적이다. 관심의 정도에 따라 기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생생하다.¹⁶³⁾ 어린시절 겪었던 4·3의 경험을 뚜렷이 기억하는 것도 그 예이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이 연구를 위해 필자가 직접 채록한 구술생애사를 통해 그들이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그들의 직·간접 기억과 경험을 통해 삶과 후유증, 현재의 의미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실제 사례들을 모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분석한다.

1) 생존 경험의 양상

(1) 집단학살터 생존

고윤진은 당시 북촌국민학교 1학년이었다. 1949년 1월 17일(음력 12월 19일) 집단 학살터였던 북촌국민학교 인근에서 당시 어머니와 열일곱 살의 누나, 국민학교 3학년이던 아홉 살 누나를 잃었다. 고윤진은 그 학살터에서 총상을 입고도 살아났다. 다음은 그날의 학살과 생존의 기억이다.

“지금 시간으로 생각하면 저녁 한 5시가 안 됐겠나. 즉결이죠. 그 당시 나이에 죽고 사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너분송이 바닷쪽으로 소낭밭이 있어요. 당시 한 70~80명이 되지 않았을까. 양쪽으로 군인들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을 쏘니까 팡팡 쓰러지죠. 저도 앞으로 콧 쓰러졌죠. 어머니 옆에 아홉 살 누나, 열일곱 살 누나, 난 큰누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죽은 놈 손잡으라, 손잡으라’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총알이 등으로 튀어서 옆구리로 나왔어요. 그리곤 손으로 만져보니 따뜻한 물이 나와요. 음력 12월 19일이니까 달이 올라와요. 달빛에 비춰보니 피가 흥건하고 마을은 별건 불바다가 돼 있었고, 누님 두 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등으로 맞은 총이 손등으로 나왔는데도 살았어요.”¹⁶⁴⁾

163)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방법과 사례』, 선인, 2005. p. 32.

당시 여덟 살로 북촌국민학교 1학년이었던 원홍택도 비슷한 경우이다. 곁에 있었던 어머니는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으나 그는 팔에 총상을 입고도 살아났다. 그러나 그 손은 곧 절단해야했다.

“한 살 아래인 남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운동장으로 나오라 하니 갔어요. 난 어머니 품안에 안겼는데 어머니는 총 맞고 그 자리에서 스러지고 나는 총 맞앙 살아난 모양이라마썸. 나중에 어머니 시신에서 총알이 한 군데가 아니라 몸에서 한 다섯 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대여섯 발의 총을 맞았고, 저는 한 발 맞고. 살아난 것만도 기적이지요. 그 총이 내 오른쪽 손등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장 거기서 맞아서 잘라진 것이 아니고 이런 데 손등에 맞았는데 그 당시엔 약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약 같은 걸 발랐는데 막 썩어들어간 모양입니다. 썩어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손 여기를 상처 처맴다고 할머니가 산에서 나무뿌리 된장 같은 걸로 처매니까 낫지 않고 썩어들어가니까, 며칠 없어서 할머니하고 제주시 병원에 와서 손을 절단했습니다.”¹⁶⁵⁾

4·3의 증언자들 가운데는 “어욱 발에 불 붙다가도 새급하나 안 붙는 게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모두 죽다가도 한 사람 살아나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설령 거기서 살아남았다 해도 그것은 평생을 거쳐 그 기억과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다. 다음은 그렇게 살아난 생존자의 간접 기억이다.

“당시 세 살이었는데 성산포 터진목 학살터에서 유일하게 살아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산으로 피신했고, 외아들인 나는 어머니 등에 업혀 학살터에 있었지요. 모두 학살당하는데 유일하게 내가 그 학살터에서 살아나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토벌대들이 다시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폭도자식이니까 죽이라’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이 놈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살리자’고 했답니다. 거기서 한 군인이 나를 안고 성산포 부녀자들에게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느냐’했지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려올 때까지 보살펴 주었습니다.”¹⁶⁶⁾

성산포 터진목에서의 학살은 대부분 서청 특별중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1949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뤄졌다. 그때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이뤄지는 가운데 토벌대는 세 살 난 아이까지 학살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집단 학살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오인권의 생존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세간에서는 그를 ‘학살터에서 살아난 아이’로 부르기도 했다.

학살터에서 구사일생한 사례로는 김영자의 경우도 들 수 있다. 그는 일본에서 생활하

164) 고윤진(1940년 생, 조천읍 북촌리), 2006. 8. 31. 채록.

165) 원홍택(1940년 생, 조천읍 북촌리), 2006. 7. 11. 채록.

166) 오인권(1947년 생, 제주시 용담2동), 2006. 9. 4. 채록.

다가 해방이 되어 고향 애월읍 소길리 원동마을로 돌아오자마자 4·3을 만났고, 여기서 아버지 4형제를 모두 잃었다. 어머니 가슴에 안겨 있었던 두 살배기 김영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스치는 총알이 자신의 다리를 관통하면서 총상을 입었다. 자신은 간접으로 들은 기억이다. 다음은 당시의 상황이다.

“그냥 밭에 저 말고 들째 언니와 네 살 난 언니는 옆에 안고, 난 두 살 때여서 어머니 가슴에 매달려 젓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젓을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안안 총 탕 맞앙 피가 잘잘해가난, 경해도 어머니가 총 맞아도 부모는 애길 내불질 못허영 안안예. 모닥불을 피왕 이불을 쓰고 있었는데 이불에 불이 붙어가난 흙 췌영(취어서) 영 농곡 허엿덴 헛수게. 불을 끄젠. 우리 언니가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주. 사람들 다 총살허영 문딱 불붙여부런, 아무 것도 어신 들판에 우리 세 형제만 밤이 있덴 허는 것이 생각만 허여도 참. 경해도 우리 아버지 사 형제중 한사람이라도 살주만.”¹⁶⁷⁾

이때 김영자는 당시 다섯 살과 여덟 살의 두 언니와 함께 살아났다. 어머니는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에 불이 붙고 있는 와중에도 흙으로 불을 끄고 있었던 것을 당시 여덟 살의 큰언니가 기억했다. 때문에 자신들은 어머니의 기지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애월면 하귀리 개수동으로 소개를 갔던 안인행은 1948년 12월 10일 어머니와 함께 학살터인 비학동산으로 끌려 가게 된다. 당시 열세 살이었던 그는 그 잔혹하고도 처참했던 학살터에서 간발의 차로 살아났다. 이 비학동산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그는 그날의 상황이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학살의 현장을 서술했다.

“비학동산 길 알넉 밭에 갔어요. 세 명이 맡아가지고 총살시키려고 할 때였어요. 한 명은 ‘총살시키자’ 한 명은 ‘대검으로 처리허자’ 또 한 명은 ‘총으로 쏘아버리자’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한 명이 ‘실탄이 아깝다. 하 이러니까. ‘차라리 총부리에 맞앙 죽는 게 낫지.’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딱 나면서 엎어지니까 따다다 하는 거라. 켈 스타트가 저였습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맞은 거라. 맞안 나 우이 엎어진 거라. 어머니가 와들랑와들랑 해도 난 그 아래서 가만히 했습시다. 나중엔 호각을 부니까 전부 다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다시 확인도 하고 총으로 쏘고 다시 대검으로 찢러서 확인도 했습시다. 우리 동생은 알넉밭디 갈 때 어린 거엔 풀어주고 ‘이 높은 눈까리가 동글동글헌 게 산에라도 연락힐 수 있다’ 헌거라. 그러곤 이젠 지근지근 밟았지요. 난 대가리까지 밟아도 죽은 척 헨. 밑으로는 어머니 피가 막 쏟아져. 나중엔 호각 소리가 나고 봉하게 뜨는 소리가 나니 이젠 갔구나, 이젠 갔구나 해서 보니까 우영 팻을 지날 수가 없었습시다. 전부 시신이라부난.”¹⁶⁸⁾

167) 김영자(1947년 생, 애월읍 고내리), 2006. 6. 18. 채록.

168) 안인행(1940년 생, 애월읍 장전리), 2006. 8. 29. 채록.

학살의 복판에서 몸으로 막아내던 모성으로 인해 자식이 살아난 경우도 있었고, 자식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어간 모성도 있었다. 안인행은 전자에 속한다. 그는 학살 바로 직전 토벌대가 그들을 어떻게 학살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것을 듣는 어린 심정은 고통이 오게 하는 칼 보다는 차라리 총에 맞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당시 죽음은 도처에 일상적으로 깔려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극한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감마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수감·수용 경험

4·3의 한복판에서는 아무런 사상도 모른 소년들도 고초를 당하였다. 고문의 경험까지 겪는 경우도 있었다. 1948년 만 14세였던 김주범은 도피자가족이 되어 경찰에 잡혀갔다. 징용 갔다온 네 살 위 형이 일본에 간 줄 알았는데 산으로 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로부터 김주범은 소년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게 되고, 전기고문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는다. 그는 화북국민학교 6학년 때 1947년 3·1사건이 터지자 그때부터 계속 경찰들이 드나들고 아버지와 빼라 떼러 다니는 일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다음은 김주범의 수감 경험이다.

“1948년 음력 12월 20일에 잡혀 갔는데, 뒷해(1949년) 3월까지 햇수론 2년을 꼬박 채우고 나왔습니다. 경찰에선 ‘형한테 밥 가져갔지?’ 하는 거지요.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손도장 찍으라고 해. 눈은 막 오는데 정이월에 일광욕허레 내쫓고, 전기고문하고, 정신 잃으면 물 지치고, 일주일 간을 그랬습니다. 3개월 쯤 사니까 잡혀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는 석방, 하나는 헌병대, 하나는 그날 제주대 쪽으로 가다가 죽였습니다. 어머니네는 주정공장으로, 나는 헌병대로 잡혀갔습니다. 헌병대에선 낮에는 심부름을 시키고 사무실 청소도 하고, 헌병 하나는 불쌍하다고 밥도 주고 했지요. 대소변 깡통을 치우는 일을 하는데. 가을이 되니까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재판을 하러 갔더니 거기 높은 사람이 ‘미성년잔데 왜 데리고 왔냐’고, 그때야 풀려났습니다. 그때야 범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 가면 죽일 거니까 헌병대에 가서 석방증을 해달라고 했지요. 그러니 몇 장 써주대요.”¹⁶⁹⁾

그는 밤에는 경찰, 낮엔 헌병대 청소를 만 1년을 했다. 석방되기 전까지는 무법과 무국가의 세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기억을 통해 소년이었으나 당시 어렵פות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9년 3월 이후 아동생존자들은 부모를 따라 귀순자들의 수용소였던 주정공장에 수용되었다. 천우신조로 도망치다 살아난 아이들은 다시 수용소 생활도 경험해야 했다. 다음은 당시 열네 살 아동 생존자의 수용소 경험이다.

169) 김주범, 앞과 같음.

“난 여동생을 업고 피신을 다녔지요. 아버진 토벌대에 잡혀가고, 나와 어머니, 다섯 살 여동생은 함께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 4개월 만에 1949년 음력 3월 20일 군인들에 붙잡혀 동척회사에 수감됐어요. 통밀에 소금 한방울 주난 먹언 살단 석방됐지요. 양말도 없이 짚신 신영 농사지은 것 불붙여부난 무 동가리 주워 먹곡. 그렇게 보냈지요. 목숨이 질기난 살았수다.”¹⁷⁰⁾

수용소 생활이나 도망을 치던 삶 속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먹고 사는 것이었다. 아이들이라고 별 수 없었다. 소년기 아동의 경우 본능적인 생존방식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3) 비자발적 현장 활동 경험

4·3 시기 아동의 비자발적인 경험도 보인다. 아동은 주로 망을 보기도 하였으며, 청소 년기에 접어든 아동의 경우 성의 보초를 서기도 했다. 또 14세에 무장대의 ‘문서 연락 병’이 되어서 활동하기도 했다.

“부락에선 좀 똑똑한 소년들을 차출했습니다. 제가 거기 차출되었는데, 열네 살 때, 그러니까 문서연락병이죠. 고무신에 보리짚을 깔아서, 그걸 찢라가지고 거 복사지거든요. 미농지에 비밀문서를 쓴 건데 그걸 맙니다. 말아가지고 보리낭(보릿대) 속에 담아 끼워 가지고 신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주라고 하며는 시키는대로 하거든요. 열네 살 때, 그렇게 안해도 가라면 가야 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뭘 주면 가져다 넘겨주고 했는데.”¹⁷¹⁾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었던, 아동의 주체적인 경험이라기보다 비자발적인 경험이었다.

1949년 5월 귀순 작전이 한창이던 시기, 14세의 아동도 ‘어쩔 수 없이’ 강압적 토벌에 참여하였다.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토벌을 가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토벌대에 참가했던 경험이다.

“난 열네 살인데 범환리서 보초 설 때 산에서 습격 드니깐 뒷날 아침 공비토벌 가라고 해서 가야 했습니다. 5인 1조가 되어 경찰관 1명, 민간인 4명에서. 어른은 혼자 두 시간, 어린아이들은 둘이서 두 시간 보초를 서는 거라. 토벌가는데 산에 가면 물도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지요.”¹⁷²⁾

4·3때 소년기 아동의 존재란 일정부분 피해자이면서 경우에 따라 토벌대가 시키는대

170) 강공립, 앞과 같음.

171)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2권, 1989, p. 219. 참조.

172) 이원석(1935년 생, 안덕면 감산리), 2006. 10. 17. 채록.

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비자발적 현장활동자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2) 후유장애

4·3의 학살터에서 총상을 입고 살아남은 많은 아동들 앞에는 후유장애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게 된 것이다. 대부분 총상이나 창상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다.

2003년 조사 결과, 후유장애인 연령분포는 50대가 4명(6%) 60대가 15명(27%) 70대가 35명(53%)으로 나타났다. 후유장애 원인별로 보면 총상 27명(41%), 창상 14명(21%), 고문 및 가혹행위 10명(15%), 정신적 피해 5명(8%), 형무소 피해 4명(9%), 기타 6명(9%) 등이었다. 그 중에는 학살현장에서 총탄이 빗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으며, 5세 미만의 어린아이도 4명, 무장대의 습격과 교전 중 총에 맞은 경우도 5명이 포함되었다.

총상으로 피해를 본 후유장애자 중 50%는 다리에 총을 맞아 걸어다니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총상 후유장애자인 경우 대부분은 노동에 제약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총상은 마비증상과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¹⁷³⁾, 다른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0여 년 동안 ‘폭도’, 혹은 ‘빨갱이’로 매도당하며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 또한 원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¹⁷⁴⁾

4·3이 일어났을 당시 빨갱이는 문둥이와도 같은 존재였다. 빨갱이는 특정 인간을 죽여야 할 자,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여야 할 자로 지목하는 저주의 말이었다.¹⁷⁵⁾ 또한 4·3을 경험한 생존자들에게 이러한 비극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요행히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전쟁과 대량학살을 직접·간접으로 경험한 사회 전체에 엄청난 사회적·학적 후유증을 남기게 마련이다. 대규모의 역병(疫病)에 버금가는 크나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4·3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⁷⁶⁾

육체적인 후유증의 대부분은 당시 군부대와 경찰에 연행되어 전기고문에서부터 물고문, 심한 구타 등이 원인이 된 골절, 척추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자신이 목격한 학살의 기억은 성장한 후에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만든다.

17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인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후 일어나는 특수한 정신장애이다. 광주 5·18 유공자 3명 중 1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성, 「5·18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와 인권 심포지엄: 2006 춘계학술대회자료집』(2006. 5. 18.), 한국임상심리학회, p. 11.

174) 김동만·고성만,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각, 2004, p. 10~11.

175) 황상익, 「의화사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 337.

176) 위의 책, p. 306.

수형인들은 형무소에 보내지기 전에 총상을 입거나 취조과정에서 이미 부상을 당한 후 형무소로 보내진 경우, 수형생활에서 병을 얻어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존재했다. 수형인 출신의 후유장애인은 사회적 감시와 팔시,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통이 가장 심각했다고 증언했다.¹⁷⁷⁾ 후유증은 대부분 일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후유증은 “가끔 쇠막대기로 그냥 후려치는 것처럼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어디 길 가다가도 쓰러지면 나중에 생각도 안나고, 뒷목이 뻗뻗하게 아프고 마른 구토가 그냥 올라오면 얼마 없어 기절하는” 증상을 수반하기도 한다.¹⁷⁸⁾

(1) 육체적 후유증

① 총상 후유증

총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희생자들은 상당수가 군경토벌대의 무차별 토벌작전 때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학살터에서 총상을 입고도 극적으로 생존한 아이들 가운데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당시 상처를 치료할 시설마저 없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계속 누적된 것이다. 그것은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할 길이 없다. 40대, 50대의 장년기가 되면서 늦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성산포 터진목 학살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오인권은 그것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평생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때 양쪽 팔과 왼쪽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총상을 입은 왼쪽 손이 얼어버립니다. 오른쪽은 괜찮은데 손이 완전히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¹⁷⁹⁾

지금도 오인권의 휘어진 손은 4:3 기억의 현재성을 일깨워 준다. 육체의 언어는 정신의 언어를 지배하고 마는 것이다.

김영자의 경우도 다리의 총상으로 통증에 시달린다. 전신을 짓누르는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날이 많다.

“이게 그냥 놔두니까 초등학교 입학은 했는데 다닐 형편이 못됐습니다.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아니 가면 날 업어서 학포 가야 되었습니다. 내가 견줄 못하니까. 안그러면 어머니 남의 일 가면 이틀이고 오일이고 학포 못 가보고 그랬습니다. 날 업고 갔다오다 길에서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했지요. 언니도 조금 자라니까 육지 남의 집 살이 보내고 셋 언니(둘째 언니)도 어디 저 어머니 사촌네 허연 남의 집 살이 보내고 난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하고 나만 살게 된 거지요. 지금도 비가 올 듯하면 뼈가 쭈십니다. 그 총상자국으로 아직까지 고통스럽습니다. 태어나자 아픈 것이 이 다리가 지금까지 아픈 겁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¹⁸⁰⁾

177) 김동만·고성만, 앞의 책, pp. 21~29. 참조.

178) 위의 책, p. 123.

179) 오인권, 앞과 같음.

총상을 입었던 다리의 후유증은 컸다. 혼자서는 어디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다. 학교를 다니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온 뼈가 밤이 되면 자질 못하게 합니다. 온 뼈가, 손도 다 오그라들고, 무릎이고 어디고 잘 견질 못합니다. 병원에도 농사짓기 때문에 자꾸 다니지도 못합니다. 밤에 짓누르는 통증으로 자질 못합니다. 여기 어깨 같은 데도 속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낮에 아파도 밤에만 아프지 않으면 좋을 텐데. 진통제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엄지손가락까지 알려서(아려서) 제대로 펴질 못합니다.”¹⁸¹⁾

학살터에서 살아남은 고윤진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여덟 살때의 총상 이후 찾아온 것은 후유장애의 삶이었다. 당시는 허벅지의 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아픈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학교 4학년이던 열세 살 무렵 갑자기 다리가 붓고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후유장애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동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스스로 그날 이후 자신의 아동기는 철저히 사라져버렸다고 서술한다.

“열세 살 이후부터는 백프로 아이의 인생이 없어져버렸죠. 그때 병원에 가서 막바로 수술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농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불미(풀무)하는 할아버지가 입으로 빨다 쇠덩어리를 꺼내요. 딱 꺼낸 것이 총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해 여름을 바닷물에서만 살았어요. 여름 때는 짠 물에서만 살지 않으면 소독이 안 되어서 버려지(벌레)가 괴어요. 등에는 크게 총알 자국이 났어요.”¹⁸²⁾

아이들과 놀 수도 없었고 최종학력은 국민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스물 넷에 결혼했으나 발일을 정상적으로 거들 수가 없었다. 가장 고생스러운 것은 일단 육신의 고통이다. 신경통이 재발하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② 창상에 의한 후유증

당시 열두 살이었던 이월색의 사례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경우이다. 이때 희생된 동생들은 갓난아기, 세 살, 일곱 살, 아홉 살 등이 포함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조천면 조천리로 이주해 살던 1948년 11월 11일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다. 다음은 홀로 살아남았다는 이월색의 구술이다.

“폭도들이 습격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삼촌, 갓난 여자애기, 아홉 살, 일곱 살, 세 살 남동생 셋 히고 일곱 식구가 살아신디, 난 제일 나중에 맞은 거라. 칼을 맞아서. 난

180) 김영자, 앞과 같음.

181) 위와 같음.

182) 고윤진, 앞과 같음.

이 팔을 자르젠 해나서. 난 팔에 총도 맞안. 겨드랑이, 다리, 일로(여기로) 맞안 일로 나완. 손도 성헌디가 어서. 사난 살았젠 허주. 거기서 난 기절헌 거라. 우리 세 살짜리 만복이는 불에 탄 죽고. 만선이 허고 만복이허고 어진이허고 불에 탄 죽고. 우리 오래빈 보리낭 옆더레 들어간 칼로 찢러부난 죽고. 셋것(둘째)인 만선인 배창자가 나오난 나가 옷으로 묶으멍 허단 기절해부난. ‘누나 누나 이거 묶어줘’ 허난 나냥으로 힘이 어신 거라. 순경들이 완 날 지서에 돌아간 하루 잠자게 헨. 그 후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주. 게난 병원에 우리 오빠(고모님 아들)가 와서 여자라부난 잘라선 안된덴. 경헨 안 잘라서.”¹⁸³⁾

이월색의 눈에 비친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는 또렷하다. 무엇보다 어린 동생이 상처를 내보이며 지혈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한을 비치고 있다. 그의 몸엔 그때의 창상 후유증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제주4·3위원회에 신고된 가해자별 통계를 보면 토벌대 78.1%, 무장대 12.6%, 공란 9%로 나타난다.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을 제외해서 토벌대와 무장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¹⁸⁴⁾ 무장대도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살해했던 것이다. 당시 세 살배기여서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상황을 들을 수 있었던 홍기성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다. 무차별 학살로 창상을 입은 것이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무장대가 습격해 집을 포위했습니다. 무장대가 ‘괏 괏’하며 성냥을 찾았습니다. 괏 괏 하면서 방안 여기저기를 죽창으로 찢었습니다. 그때 무장대가 내 머리를 찢었는데 거죽이 얼굴로 덮어져 숨만 불록불록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먼저 희생을 하셨죠. 그때 당시 해가 밝으니까 우리 집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바닷가 당 아래 피신해 있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난 도립병원에서 1년 반 이상을 입원해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만삭의 몸이었는데 그 충격으로 사산했습니다. 아들이었다고 합니다.”¹⁸⁵⁾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다. 이미 어린 몸에 상처가 가해졌으나 홍기성은 살아남았고, 임신 중인 어머니는 사산을 하고 말았다.

그날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홍기성의 후유증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다. 특히 햇볕 아래서는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학교 다니면서도 키가 자라지 않고 기억력이 없어졌습니다. 또 햇볕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서 항상 실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직업도 세탁업으로 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조금 일을 하면 누워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¹⁸⁶⁾

183) 이월색(1936년 생, 제주시 건입동), 2006. 8. 26. 채록.

184) 제주4·3위원회, 앞의 보고서, p. 537.

185) 홍기성(1947년 생, 제주시 연동), 2006. 9. 3. 채록.

아동 생존자에게 있어 죽음에 이를 뻔했던 충격은 후일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수반하는 깊은 후유증으로 남게 된 것이다.

③ 구타·전기고문 후유증

강택주의 경우는 임신부가 구타를 당한 후에 태어난 경우이다. 임신부에 대한 인권은 유엔에서 보류된 상태이지만 태아를 명백히 그 대상에 명시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태아의 경우, 이미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토벌대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끌고 가자 어머니가 죄 없는 사람을 왜 잡아가느냐 따지면서 막 쫓아간 것이 화근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7~8개월 된 아기를 임신한 몸이었다. 다음은 그때의 상황에 대한 홍복희의 간접증언이다.

“그들은 구둣발로 총으로 찌르며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막 쫓아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배로 트럭 뒤에 묶어서 막 칼로도 위협하고 발로 차고 총개머리판으로도 막 때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애월지서까지 가서 묶어 내버리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할머니가 며느리보고 ‘이게 무슨 일이나? 애기뻐 사람을 이 모양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습니다. 동짓달 스무일레 날 시아버지가 잡혀갔고 봄이 되어서 찾았습니다. 그 무렵 1949년 2월에 남편(강택주)을 낳았습니다.”¹⁸⁷⁾

그러나 그 결과는 후유증을 안은 아이로 태어나게 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수시로 까무라치는 병을 안고 아들 강택주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는 끝내 학업도 중단하고 결혼한 후에도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아야 했다. 모든 발일을 도맡아 하는 일은 부인의 몫이 되었다.

14세에 전기고문까지 당해야 했던 김주범에게 있어 후유증은 49세부터 왔다. 뒤늦게 손가락 발가락이 마비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가했던 고문은 지울 수 없는 기억이다. 그러한 기억과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녹아들고 있다.

“젊어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젠 그 후유증으로 손가락도 마비되어 오그라들고 발가락도 오그라들고 합니다.”¹⁸⁸⁾

이러한 후유증은 다시 과거의 기억을 불러온다. 1948년 11월 당시 의귀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김명원도 느닷없이 경찰에 잡혀가 고문을 당했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186) 위와 같음.

187) 홍복희(1945년 생, 애월읍 남읍리), 2006. 9. 5. 채록.

188) 김주범, 앞과 같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 가다보니 길가에 남원국민학교 우리 동창 현공식이 길가에 혼자 죽어 이신 거라. 그 애는 열네 살이어도 키가 컸어요. 경찰은 그 옆에 나를 꿰려 앉혀 놓고 군화 신은 발로 두 무릎을 짝 밟는 거라. 아야! 아파서 소리내면서 나는 데굴데굴 굴렀어요. 오발인지 뭔지 총이 내 오른 팔을 스쳤어요. 피가 나니까 형겅으로 지혈해서 태흥리까지 잡혀갔다 돌아왔지요.”¹⁸⁹⁾

그날의 후유증으로 그는 지금도 팔에 총상의 흔적을 안고 있다. 김명원은 당시 짧은 무명바지에 초신(靑新)을 신었는데, 그 맨살의 무릎 위로 군화발로 밟을 때는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가 가을걷이 철이어서 논 속에 쌓아두었던 산디(밭벼), 조 등 식량들마저 불에 타던 장면을 회상했다. 그는 토벌대가 고구마 구덩이까지 파헤쳐 버렸던 것도 기억한다.

(2) 정신적 후유증

아동생존자들에게 극심하게 달라붙는 것은 지독한 자기검열이다. 4·3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까지 수반한다. 그 정신적 충격은 노년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 아동기의 기억을 더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때때로 사회적·정치적 대변혁이 한 노년을 변모시키며, 어린시절을 무시하고 싶을 때조차도 그 시간이 노인들의 뇌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¹⁹⁰⁾ 자신이 겪었던 심한 충격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① 악몽

면접 대상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 악몽은 때때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나는 것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수반되면서 나타난다. 그것은 가족의 부채를 깨닫는 과정에서 더 드러난다.

“4·3이엔만 허민 막 생각을 안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것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젊었을 때는 덜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몸이 아플수록 자꾸 그런 입장이 되어놓곤 하니까 자꾸 외롭고 그런 생각이 들어마썸.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보면 막 부러워서 아이구 나도 참 저렇게 한번만 불러봤으면.”¹⁹¹⁾

“열여덟 스물 쯤에는 눈만 감으면 당시 학살 장면이 눈에 떠올랐어요. 결혼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밭에 가서 일하려면 일도 못해요. 젊은 때도 앉아서 하는 일은 못하고 경운기 가지고 약 치는 것밖에 못했어요. 켈로 고생스러운 것은 단 이 몸으로 인

189) 김명원, 앞과 같음.

190) 시몬느 드 보바르, 홍상희·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1994, p. 134.

191) 원홍택, 앞과 같음.

해 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견지 못하니까. 신경통이 재발했다 하면 오줌누려도 못가요. 시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초봄엔 아주 심해요. 지금도 비가 올라 하면 쭈셔요.”¹⁹²⁾

이월색의 경우, 육체적 후유증을 더 짓누르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창상을 입고 다리의 통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하는 삶이 계속되었으나 그것은 노년으로 갈수록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현재까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악몽을 견디기 위해 선택한 것은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막 꿈에 나타나. 일년에 네 번씩 천도를 해. 딸 하나 내가 다 모셨주. 나하나 내부러뒀 동생 하나만이라도 놔둘 것이지. 어떻 다 데려잡니까. 나만 남겨두고. 맥주라도 마셔야 그래야 잠이 들주. 잠 안 들면 아침마다 천수경 읽고 염주 다섯 번 돌리고, 초 켜고, 향 켜꼭 하여사. 맨날 꿈만 꺾져. 동생이 이것 묶어줘 해난 것 말이주. 아이들도 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어머니 아버지만 하지 말고 아이들도 천도를 해야헌텐 해여. 예그, 이제도 4:3사건 말만 들으면 징그러완. 꿈에 나타나고, 가슴이 벌렁 거러 잠을 못자는 거라. 온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해.”¹⁹³⁾

비학동산 학살사건에서 살아난 안인행도 열세 살 이후 그러한 악몽과 한증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러한 증상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30대부터였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병명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것을 그는 ‘뉘병’이라고 했다.

“어린 때 뉘 나가서 오래 되어가니까 심해전. 군대 갔다 오고 30대 되니까 잠잠다 일어나면 땀이 발작한 거라. 어딜 다녀도 못 고쳐. 게난 뉘병이주. 할머니는 뉘난 병이랜. 발에 가도 힘이 었어. 몸을 쓰지 못허여. 땀이 온 몸에 딱딱딱 이불이 흥건해. 그땐 닭도 온차 다 먹고 해도 기신이 어션. 병원에 가봤자 필요어션. 아무 병도 없덴. 예방주사나 놓고.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고. 열세 살 이후부터 그런 뉘병이 이어져온 거라. 쉰뎨쯤 되언 고쳐. 경해도 내 살 길만 찾앙 온 거라. 그 당시 생각이 나민 그런가부다 해.”¹⁹⁴⁾

안인행은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히던 이러한 ‘뉘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쳤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매우 긍정적인 성격 때문이 아닌가 했다.

김명원도 열다섯 살 이후 아동기의 꿈은 사라졌으며, 4:3 경험은 현재까지 악몽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 악몽은 꿈을 의미하지만 삶 자체가 악몽인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192) 고윤진, 앞과 같음.

193) 이월색, 앞과 같음.

194) 안인행, 앞과 같음.

“지금도 악몽으로 도저히 밤잠을 잘 수가 어서마썸. 지금도 순경들한테 잡혀그네 경찰들이 잡으려 오는 꿈 껴져마썸. 자다깨면 식은 땀이 발착하고. 열 다섯 살 이전까지만 해도 꿈을 꾸면 멋진 꿈만 꿔는데. 집도 좋은 집, 부자로 살아야지 하는 꿈이 있었는데.”¹⁹⁵⁾

열다섯 살까지는 ‘멋진 꿈’을 꾸었다는 그는 단 하루 차이로 부모가 학살되고, 자신 역시 삶과 죽음의 고비를 겪어오면서 ‘악몽’으로 가득찼다는 것이다.

② 의욕 상실증과 자살기도

학살터의 생존자들에게 찾아온 후유증은 일거에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거세게 짓눌렀다. 오인권의 경우, 의욕상실증이 수시로 그를 찾아왔다. 수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학업도 중도에 포기를 해야 했다. 스무 살까지 친족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함을 의미한다.

“밭일도 못 합니다. 그게 속이 상하지요. 학교 공부도 계속하고 싶었는데 부모를 잃은 마당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다녔지요. 열여덟 사춘기 때는 심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느니 그 학살터에서 사라졌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 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살아야 할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¹⁹⁶⁾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례는 태아였을 당시 어머니가 토벌대에 구타를 당한 후 그 영향으로 병을 앓고 태어난 강택주에게도 찾아 왔다. 4대 독자 유복자로 태어났으나 그의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살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고 여러번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었던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녹두 타다 가보니 죽으려고 했답니다. 또 늦은 봄인데 겨울 점퍼 입을 때 부인은 고령(조문)가려고 할 때, 남편이 졸졸 옷을 적셔서 왔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도 아프니까 꼭지 바당에 가서 물에 들었는데도 죽지 못해 왔다는 겁니다.”¹⁹⁷⁾

피신 중 타박상과 구타로 인한 후유증 또한 평생의 고질병을 불러오고 말았다. 그로 인해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한 예를 강순덕의 경우에서 본다. 당시 여덟 살의 강순덕은 봉개리에서 살다가 중산간 마을 소개령에 의해 도련리 지경으로 피신을 갔던 것이 평생의 한을 남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곳 역시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 김명원(1933년 생, 대정읍 하모리), 2006. 10. 26. 채록.

196) 오인권, 앞과 같음.

197) 홍복희, 앞과 같음.

그는 피신 중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고, 다시 토벌대에 붙잡혀 머리에 심한 구타를 당했다. 그는 다른 어떤 기억보다 자신에게 가해졌던 몸의 충격에 대해서는 어제 일처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난 여덟 살이어나신디, 어머니와 오빠, 네 살 짜리 조카영 산으로 피신다니는디, 군인들이 포위해서 일로도 팡 절로도 팡 허영 총을 쏘았주마씀. 그때 난 막 계곡을 건너는데 잘못 발을 디더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디다. 흑이 이만하게 나완예. 이리저리 곱으멍 다니단 막(幕)을 하나 발견헸. 거기서 초저녁에 한잠을 자는데 군인들 대여섯이 갑자기 들이닥쳐 후라쉬를 비추멍 ‘죽인다’ 허는 거라마씀. 어머니가 ‘죽여줍서’ 해주게. 경허난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막 때련. ‘이건 죽어지는구나’ 생각했지요. 난 이미 이만한 흑이 튀어나온 뒷 머리를 또 막 때리니까 맞았주. 머리가 남아 이시쿠과? 네 살 조카는 울어가난 어머니가 형겁으로 입을 막안. 그날 저녁 비가 와다닥 오는디 어머니 소낭(소나무) 아래 앉으렘 허영 비에 젖은 담요를 계속 짜내면서 우리를 썩웠수다. 오죽하면 ‘천둥이라도 때려줍서’ 합니까? 그 때 후로 왼쪽 손광 다리가 병신이 되어십주.”¹⁹⁸⁾

강순덕의 평생소원은 한 번만 걸어봤으면, 한 번만 다리를 제대로 쓰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4·3의 기억은 그냥 살기 위해 도망쳤던 본능밖에 없었다.

③ 대인기피증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방어 의식은 타인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꺼리게 만들었다. 자신의 상처가 무차별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한 상흔이었음에도 사적인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타인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면담자들 중에는 대인기피증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자살충동과 대인기피증마저 보이면서 그러한 자신을 부끄럽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다보면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콧막 막힙디다. 팔만 이러지 않아도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을 건데. 버스 탈 때도 날 뿡 웃고 있을 거라 생각들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내려와뎀. 부끄러와예.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서 바깥에 나가고 싶어도 못해마씀. 죽젠 해놔수다. 2년 전부턴 얼굴에 상처도 생겨난. 칭원허민 ‘아이고 나가 죽어불주게’. 아이들은 ‘무사 경헸수과?’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죽지 맘서. 나 자신으로 가고 싶지도 았고 저 사람이 날 보고 우습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친족집에 제사 먹으려도 가지도 안 합니다. 인사허민 받는 사람도 없어 뵈고 잘잘잘 울어만지고. 차라리 정신이라도 돌아불었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때 다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헤지는 거라.”¹⁹⁹⁾

198) 강순덕(1940년 생, 제주시 봉개동), 2006. 8. 26. 채록.

199) 강순덕, 앞과 같음.

이러한 자기피해의식은 아동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노년의 삶에 이르자 그 강도가 더해졌다. 육체가 더 쇠약해지면서 정신이 더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친구들 없으니까 외롭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나무란다고 절대 찾아가지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²⁰⁰⁾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은 생각에 대인기피증까지 찾아와 괴롭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인기피증은 자기억압적 파행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삶의 고통과 기억과의 싸움

1) 생존을 위한 몸부림

(1) 소녀의 생존방식

원동마을 집단학살터에서 얼굴에 총상을 입은 어머니와 함께 극적으로 살아난 김영자는 힘든 생존전략에 나섰다. 어찌됐건 한계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다. 어머니와 김영자의 생존을 위한 싸움은 이때부터 계속되었다.

열네 살까지 총상을 입은 다리에서 흘러내리는 고름 때문에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붕대로 감은 다리를 풀어볼 수가 없었던 삶이었다. 몇 차례의 수술, 그리고 약제를 무수하게 쓰다가 14년 만에 외형적으로는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끝나지 않았다.

“그땐 굶어죽을 정도라마썸. 어머니 이제 얼굴 경해부난 어디 남의 일도 못하고 어떻 어떻 허연 그동안에 살아나곡. 다시 그때 총맞으면서 불뚱이 다리에 튀었는지 어머니 어머니대로 영허고, 난 이 다리 헤싸져(헤어져) 가지고 경헨 있는디 병원엘 혼번 못가니까. 어머니도 몇 년 있어 가니까 2~3년 막 구진 허물 되언 얼굴이 전부 헤싸지고 저도 이 다리가 비글비글 허명 고름 나곡 허여도 치료받지 못 허영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남의 집이 요만큼헌 초집 오막살이에 완 죽지 안 허영 사난 살아신디.”²⁰¹⁾

그러나 이러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모녀는 생존의 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녀가 함께 밭농사를 했다. 김영자는 열다섯 살부터 물질도 시작했다. 그러나 그 물질도 가까운 곳물질(얕은 곳 물질)에 그쳐야 했다.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리 한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먼 데까지 나갔다 간 큰 화를 입을지 몰라

200) 강택주, 앞과 같음.

201) 김영자, 앞과 같음. 언니 김구자(1940년 생) 함께 구술.

서였다. 거슬러 오를 힘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어머니의 권유대로 깨농사도 하고 물질도 하면서 생활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당당한 생활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다. 4·3의 육체적 후유증은 건디기 힘든 것이었으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2) 아동가장으로 자립하기

학살터에서 살아남은 아동 생존자들은 그때부터 어린 가장이 되어야 했다. 아동가장으로서의 삶은 핍박했다. 가난과의 싸움이었으며,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과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열 두 살 여자 아이로 홀로 남겨진 이월색의 경우도 이후의 삶은 노동과의 투쟁이었다.

“열두 살 이후엔 일만 일만 허명 살았주. 온갖 고생하지 않은 게 없수다. 국수장사와 순대장사 등 안 해본 것 없이 오늘까지 왔수다.”²⁰²⁾

혈혈단신으로 일곱 살 동생과 함께 고아로 남겨진 원홍택은 도와주는 친족도 없이 홀로 자립해야 했다. 오른손을 절단한 몸으로 밭일, 어부일을 하면서 그날그날 살아야 했다. 그로부터 힘든 아동 가장의 삶이 이어졌다. 학살터에서 살아남았으나 총상으로 오른손을 잃은 그는 그 팔에 낫을 감아 열다섯 살부터 남의 일을 하러 다녔다.

“입으로 손에 호미, 갈갱이를 묶어서 일을 했습니다. 고생이라는 게 침, 남의 검질(기움)같은 것 돈 받으면 쌀 받으면 전부 여하튼 허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여기가(팔꿈치) 북물영(부풀어올라서) 다 터집니다. 어떤 때는 이게 그냥 막 형편없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도 장만했지만. 검질도 매곡, 조도 비곡, 보리도 비곡. 남의 일을 그렇게허명 품팔이 허명 살았습니다.”²⁰³⁾

국민학교 1학년 때 4·3을 겪었기 때문에 졸업장도 받을 수 없었다. 외할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구호대상자가 되었지만 생존을 위해선 품팔이라도 해야 했다. 고아원에 보내져 1년을 살기도 했고, 남의 집 일도 하면서 살아야 했다. 열다섯 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다. 스물 다섯 살에는 해녀였던 부인과 결혼을 했다.

“동네에서 많이 도와줘십주. 마을 갑장회 열다섯 명이 있었는데 당시 부모가 돌아가시면 쌀 한 가마니 술 한 춘(동이)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으로 하루를 넘겨나수다.”

202) 이월색, 앞과 같음.

203) 원홍택(1940년 생, 조천읍 북촌리), 2006. 8. 31. 채록.

4:3의 깊은 상처를 지닌 마을이었으나 마을 공동체의 끈끈한 힘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끊임없는 노동은 원홍택에게 집과 작은 배 하나를 갖게 만들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으나 3남 1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는 없었다. 그것이 가장 큰 한으로 남는다.

(3) 머슴살이로 살아남기

부모와 형제를 잃고 의지할 데가 없었던 아동의 경우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살기도 하였다. 밭갈이까지 하는 고된 노동을 했으나 배고픔만은 면할 수 있었다.

“당시 난 열두 살이었습니다. 부모님, 형, 누님이 열네 살인데 4:3 때 돌아가시고 나 홀로 고생했습니다. 법환리에서 1년간 남의 집 머슴살이도 했습니다. 열다섯 살 무렵엔 달빛이 환한 밤에 소를 몰아 밭갈이도 했습니다. 고생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70일간을 받을 갈아냈습니다.”²⁰⁴⁾

구슬자는 열다섯 살 무렵부터 1년 동안 남의 집 밭을 갈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했다. 말할 수 없는 노동의 삶에 대해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느냐는 것이다.

1949년 1월 의귀리에서 부모가 학살되니 열두 살, 아홉 살, 세 살 여동생과 살아남은 김명원은 여동생들을 남의 집에 보냈다. 찻먹이 동생은 얼마없어 죽고, 후일 작은동생은 수양딸로 보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남의 집에 머슴으로 주었습니다. 난 경찰관 출장소에 용케 급사로 들어갔어요. 밤엔 야간경비, 낮에 의용경찰 허명. 피신 중에 난 찻먹이 막내동생은 보름 만에 어머니 죽어부난 왕고모님한테 살려주라 하니 찻먹이한테 어떻게 그 난리통에 살릴 거냐고. 결국 사흘 만에 외할머니가 남원에 애기 찾으러 가보난 죽어부런. 작은동생은 그때 ‘이복순정’한테 수양딸로 주었.”²⁰⁵⁾

다행히 성인이 되어서 모두 만날 수 있었으나 그것은 심한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됐다. 김명원이 당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생존방식이었다고 했다.

(4) 고아로 살아가기

4:3으로 인한 큰 충격은 어린시절에 혈혈단신 고아로 남겨졌다는 사실이다. 고아란 사실을 인지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가로 막는 것은 자아에 대한 정체

204) 이원석(1935년 생, 안덕면 감산리), 2006. 10. 17. 채록.

205) 김명원, 앞과 같음.

성이다.

당시 두 살배기였던 강○○은 25세까지 호적도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던 매우 드물고, 특이한 사례이다. 그는 1948년 음력 3월 5일 토벌대에 의해 아버지가 들에서 총살당한 후 어머니의 등에 업혀 전주형무소로 끌려갔다. 가스가 차고 부황기가 있었던 어머니가 그 길로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거기서 생이별을 하게 됐다.

강○○의 생애사는 4:3이 얼마나 한 개인의 정체성마저 단절하게 했는지 말해준다. 아무런 혈육도 없이 내던져진 개인의 삶은 공적인 역사에 의해 희생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사회적 고통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는 거기서 보육원에 있다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수용되기도 했고 나중엔 떠도는 부랑아들을 수용하는 목포 가마원에서 살게됐지요. 열다섯이 될 때 황룡호를 타고 제주도로 도망을 온 것이 첫 인연이었죠.²⁰⁶⁾

그로 인해 드라마틱한 인생항로를 겪게 된 강○○은 그 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구두닦이, 성인잡지 판매, 목수일 등 생존을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으며, ‘고생을 밥 먹듯이’ 해야 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고통은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일이었다. 호적이 없어 군인도 될 수가 없었다. 강○○은 25세 무렵 호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서 무작정 청와대로 탄원서를 띄웠다. 그것이 계기가 돼 우연히 방송을 듣고 제주 친족들과 만나게 되면서 제주에 안착하게 되었다. 그것이 1975년 29세 때였다. 그러나 이후 강한 자기 긍정과 새로운 생애에 대한 적응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의 시간이 따랐다고 했다.

2) 콤플렉스·죄의식 벗어나기

아동기에 4:3을 겪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따라붙는 ‘빨갱이 콤플렉스’를 씻어내기 위한 자기 내면화 과정에 들어갔다. 그 방법의 하나가 군 입대였다.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앞다퉈 나섰던 입대 선풍이 그것이다. 입대선풍은 제주가 얼마나 공포의 땅이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²⁰⁷⁾ 한국전쟁은 빨갱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군대는 일종의 피난처이자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²⁰⁸⁾

김주범의 경우, 소년기에 고문을 받았던 이력으로 인해 계속되는 뒷조사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김주범이 선택한 것은 군인이 되는 길이었다. 그는 19세에 해군에 자진 입대, 23세에 제대했다. 오히려 군인을 자원함으로써 자신의 반공사상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206) 강○○(1946년 생, 표선면 가시리), 2006. 9. 28. 채록.

207) 김종민, 「4:3 이후 50년」, 역사문제연구소 편, 『제주4·3연구』, p. 372.

208) 장준만·김환표, 『희생양과 죄의식』, 개마고원, 2004, p. 101.

“해군 지원했어요. 경찰에선 가족 잠바 입은 형사들이 지켜서 뒷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자 그게 없어졌지요. 그전에야 보안사, 중앙정보부. 70이 넘어가니깐 이젠 병원신세만 집니다. 미성년을 전기고문했으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난 그렇게라도 해서 나의 반공사상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3년 7개월 살았어요. 5년을 지원했는데 동생이 지원하는 바람에 내가 나왔지요. 나오니까 골치대. 야당 운동했다고 하지 않나. 가족잠바 입은 놈들이 계속 뒷조사를 했어요. 시 공유지가 나와서 그것으로 농사 짓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아이들한테까지 왜 죄없는 아이들한테까지 그래야 되겠느냐. 아이들 장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어땠겠어요. 빨갱이 말 안 들으려고 반공연맹에도 들어 동 위원장까지 하기도 했고 별 활약을 다 했어요. 새마을 협의회 회장도 3년을 하고 계속 나를 캄플라치 하려고 했어요.”²⁰⁹⁾

김주범은 64세가 되어서야 자유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때까지는 그가 겪어야 했던 고초에 대해 침묵해야 했고, 어떤 말도 함부로 해선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입을 연 그는 “4·3사건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그 시기 넘으니까 더 공부도 못했다.”고 배우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와서 거실(성가시게 할) 사람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보안사에서 왔다 가면 술 마셔야 잠이 와. 그들은 전화기 냉장고 산 것도 누가 사줬냐고 캐 물었어.”²¹⁰⁾

자신에 대한 끝없는 감시는 김영삼 문민정부 때 와서야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민주화운동 한 이들 덕을 보는가 싶다.”고 강조했다.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충격으로 수십 년 동안 피해의식에 짓눌리고 말도 못하고 살았다.

그러한 명에서 벗어나면서 스스로 의식의 변화도 찾아왔다. 당시 마을 통장을 맡았던 것도 자신의 ‘빨갱이 콤플렉스’를 씻어내기 위해 ‘점수나 따려고’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자신의 과거 경험은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면서 드러나고 있다. 김주범에게 있어 가장 괴로웠던 과거의 기억은 무엇보다 누군가가 자신을 늘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행방불명으로 오랫동안 연좌제와 사회적 피해의식에 짓어 살아왔던 이중홍²¹¹⁾도 자원입대했다. ‘폭도자식’으로 낙인찍힐까 봐서였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도 연좌제 때문에 나온 거요. 육사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 육사 못간다. 연좌제 때문이라는 거야. 그때 참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구.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부터 사회에 저항하는 거라. 넌 연좌제 때문에. 시험을 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아무 것도 못하고 노가다를 한 거라. 군인도 그래서 입대했지요.”²¹²⁾

209) 김주범, 앞과 같음.

210) 김주범, 위와 같음.

211) 이중홍(1947년 생, 제주시 연동), 2006. 10. 26. 채록.

212) 이중홍, 위와 같음.

자원입대는 남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반공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탓이기도 했으나 자신에게 대물림된 억울한 과거가 사회적 고통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를 향한 저항의식의 발로이기도 했다.

김명원은 그러나 군대에서도 고통을 당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 역시 아무 죄없이 농사만 짓던 부모가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한 이후 ‘빨갱이 새끼’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원입대했으나 그 곳에서도 수모를 당해야 했다.

“ ‘빨갱이 새끼다’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봤어요. 군대 가서 열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던 것을 생각하면. 자살충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지요.”²¹³⁾

강창복은 중학생 형의 행방불명으로 가족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뒤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더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는 것이다. 지서에서는 육지에 가서 결혼해 사는 누이가 편지를 보내오면 그것까지 감시했다. 마을에서도 이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다니는 길을 조사하게 하고 제주성에 한두 번 나가면 조사가 심했다.

“형 소식이 끊긴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옆집 사촌 시아주버님은 중앙정보부 시험에 합격했는데 편지가 오기를 ‘억울하다. 사촌 형 때문에 신원조회 걸렸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출세를 못할 판이었습시다. 공부 잘 시켜도 동네 이장도 못험직하니까 경찰은 못 되어도 다른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모슬봉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 때문에 매일 화장으로 따뜻한 곳에도 못 앉았습니다. 우리집 둘째딸은 이산가족 신청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²¹⁴⁾

아버지 어머니는 그 후 환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 때문에 강창복은 자녀들한테도 아예 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주지시켰다. 아이들도 그렇게 살길을 찾아갔다고 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에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이장 같은 분들이 찾아와 어떻게 해서 잘 사는가, 어디 갔냐고 조사도 하고, 떼땀이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장네 하는 것 보면 알아마썸. 그 전에는 경찰에서도 사복경찰들이 조사해 가지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린 당사자만 행불당한 것도 억울한데.”²¹⁵⁾

체험자들은 엄청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겪었다. 그 수많은 죽음들에 대해 국가는 어떤 이유로든 자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13) 김명원, 앞과 같음.

214) 강창복, 앞과 같음.

215) 강창복, 앞과 같음. 김정춘(1941년 생, 대정읍 신평리), 2006. 10. 3. 함께 채록.

국가기구가 전쟁 범죄를 앞장서서 실현하는 때에, 즉 국가 자체가 범죄자로 역할할 때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조금의 변명도 되지 못한다.²¹⁶⁾ 저항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가져왔으며, 후손에게까지 연좌제 등 국가 폭력이 지속되었다. 토벌대 희생자 가족은 연금은 커녕 당시 사회에서 전망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²¹⁷⁾ 때문에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억과의 싸움이 따라야 했다.

“그토록 웅켜 안고 입을 막으며 숨어살던 생각을 하면 나도 죄 많은 오빠요, 형이구나. 도망갈 수 있으니 나만 살고 의리 없는 나의 처신을 생각하니 미리 잡혔으면 고생이나 덜할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하고 눈물겹다. 그 옛날 생각이 나면 잠 못 이루 꼬박 새벽이 된다.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짓먹이 어린애를 총살시켜 놓고 이제 와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다. 어머니는 촌에서 살림이나 하고. 동생들은 세상 모르는 철부지. 그런데 빨갱이 운운하며 총살을 하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다. 심판도 없이 총살하다니. 살아있는 사람은 연좌제에 묶여 평생 동안 숨죽이며 살아야하고 자식 앞길도 막아 놓았으니 차라리 죽음만 못하다.”²¹⁸⁾

김홍석은 최근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동생들과 함께 살아남지 못한 회한이 나이가 들수록 밀려온다는 것이다.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가 갖게 되는 수치심이나 죄의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죽은 사람들을 그대로 죽게 방치한 죄,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 가족 중 누구를 돕지 못한 죄 등이다. 이러한 죄의식을 극복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평생 죄책감으로 남아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스스로를 죽은 사람들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에 빠져들기도 한다.²¹⁹⁾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런 옛 기억이 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연좌제까지 덮쳐 와 숨죽여야 했던 말 못하는 심적 고통을 표출하고 있다.

216) 박명립, 앞의 책, p. 261.

217) 권귀숙, 앞의 책, p. 135.

218) 김홍석, 앞과 같음. 이 내용은 자신이 직접 쓴 회고의 글이다

219) 황상익, 「국가폭력과 트라우마-현대한국, 특히 제주4·3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2권, 2001, 삼인, p. 180.

V. 아동학살의 현재적 의미

1. 고통의 내면적 승화

4·3을 경험한 제주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놈(남)의 대동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소신에 상관없이 다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이다. 증언자들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4·3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집단 속에 묻혀 있어야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는 ‘무소신의 처세술’인 것이다.²²⁰⁾

대개의 아동 생존자들은 4·3에 대해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생각하려고 한다. 적대감을 돌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 ‘놈의 대동이난’이라는 인식으로 위안을 삼는다. 이 말은 4·3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시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자주 쓰는 말이다. 이때의 ‘놈의 대동’은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대부분이 당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자기 위안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간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집단 피해마을의 학살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왜 그러한 학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학살은 ‘시국을 잘못 만나서’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은 ‘시국 탓’이며, 자신이 살아난 것은 ‘산천이 좋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객관화시킨다.

이것은 기억의 시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체념과 긍정,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러한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기억이 옅어지고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든다는 것은 달라진 시대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생존자들은 단지 살아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던 삶이라고 위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적 역사 속에서 겪은 사적인 체험은 이제 객관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객관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현재적 의미부여와 혹은 스스로 고통을 극복해 낸 삶에 대한 통찰과 성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쩍니까. 운명이며 시국 탓이라고 생각합니다.”²²¹⁾

“아들 대는 이제 행복했으면 합니다. 누구 원망은 안합니다. 단지 산천이 좋아서 조상 덕으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²²²⁾

220) 김종민, 「4·3이후 50년」, 앞의 책, p. 378.

221) 오인권, 앞과 같음.

222) 홍기성, 앞과 같음.

“그건 순전히 시국 탓이죠. 누굴 원망합니까. 놈의 대동이난. 유족들 다 고난을 겪어 시난 나만 원망을 해본들 뭘 합니까. 나라가, 때가 그때를 닳쳤으니까 세상이 혼탁해서 일어난 거지요. 제 명예 못 돌아가시고 죄없이 학살되었으니 억울하다 해도, (나는) ‘천운’으로 살아난 건데, ‘시국 탓’이지요. 아마 3세대만 지나면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난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4·3사건 때 굶영 살았던 허민 ‘라면은 어십디가’ 허는 세덴디. 일본놈 구경하다가 해방되니 군인들 9연대 구경하다가 4·3사건 터지니 난리가 나고. 그 때 생각하면 지금은 대통령 삶이주. 글을 배워졌나, 해방되자 4·3이고 다시 한국전쟁이고 혼이 나간 세상만 살았지요.”²²³⁾

4·3은 전쟁 중이 아니었는데도 국내에서 동족인 토벌대를 불러 학살을 했다. 가장 많은 아동의 희생을 초래했던 초토화작전 시기의 법적 토대가 된 것은 1948년 11월 1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제주도지구계엄선포’ 문서였다.²²⁴⁾

4·3 체험자들에게 계엄령은 초법적인 조치로 각인되어 있었다.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조차도 “그때는 계엄령 시절이라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계엄령을 ‘마구 사람을 죽여도 되는 제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²²⁵⁾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시국 탓’이 스며있는 것이다. 4·3에 휩쓸렸던 것은 운명이며, ‘시국 탓’이고, 살아남은 것은 조상 덕이라는 데서 운명론적 인식과 조상숭배사상을 느낄 수 있다

구술자들은 한번 4·3의 피바람이 몰아쳤던 자신의 집터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한다. 그곳에 가면 고통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까 무섭다는 것이다.

“난 살아난 조천으로 해서 세화리로 갔주. 온 가족 죽은 조천엔 징그러워 이젠 조천엘 안 다니주. 함덕 어디 절간에 다녀.”²²⁶⁾

“다시는 그때 살았던 원동마을 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²²⁷⁾

“자식한테는 한번도 4·3사건 얘기를 한 적이 었수다. 내가 본 그런 끔찍한 이야길 행 뭐허여. 사람이 헐 것이 아니라.”²²⁸⁾

4·3의 현재성은 현실 속에서 타자화된 자신을 보면서 드러나기도 한다. 한 생존자는 자신의 손자를 볼 때 어린 나이에 공포 속에 죽어간 동생이 떠올라 슬프다고 말한다.

223) 강공립, 앞과 같음.

224) 그러나 문제의 계엄령은 계엄법이 제정(1949년 11월 24일)되기 1년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선포된 것으로 밝혀져 ‘불법계엄령’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권, 1998, pp. 365~392 참조.

225) 양조훈, 「제주 4·3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4·3공청회 자료집』, 새정치국민회의, 1998. 5. 7.

226) 이월색, 앞과 같음.

227) 김영자, 앞과 같음.

228) 고상봉, 앞과 같음.

“열한 살 이후 그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라서 잊겠습니까. 부인이 죽은 것은 잇다가도 동생들 고사리 같은 손이랑 얼굴을 껴안고 여섯 살 난 동생 입을 틀어막고 춤다는 동생 달래던 생각은 더 또렷합니다. 죽음이란 공포 때문에 춥고 배고픈 것도 이겨내던 동생들이지요. 특히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를 잠재울 때 죽은 동생이 더 생각났습니다. 자식 키울 땐 잇다가도 손자를 보면 죽어버린 동생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생각납니다.”²²⁹⁾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확인이 안된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은 의혹의 그림자에 휩싸인다. 미확인된 생사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들이 집을 전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15세에 행방불명된 형의 사진 한 장 없다는 강창복은 형이 너무나 그리워서 서글프다고 한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심리적인 보상은 누가 해주나.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프지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시국 탓이고 운명 탓이라고 하지만.”²³⁰⁾

“미성년도 구별은 해야지.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 그땐 시국 탓이고 운명 탓이라고 봅니다.”²³¹⁾

4·3의 기억은 개인의 기억만이 아니라 공통의 기억이며, 누구나 당한 고통이라는 공유의식이 마음상태를 강화시키고 있다. 아동 생존자 가운데서도 아예 4·3 고아로 호적까지 없었던 삶을 살았던 강○○의 경우도 4·3의 비극은 시국을 잘 못 만난 탓이며, 그것을 극복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나도 남들처럼 사랑도 받아보고 효도도 해보고 싶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한 세월이지만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시국 탓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²³²⁾

인간은 때때로 자신보다 더 힘든 삶을 보면서 위안을 받기도 한다. 원홍택의 경우 자신보다 더 심한 후유장애인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솔직히 장애모임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린 가보민 장애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보명 더 용기를 갖고 사는 게 오늘까지 살았주마썬. 그렇지 안허민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지요.”²³³⁾

229) 김홍석, 앞과 같음.

230) 강창복, 앞과 같음.

231) 김주범, 앞과 같음.

232) 강경민, 앞과 같음.

원홍택의 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그 자신을 가로막았던 정신적인 외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오히려 자신의 시련이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구술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래도록 왜곡되거나 은폐되어 왔던 아동기의 기억임에도 시간성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은 삶과의 사투를 벌이느라 바빠 지내며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었으나, 나이가 들수록 유년의 기억이 더 뚜렷이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으로 갈수록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을 짓누르는 것은 가족을 잃은 외로움이며, 멸족이 된 집안 혹은 그러한 친족집을 봐야하는 안타까움이다. 진운경은 “외가가 몰살되는 바람에 완전히 멸족되어 버렸다. 호적조차 없으니 인간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다.”고 한탄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외가의 멸족입니다. 호가 없어서 살아난 근본도 없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죽어서, 그것이 기막힌 노릇이죠. 죄 없이. 양자를 데렸지만 원래의 근본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²³⁴⁾

멸족이 된 집안들 가운데는 먼 친족이 있어서 양자를 삼기도 한다. 그러나 호적조차 사라져 버린 경우 그 근본이 멸실되었다는 데 큰 고통이 오는 것이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 생존자는 “그때 내가 죽고 우리 동생이 살아서된 때는 이를 걸 다 멸족되어 부러지네.”²³⁵⁾ 하며 가문의 멸족에 대해 가슴을 친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보다 가문의 대를 더 생각하는 여성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통을 입안에서만 담아두고 있었던 것은 지배적인 가부장적인 담론의 통제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비록 여자이지만 멸족을 면해 자신이라도 가까스로 가문의 대를 잇고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조카 하나라도 살아남아 가문을 잇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야 더 생각납니다. 외로와마썸. 언니 동생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지만, 시국 탓이 주. 그땐 똑똑한 사람만 다 죽어십주. 어느 사람들은 가슴에 애기 묻었당 죽어 불곡 우리는 그때 학교도 안 땡기고 이녀 식구들 죽영 말하는 걸 들었수다. 그때 이후부터 고향을 무척 했습니다. 아버지네 네 형젠데 다 잡혀가부니깐. 그래도 나 혼자라도 살아나니까 가정이라도 꾸려졌구나, 가문을 살려졌구나 했습니다. 자손도 이어졌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후손들이라도 이시난 다행이렌 생각도 들곡. 우리 집도 조카 딱 하나 살아난. 멸족될 뻔 해신디 손자들 나고 장성해서 그나마 다행입주. 누구 탓을 합니까? 어느 사람을 원망합니까?”²³⁶⁾

233) 원홍택, 앞과 같음.

234) 진운경(1934년 생, 애월읍 남읍리), 2006. 10. 3. 채록.

235) 문철부, 앞과 같음.

구술자들은 시대가 달라진 후 가장 큰 한으로 남는 것이 학업 중단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 국민학생 시절 4·3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4·3의 광풍 이후 아동기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한다. 한 아동 생존자는 초등학교를 10년이나 다니기도 했다.

“나는 초등학교 10년을 다녔지요. 내 친구도 한 사람 10년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4·3을 만나 학교를 못 다니다가 다시 2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하는 동안 꼭 10년을 다녔습니다. 내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70이 다 되었습니다. 삶은 죽음을 담보로 한 내용증명 같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²³⁷⁾

한편으로 어린이들은 수십 년 후 장년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사태의 참상을 증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주역이 되기도 한다.²³⁸⁾ 그 한 예로, 유족회 활동을 통해 4·3의 기억을 풀어내면서 내면을 극복해가는 과정도 보인다. 이는 어린시절 저항하지 못했던 것을 어른이 돼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이젠 유족회에도 열심히 나가 꼭 합니다. 유족회에 나가보면 정말 심하게 당한 사람덜이 많아마썸. 내가 다친 건 덜 헛 겁주. 정말 고통받는 사람덜 보민. 그런 희생당한 사람은 온 가족이 다 피해자우다. 나뿐만이 아니고.”²³⁹⁾

유족회 활동은 자신의 기억을 사회화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자신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입은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기억의 사회화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홍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수형인 명부가 발굴돼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고 4·3특별법이 통과되자 유족회 결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행방 불명인 유족회를 결성했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 봐도 나중에 직장 들어가자면 연좌제 걸리고 상처 입어서 나처럼 된다 해서 육지에 보내지도 안 했습니다. 유족회 결성하게 된 것도 이런 비극은 나 대에 끝나야 한다, 아버지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자식까지 폭도로 대물림되는데 이것은 나의 대에서 정리돼야 한다, 내 대에서 끝나야 한다, 다시 자식들한테까지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한을 풀어야 한다. 아버지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지요.”²⁴⁰⁾

이중홍은 유독 자신의 대에서 비극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36) 안인순, 위와 같음.

237) 김홍석, 앞과 같음.

238) 김동운, 앞의 책, p. 174.

239) 김영자, 앞과 같음.

240) 이중홍, 앞과 같음.

4·3 당시 15세 장남이었던 김명원에게 4·3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고통 가운데 특히 힘든 것은 수양딸로 보내졌던 작은 여동생이 5년전부터 “왜 내가 김씨 성인데 정씨로 살아야 하느냐.”며 자신의 성을 찾아달라고 원망한 일이다.

그는 또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도 말 못하고, 말 모르고 이리 살았는데 “모이는 자리 가 보민 사름들 중엔 ‘그때 산에 올라갔으니 죽은 것 아니냐’고 해. 그러면 ‘대여섯 살 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거냐. 어른들은 폭도니 사상이란 걸 씌웠다고 해도 물애기덜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였느냐’고 반문한다.”고 한다.

4·3만 떠오르면 가끔 자살 충동까지 일으켰다는 그는 다시 그러한 시국이 돌아오면 차라리 죽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준 것은 “내 동생, 내 형제간을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이 뿌리를 지키랜 현 거라마썸. 위령제 같은 데 나가서 목청껏 외쳐보고 싶고. 모든 게 내 운명이니 참고, ‘아무 것도 죄가 아니고 시국이 죄주’, 합니다.”²⁴¹⁾는 데서 극복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구술자들은 4·3의 야만성에 대한 비극적 경험을 자신의 현재적 삶 속에 의미 있게 풀어내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평화와 인권의 함의

제주4·3 당시 희생된 아이들은 갓먹이에서부터 소년기에 접어들었던 아이들이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소 물 먹이러 가다가, 혹은 들에 나갔다가 학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되기도 하였다. 극한 사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움직여야 할지 몰랐던 아이들까지 학살로 몰아간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 저질러선 안 되는 야만의 극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동학살은 비단 4·3의 아동학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소리 없이 죽어간 아동들의 죽음을 불러내야 한다.

그 묻혀진 과거를 살려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재확인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아동학살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은 4·3 시기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인권과 평화의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데도 필요한 통과의례이다.

회복할 수 없는 역사를 몸으로 살아낸 구술자들이 추구하는 평화에 대한 입장은 따라서 남다른 것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와 과거를 잇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제주사람들이 회구하는 평화는 관념적·추상적 사고 수준의 것이 아니다. 잔혹한 학살의 역사를 체험했고, 기억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몸으로 가슴으로 절실히 갈망하는 구체적인 성격의 것이다. 4·3의 고통스런 상처는 그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

241) 김명원, 앞과 같음.

다는 생각, 이념적·정치적 이유로 도민들 사이에서 반목과 갈등이 재연 또는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적 결의를 제주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²⁴²⁾

구술자들의 4·3인식은 이제 매우 달라졌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증언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 이전까지의 구술채록에서 보여주던 자세와는 확연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4·3의 기억에 대한 이러한 풀어내기는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간행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들의 “대통령도 사과했는데” 하는 말에서 이젠 억압의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온전히 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잠재된 기억의 상흔은 현실의 삶을 지배하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3에서 반세기 이상 지나 이미 4·3의 직접 체험자 다수가 마음의 굴절을 풀어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소돼 버릴 위험을 우리들은 다시 곱씹어야만 한다. 시대의 문제가 그 시대 속에서 다 해결되지 않은 한과 속박은 4·3체험세대가 점차 사라진다해도 제주사회 근처에 계속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²⁴³⁾ 4·3체험자들은 그들이 겪은 4·3의 상처를 씻고 이제 무너졌던 공동체를 회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화해와 상생은 온 도민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때, 그것은 지난날의 상처를 무조건 봉합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럴 때는 내부의 끓아있는 부분들이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아픈 부분들을 직시하고 아픔을 참으면서 치유책을 찾고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²⁴⁴⁾

역사는 진전한다. 광기의 시대는 인간을 다시는 반문명적인 역사로 회귀하지 않도록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가 평화와 인권을 구호처럼 외칠수록 과거는 과거로 머물러선 안 됨을 말해준다.

물론 4·3을 기억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제 구술자들은 고통을 넘어서 달라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간헐던 기억을 풀어내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 다음 세대에는 이와 같은 비극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의 세대에서 상처도 고통도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내면에 쌓여있던 자신의 상처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고통의 대물림이 없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살아남은 자들의 억압된 기억은 인간이 잃어버렸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학살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은 평화와 인권의 세기로 나아가는데 있어 질적 승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42) 김영범, 「제주 4·3과 평화 인권운동」, 『제주4·3 제57주년 기념 4·3평화인권포럼 자료집』(2005. 4.), 제주4·3연구소, p. 83.

243) 문경수, 『濟州島現代史』, 日本 신간사, 2005, p. 307.

244) 조성운, 「기억의 현재성」,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진실과 화해』, 각, 2003, p. 153.

VI.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4·3 시기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신고된 14,028명의 전체 희생자 가운데 9.4%(1,310명)의 아동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남아 57.9%, 여아 41.5%로 남자 아이들의 희생이 16.4%나 많았다.

첫째, 3세까지의 영아 희생이 25.9%(339명)으로, 전체 아동 희생자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가한 무차별학살의 규모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던 집단은 13세부터 15세까지의 소년기 아동으로 454명(34.7%)이었다.

둘째, 100명 이상 희생된 45곳 마을 전체 희생자 수는 8,526명인데, 이 가운데 아동 희생자 수는 922명으로 10.8%였다. 가장 많은 아동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량학살의 상징적 마을이었던 북촌리와 가시리의 사례를 통해 15세 이하 아동 희생자 실태를 살펴보았다.

셋째, 아동학살의 시기는 대량학살이 자행된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집중되었는데, 1949년 1월의 아동 희생자가 338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948년 11월 17일에 발효된 계엄령으로 인한 초도화작전 시 군·경도별대의 강경진압에서 빚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애꿎게 민간인들이 숨졌고, 아동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이뤄졌다.

다음, 아동학살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인식하는 기억에 표출된 학살의 유형을 세분화해본 결과, 우선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무차별 학살 가운데 ① 피신 중에 학살을 당한 경우는 ‘피신학살’, ② 집단학살터에서의 학살의 경우는 ‘집단학살’, ③ 가족 소개 시 불에 타 숨진 경우 ‘소개학살’, ④ 피신 중에 굶주려 죽은 경우는 ‘기아학살’, ⑤ 시신을 못찾거나 사라진 경우는 행방불명, ⑥ 수감 중에 사망한 경우는 ‘수감사망’, ⑦ 임신부의 태아 학살인 경우는 ‘태아학살’, ⑧ 도피자가족으로 지목돼 학살된 경우는 ‘도피자가족학살’로 분류, 사례를 재구성하고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아동학살은 가문의 멸족으로 이어졌다. 태아와 갓난애도 살려두면 불씨가 된다는 이유로 학살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도피자가족으로 몰려 대살을 당하기도 했다. 기어 다니는 아기를 죽이거나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불려나가 총살당했고, 14세 아동이 전기고문을 당한 사례도 보인다.

4·3 시기 아동학살의 특징을 크게 보면, 하나는 비인간화의 전형을 보이는 것들이며, 다른 하나는 보복·후환의 불씨 제거로서의 무차별 학살이다.

학살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동 생존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한 후유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아동기에 온 몸을 휩쓸었던 상흔이 얼마나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후유증은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① 정신적 후유증(악몽, 대인기피증, 자살 시도 및 자살충동 등), ② 육체적 후유증(전신마비, 수족 마비, 보행 장애, 두통, 경증, 임신부 구타로 인한 신생아의 선천적 장애수반 등) 등, ③ 총상과 창상의 흔적으로 인한 후유장애 삶 등의 예가 그것이다.

학살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노년기로 이행되는 동안 새롭게 구성되며 시간성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기 생존자들의 특성은 중년과 노년으로 갈수록 4:3의 기억이 더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잠재된 기억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정신과 육체의 황폐를 가져오고 고통스런 삶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4:3이 천진난만해야 할 아동기를 앓아가 버렸다는데 공감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상실감에 휩싸이고 있다.

4:3으로 수난을 겪었던 아동생존자들의 생존 방식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홀로 해결해야 했던 아동가장의 삶이다. 밭일과 바닷일 등 노동으로 접철된 생존 방식이었다. 와중에 수양딸로 보내지거나 머슴살이까지 한 경우도 보인다. 줄지에 고아가 되어 호적조차 없는 삶을 살기도 했다.

더 큰 고통은 아동기에 새겨진 육체적 상흔과 심리적 고통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면서 현재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아동기에 당했던 고통으로 인해 억울하게 평생을 '뒷조사'로 시달리던 생존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녀들의 미래까지 장악한 연좌제였다. 때문에 '빨갱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일부러 군인을 지원했고, 일부러 반공연맹에 가입하기도 했으며, 근래에는 4:3 유족회 활동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논문이 가진 한계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제주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부 조사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의 부재와 자료가 가진 한계, 체험자들의 작고로 증언의 범위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전쟁 등에서의 아동학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희생 유형의 구체적인 비교검토, 이후의 삶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

아동 희생자 수는 신고기관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동의 희생은 가문의 멸족, 이름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미신고된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아동 희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희생자의 실상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4:3 시기에 전개된 대량학살의 전체 규모를 드러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연구의 결론에 덧붙여 몇 가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우선 어린 시절 학살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가운데는 비록 후유장애로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뒤늦게 소년기의 상흔이 뒤늦게 후유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삶에도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들이 위안을 받고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일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전문 의학적인 육체적·심리적 치유의 과정과 공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억압의 기제로 사회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증상에 대해 사회의 정신적인 치유 프로그램 등도 필요할 것이다. 아이의 죽음으로 멸족된 가문 가운데는 호적을 찾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희생자에 대한 의례의 하나로 구술자들 가운데는 “가족의 제사 때 물 한 그릇을 올려 놓고 있다.”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의 죽음은 잊혀지기 쉽다. 이름없는 유아들의 경우 더 그렇다. 애꿎게 희생당한 아동들을 위한 상징적인 추모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가령 4·3평화공원 내에 별도의 위령 공간 등이 필요하다.

생존자들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이제 광범위한 1차 증언의 채록 작업, 영상자료의 구축 등도 시급히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억의 채집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증하는 작업도 동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든 아동학살은 평화와 인권에 위배되는 극한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살육전 속에 수많은 아동들이 맥없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3 시기 아동학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저지른 반문명적인 학살의 상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 아동학살의 살아있는 기억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제 불행했던 과거의 힘으로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다시 써야할 때가 되었다.²⁴⁵⁾ 명문화된 유엔아동인권협약이 지향하는 정신에 따라 아동의 인권이 어느 시대, 어느 폭력 앞에서든 보호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45) 허영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 4·3』, p. 133.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준만·김환표, 『희생양과 죄의식』, 개마고원, 2004.
-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06.
- 김동만·고성만,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각, 2004.
-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김현아,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2004.
- _____,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 노민영·강희정 편, 『거창양민학살-그 잊혀진 피울음』, 온누리, 1988.
- 당대비평, 『기억과 역사의 투쟁』(특별호), 삼인, 2002.
-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 북촌교총동창회, 『북촌교60년사』, 2003.
- 서경식·타카하시 테츠야, 『단절의 세기, 증언의 시대』, 삼인, 2002.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 _____, 『인류학자의 과거여행-한 빨갱이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4.
- 임규혁, 『교육심리학』, 학지사, 1996.
- 장휘숙, 『아동발달』, 박영사, 2001.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정근식 엮음, 『고통의 역사』, 선인, 2005.
- 정근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돌베개, 1990.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1994~1998.
-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회,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1~11권), 2001~2003.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2.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2권, 한울, 1989.
- 제주도·제주4·3연구소, 『미신고 4·3사건 희생자 실태 표본조사보고서(북촌·도두)』, 2005.

- 제주도의회, 『제주4·3사건 자료집』, 각, 2002.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4·3피해조사 1차 보고서』, 1995.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4·3피해조사 2차 보고서』, 2000.
- 조복희 등, 『인간발달』, 교문사, 1988.
- 최호근, 『제노사이드』, 책세상, 2005.
- 표인주·염미경 외, 『전쟁과 사람들-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3.
-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방법과 사례』, 선인, 2005.
- 허영선, 『제주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사, 1979.
- 현용준, 『한라산 오르듯이』, 각, 2003.
- 文京洙, 『濟州島現代史』, 日本 新幹社, 2005.
- 강유웨이, 이성애 옮김, 『대동서』, 민음사, 1991.
- 발렌티노, 벤자민. 장원석·허호준 역,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 보봐르, 드 시몬느. 홍상희·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1994.
- 손탁, 수전.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 아렌트, 한나. 김정환 옮김,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 아리에스, 필립.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 홉스, 제임스. 유병용 옮김, 『증언사 입문』, 한울아카데미, 1995.
- Isidor Wallimann ·Dobkowski 편, 장원석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각, 2004.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 Valentino, Benjamin A.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2. 논문·자료집

- 김동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사)제주민예총,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 _____, 「제주지역 사료수집·정리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제주지역 사료 수집·정리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3. 4. 29.
- _____, 「제주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편, 2000.
- 김영범, 「집단학살과 집합기억-그 역사화를 위하여」,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의 역사』, 제주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999.
- _____, 「제주 4·3과 평화 인권운동」, 『제주 4·3 제57주년 기념 4·3평화인권포럼 자료집』, 제주4·3연구소, 2005.
- 김종민, 「제주4·3 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나간채, 「5·18항쟁의 기억과 증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석사논문, 1998.
- 박정석, 「전장의 공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전쟁체험」, 『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2005.
- 박찬식, 「4·3진실찾기 운동의 발자취」, 『4·3과 역사』제3호, 2003.
- _____,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제28호, 2006.
- 안경환, 「기억과 용서」, 『당대비평』 28권, 2004.
-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양조훈, 「제주 4·3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4·3공청회 자료집』, 새정치국민회의, 1998.
- 오수성, 「5·18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와 인권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임상심리학회, 2006.
- 유철인, 「이 증언집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제주4·3연구소, 역사비평사, 2002.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25집, 1993.
- 정근식, 「집단적 기억의 복원과 재현」, 『제주 4·3 제55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학살·기억·평화: 4·3의 기억을 넘어』, 제주4·3연구소, 2003.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민일보』 (412~456회, 1998.4. 25.~1999. 8. 28.).
- 조성윤, 「기억의 현재성」, 『진실과 화해』, 각, 2003.
- 최호근, 「제노사이드 국제 연구 성과에 비추어본 4·3의 성격」, 제주4·3연구소·제노사이드연구회, 『제주4·3제58주년기념전국학술대회자료집』, 2006.
- 표인주, 「전쟁경험과 공동체 문화」,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2003.
- 한인섭, 「한국에서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 『제주4·3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6.

-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5·10 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황상익,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_____, 「국가폭력과 트라우마-현대한국, 특히 제주4·3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2권, 동아시아평화인권위원회, 삼인, 2001.

3. 기타 자료

<신문>

- 『제민일보』
- 『제주신보』
- 『한겨레』

<사이트>

- http://www.unicef.org/protection/index_armedconflict.html
-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rwanda_genocide.html
- <http://www.ohchr.org/english/law/pdf/crc.pdf>
- <http://www.sc.or.kr> <http://news.bbc.co.uk/2/hi/europe/1701562.stm>